
한일관계사학회

제212회 열례발표회

일시 : 2024년 4월 13일(토) 오후 2~6시

장소 : 한성백제박물관 B2 세미나실

차 례

사회 : 연민수(전 동북아역사재단)

제1발표

이소노카미(石上) 신궁 소장 칠지도의 재고찰과
제작지 연구

발표 : 오순제(한국고대사연구소)
토론 : 노태천(충남대)

제2발표

정종 원년(1399) 등시라로(藤時羅老) 왜구 집단
의 투항과 오에이(応永)의 난
—왜구 투항에 관한 ‘조선 조정의 회유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표 : 송종호(독립연구자)
토론 : 조혜란(방송통신대)

제3발표

19세기 근세 일본 향토 자료 속의 독도

발표 : 이형주(국민대)
토론 : 현명철(한일관계사학회)

제1발표

이소노카미(石上) 신궁 소장 칠지도의 재고찰과
제작지 연구

발표 : 오순제(한국고대사연구소)

토론 : 노태천(충남대)

【제1주제】

이소노카미신궁(石上神宮) 소장 칠지도(七支刀)의 재고찰과 제작지 연구

오 순제(한국고대사연구소 소장)

1. 들어가는 말

칠지도는 현재 나라현 덴리시(天理市) 이소노카미신궁(石上神宮)에 소장되어 있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 칼로써 『일본서기(日本書紀)』 신공(神功) 52년(AD 252: 고이왕 19년) 10월조에는 “백제(百濟)의 구저(久氐)가 천웅장언(千熊長彦)과 함께 와서 칠지도(七支刀)와 칠자경(七子鏡)을 받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필자는 본고를 통하여 이 기록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과 일본의 백제계 최초의 왕이었던 응신천왕(應神天皇)에게 것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그 시기가 근초고왕 때인지 아니면 고이왕 때인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와 아울러 이 칼이 백제지역의 어느 장소에서 제작되었는지 밝혀 보고자 한다.

2. 칠지도의 발견경위와 명문 해석

(1) 칠지도의 발견 경위

『일본서기(日本書紀)』 수인천황(垂仁天皇) 39년(AD 10) 10월조에 “오십경부명(五十瓊敷命)이 모정(茅渟)의 토지천상궁(菟砥川上宮)에서 가서 만든 1000개의 칼을 이소노카미신궁(石上神宮)에 보관하였다.”고 한다.

오십경부명(五十瓊敷命)은 수인천황의 아들로 저수지를 축조하였던 기술자이면서 칼을 제조한 자로 그 당시 고도로 발달된 한반도의 하이테크놀로지를 소유하고 있는 장인(匠人) 집단을 이끌던 지도자로 추정된다.

『일본서기(日本書紀)』 수인천황(垂仁天皇) 87년(AD 58) 2월조에 “오십경부명이 누이 대중희(大中姬)에게 이소노카미신궁(石上神宮)을 맡겼는데, 그녀가 대련(大連)이었던 물부십천근(物部十千根)에게 이소노카미신궁의 신보(神寶)를 관리하게 하였다.”고 한다.

즉 모노노베씨(物部氏)가 이소노카미신궁(石上神宮)을 모시고 관리하면서 이들은 이곳 ‘시소노카미후루(石上布留)’에 세력의 근거지를 두게 되었다. 포류(布留)란 ‘후루’로 읽으며 소부리, 서라벌의 ‘부리’나 ‘벌’에서 나온 말이다. 현재 이 신사 부근에서 모노노베씨의 거점이었던 포류(布留)에서 고분시대 전기의 집락유적인 대형의 굴립주건물군(掘立柱建物群)과 토기 그리고 검을 비롯한 무기공방, 옥공방 등이 발굴되고 있다.¹⁾

이소노카미신궁에는 대궁사(大宮司)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금족지(禁足地)와 100자루의

1) 『奈良県天理市布留遺跡柚之内(樋ノ下・ドウドウ)地区発掘調査報告書遺構編』, 埋蔵文化財天理教調査団, 2010.

칼이 보관되어 있는 보물 창고인 신고(神庫)가 있다. 토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이래 쇼군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상징적 존재로만 남아있던 천황을 다시 복위하자는 운동이 성공하면서 메이지천황(明治天皇)이 왕정복고를 하였다. 그후 국수주의 학자였던 간마사토모(菅政友)가 대대로 공사를 지내온 모노노베씨(物部氏)를 쫓아내고 1873년에 대공사가 되었다. 그는 다음 해에 몰래 금족지(禁足地)를 발굴하여 환두대도(環頭大刀)를 비롯한 검, 6개의 동경(銅鏡), 곡옥(曲玉) 등 천황의 삼종신기를 발굴하였다. 그와 더불어 보물창고인 신고(神庫)를 뒤져서 칠지도(七支刀)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림 1] 천리시의 석상신궁

그는 다음 해에 몰래 금족지(禁足地)를 발굴하여 환두대도(環頭大刀)를 비롯한 검, 6개의 동경(銅鏡), 곡옥(曲玉) 등 천황의 삼종신기를 발굴하였다. 그와 더불어 보물창고인 신고(神庫)를 뒤져서 칠지도(七支刀)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림 2] 칠지도와 명문

(2)칠지도(七支刀) 명문(銘文)의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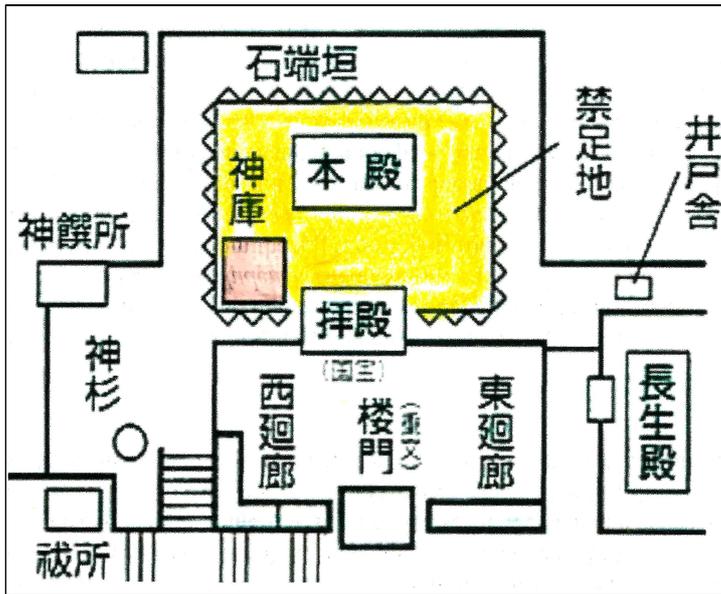
칠지도(七支刀)의 앞면에 35자, 뒷면에 27자로 총 62자의 금상감(金象嵌)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 명문(銘文) 중에 일본의 황국사관과는 달리 백제의 하사품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여러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을 본 간마사토모(菅政友)는 중요한 부분들을 줄칼로 밀어 버린 후 백제왕이 일본천황에게 받친 것처럼 조작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칠지도의 명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泰○四年五月十六日丙午正陽造百練鍊七支刀出(生)辟百兵宜供侯王○○○○祥(作)
 (태○ 4년 5월 16일 병오일 한낮에 백번이나 단련한 강철로 칠지도를 만들었다. 이 칼은 온갖 적병들을 물리칠 수 있으니 제후국의 왕에게 나누어 줄만하다. ○○○○가 만들었다)

先世以來未有此刀百濟王世子奇生聖音故爲倭王旨造傳示後世
 (지금까지 이러한 칼은 없었는데, 백제 왕세자 기생성음이 일부러 왜왕 지(旨)를 위해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하여 보이라.)

명문을 통해보면 이 칼은 백제(百濟)의 왕세자(王世子) 기생성음(奇生聖音)이 왜왕(倭王) 지(旨)를 위해 만든 것으로 이들은 동급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말투가 반말투이다. 이것은 백제(百濟) 왕세자(王世子)와 왜왕(倭王)이 동일한 지위였으며, 백제의 왕이 왜왕보다 상위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필자는 이 당시 왜왕은 백제의 해외 담로 중의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칼의 연호(年號)는 ‘泰〇’로 한 글자가 줄칼로 지워져 있는데, 대부분 동진(東晉)의 년호



[그림 4] 이소노카미신궁의 금족지(禁足地)와 신고(神庫)

인 ‘태화(太和)’로 추정하고 있어서 이 칼이 동진 태화 4년인 369년(근초고왕 24년)에 제작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서진의 ‘태시(泰始)’로 보기도 하는데 태시 4년은 268년(고이왕 35년)이 된다. 이것 또한 일반적으로 중국의 연호로 보고 있으나, 필자는 백제 고이왕 때의 연호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면 명문을 1977년과 1978년에 근접 촬영한 사진과 1981년에 X-레이 촬영결과 앞면에 ‘十’자가 숨겨져 있음이 발견되어 그동안 ‘五月’로 보았던 명문이 ‘十一月’로 새롭게 판독되기도 하였다.

금족지에서 발굴된 환두대도의 형상은 보통의 일본도(日本刀)와는 달리 안쪽으로 휘어져 있으며²⁾ 손잡이(柄頭)에는 환두(環頭)가 붙어있다. 길이는 85cm 정도로 일본도와는 다른 형태로 의 대도와 비슷한 형태이다. 그는 도단야사(刀鍛冶師)인 갓산사다카츠(月山貞一)로 하여금 포도어혼검(布都御魂劍) 두자루의 복제품을 만들게 하여 본전중진(本殿中陣)에 봉안하였다.

2) 칼박물관 한정옥 관장의 실험결과 직도를 기름에 담금질하면 칼이 안쪽으로 휘어지고, 물에 담금질을 위로 휘어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금족지에서 나온 칼은 기름에 넣어서 담금질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 철지도의 X-ray 분석
사진(KBS 역사스페셜)

3.백제 진출 년대의 조작

<3장 내용은 발표자의 요청 및 학회 측의 사정으로 비공개>

4. 사철로 만든 칠지도와 사철제련의 복원

(1) 사철로 만들어진 칠지도

2006년 칠지도의 복원 연구를 주도해온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가 정밀한 물리적 조사를 진행한 결과, 칠지도가 사철(砂鐵)을 재료로 한 것으로, 티탄(Ti)을 포함하고 있는 상질의 철로 제조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칠지도의 잘려진 부분을 검토한 결과 주조(鑄造)로 제작된 후 탈탄(脫炭) 처리를 한 가단주철(可鍛鑄鐵)로 보고 있다.³⁾ 더구나 이소노카미신궁의 금쪽지에서 발굴된 2자루의 대도(大刀)에서도 티탄(Ti) 성분이 0.001, 0.003%가 검출되고 있다.

그런데 오카야마현(岡山縣) 구메군(久米郡) 타나바라정(棚原町)에 있는 5세기 초의 쓰키노와 고분(月の輪古墳)에서 출토된 2자루의 검(劍)과 1자루의 직도(直刀)에 포함된 티탄(Ti) 성분이 각각 0.26, 0.29, 0.33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철(沙鐵)로 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철에 대한 문헌으로는 『히타치노후도키(常陸國風土記)』 코지마군(香島郡)조에는 “경운(慶雲) 원년(704)에 채녀조신(采女朝臣)이 대장장이인 좌비대마려(佐備大麻呂) 등을 거느리고 와서 와카마스(若松)의 해변에서 철을 채취하여 검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 와카마스의 해변은 히타치국(常陸國)과 시모우라국(下總國)의 경계인 아제호(安是湖)가 있는 곳으로 이곳의 사철(沙鐵)로 검을 만들면 아주 매우 예리하다. 그러나 코지마(香島)의 신산(神山)이기에 함부로 들어가서 소나무를 캐거나 철을 퍼낼 수 없는 곳이다.”라고 하였다.

노태천 교수는 이곳은 현재 이바라키현(茨城縣) 카지마정(鹿島町)의 야나가와(柳川) 해안으로 이 해변의 남쪽에 있는 카비마(鹿島)시에는 일본 최고 최대 233cm의 검으로 국보를 소장하고 있는 카지마신궁(鹿島神宮)이 자리잡고 있다. 이 검은 헤이안시대(平安時代794~1192)의 검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동남쪽 약 8km 지점에 소천(小川)이 바다를 흘러 들어가는 해변에서 채취한 사철을 분석한 결과 TiO₂가 10.31%, 17.05% 정도 나왔다. 타비마신궁의 북쪽과 남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 제철과정에서 버려진 슬래그를 분석한 결과 TiO₂가 0.12%, 0.62%, 4.18%, 12.67%, 15.93% 등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곳에서 채취한 사철을 원료로 사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현재에도 나메가타군(行方郡)의 대지는 웅창한 송림지대로 이곳의 소나무로 만들어진 송탄(松炭)에는 철의 품질을 저해하는 인(P)의 함유량이 적어 제철에 매우 적합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 지역이 제철산업에 최적의 장소였음을 증명해주고 있다.⁴⁾

그러나 일본의 타타라(たたら) 제철법이 도입된 것은 백제의 임성태자가 스이코천황(推古天皇) 5년(위덕왕 44년: 597) 일본에 전해진 제철법을 타타라제철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은 그가 일본에 도착한 곳이 야마구치켄(山口縣)의 호후시(防府市) 사바가와(佐波川) 하구의 바닷가인 타타라(多多良) 해변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그의 성 또한 타타라씨였다가 후일에 오우치(大内)씨로 바뀌게 된다.

초기의 타타라제철유적은 키비(吉備)지역에 해당하는 오카야마(岡山)현과 히로시마(廣島)현의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가나쿠로타니(カナクロ谷)유적, 오쿠라치미나미(大藏池南)遺跡, 시로가사코(白ヶ迫)유적, 이마사야야마(今佐屋山)유적 등이 있으며 6세기 후반에서 7 세기 초에 해당하는 유적들로 6세기 후반 경에 타타라제철법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시작되

3) 鈴木勉·河内國平 編著, 『復元七支刀-古代東アジアの 鐵·象嵌·文字-』, 雄山閣, 2006, p.29

4) 노태천, 「칠지도의 제작기술과 한중주철기술」, 『서산의 문화』 27호, 서산향토문화연구회, 2015.

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칠지도(七支刀)는 일본 본토에서 제작되지 않았고 백제(百濟) 지역에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전통 사철제련(沙鐵製鍊)의 복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철제련법의 맥이 끊어져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지금까지 발굴된 제철유적 중에서 사철(沙鐵)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은 Ti의 함량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은 사천 녹도 유적, 합천 야로리유적, 고성 소을비포성유적, 부산 지사동유적, 여수 봉산동유적, 연기 달전리유적, 공주 계실리유적 등이 있다.⁵⁾

그러나 동국대학교의 고 김익홍 교수가 찾아낸 경주의 감포(甘浦) 사철⁶⁾과 필자·충남대의 노태천 교수·공주대 조남철 교수·칼박물관 한정욱 관장이 찾아낸 불음도, 포항 등에서 사철을 채취하여, 한정욱 관장이 지금은 그 맥이 끊어진 우리나라가 삼국시대에 일본에 전해준 다다라(たたら) 제철의 전통방법으로 사철을 제련하여 성공해 냈다. 현재의 기술로도 강철을 얻기 위해서는 철광석을 용광로(鎔鑪)에서 녹이는 제선(製銑)과 전로·전기로를 통해 탄소량을 줄이는 제강(製鋼)이라는 2번 공정을 거쳐야만 강철(鋼鐵)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런데 고대의 사철제련법은 이러한 현대 기술을 뛰어 넘어서 단 1번의 공정으로 옥강(玉鋼)이라는 ‘강철덩어리’를 뽑아내는 획기적인 것으로 이 옥강을 단조(鍛造)와 열처리(熱處理)를 통하여 전통적인 환두대도(環頭大刀) 및 칠지도 등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필자가 일본의 타타라제철법에서 나온 옥강을 살펴본 결과 우리가 성공한 것에 비해 매우 품질이 떨어지는 것들로 이것을 가지고 그 유명한 일본도(日本刀)를 생산해 내고 있는 것이었다.

이 실험에서 주로 사용된 감포 사철(甘浦 沙鐵)⁷⁾을 포항공대 금속공학과 김선호 교수가 분석한 결과 사철(沙鐵)에서는 TiO₂가 0.918%가 나왔으며, 강괴(鋼塊)에서는 티탄(Ti)이 0.54%, 바나듐(V)이 0.17%, 지르코늄(Zr)이 0.05%가 나왔다.⁸⁾ 공주대 조남철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감포의 사철에서 TiO₂가 5.74%, 6.31%, V₂O₅가 1.7%, 2.34%가 나왔고, 옥강으로 나온 강괴에서는 TiO₂가 0.17%, 0.52%, 0.58%, 0.8%, 1.33%, V₂O₅가 0.44, 0.72%가 나왔으며, 완성된 대도(大刀)에서는 TiO₂가 3.05, 7.54, 26.36%, V₂O₅가 7.99, 50.72%가 나오고 있다.⁹⁾

칠지도(七支刀)가 사철(沙鐵)¹⁰⁾로 만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와있고, 서산과 태안지역을 장악하

5) 합천 야로리야철지 슬래크(slag)에서는 TiO₂가 5.0~10.5%가 나왔고, 부산 지사동야철지 슬래크는 TiO₂가 11.19%,¹⁾ 여수 봉산동야철지 슬래그에서는 TiO₂가 9.3%, V₂O₅가 0.39%, 연기 달전리 유적의 슬래크에서 TiO₂가 1.31%, V₂O₅가 0.17%, ZrO₂가 0.06% 등이 나오고 있고, 공주 계실리의 슬래크에서는 TiO₂가 1.52%, V₂O₅가 0.20%, ZrO₂가 2.03%가 나오고 있어 사철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철한 특징들이 잘 나타나고 있다.

6) 전철량(T-Fe)이 66.10%로 철의 양이 높은 富鑛에 속하는 것이다.(조현경, 「한반도 중서부지역 출토 2-6세기 철도의 제작기술」,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7) 『世宗實錄』卷150, 地理志, 慶尙道, 慶州府, 土産條에 “沙鐵이 부의 동쪽 感恩浦에서 난다. 鐵場이 있는데 세공이 正鐵 6533근이다.”라고 하였다. 正鐵이란 선철(銑鐵, 生鐵)로 철광석을 녹이는 용광로에서 나온 쇠를 말하며, 무쇠(鑄鐵, 水鐵)은 선철을 녹여 주조하는데 쓰이는 쇠로 탄소 함유량이 2.0~6.67%인 것을 말한다. 연철(鉛鐵, 緞鐵)은 철기시대 초기에 800℃이하에서 얻어졌던 무른 쇠로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 두드려 분쇄물을 제거해서 얻는 純鐵로 탄소 함유량이 0~0.025%이 아니라 鋼鐵(熟鐵)로 선철을 다시 녹여 1400℃ 정도에서 얻어지는 칼과 같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강인한 철로 탄소함유량이 0.025~2.0%이 된철을 말하는 것이다.

8) 한정욱 외, 『칼과 철』, 시몽, 2010.

9) Namchul Cho·Teacheon Rho·Hyunkyung Cho·Jeongwook Han, An Experimental Archaeological Study on Iron Sand Smelting in the Korean Peninsular, *ISIJ International* Vol.54 No.5, The Iron and Steel Institute of Japan, 2014, pp.1038-1043.

10) 고대 일본 동북지역의 철산지였던 秋田縣에서 행해진 사철을 이용한 다다라제철의 실험에서는 사철

여 다스렸던 서산 부장리 백제고분에서 나온 환두대도(環頭大刀)에서 Ti가 1.00%, 0.75%, 0.72%, 0.69%, 0.55%, 0.46% 등이 나왔고 철모(鐵鎗)에서는 0.76%가 나와 이것들이 모두 사철로 제작되었음¹¹⁾이 밝혀졌다.¹²⁾ 더구나 이 부근의 같은 서해안 지역인 서천(舒川) 봉선리(鳳仙里)유적의 대도에서도 Ti가 0.8%가 나와¹³⁾ 사철로 만들어졌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서산의 지곡면 도성리(挑星里) 쇠팽이 일대에서는 사철 및 산사철이 많이 산출되었다. 하지만 현재 서산지역의 해변의 모래밭에 그 많던 사철이 해변(海邊)들을 간척하면서 거의 다 사라져 버린 상황이다. 그러나 지곡일대의 서산향토문화연구회를 비롯한 뜻있는 주민 여러 분들의 노력으로 강가에서 사철을 채취하여 공주대 조남철 교수가 분석하였는데 TiO₂가 0.43, 0.54%가 함유되어 있음이 밝혀져 사철로 판명되었다.

5. 칠지도 제작지에 대한 검토

(1) 칠지도의 제작지인 서산시 지곡

① 제작지 곡나(谷那)의 위치 비정

『일본서기(日本書紀)』 신공 52년(AD 252) 9월 10일조에 “구저 등이 천웅장언을 따라왔다. 이때에 칠지도(七枝刀) 1자루와 칠자경(七子鏡) 1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귀중한 보물을 바쳤다. 그리고 ‘신국의 서쪽에 강이 있는데, 그 수원(水源)은 곡나철산(谷那鐵山)입니다. 너무 멀어서 7일 동안 가도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물(水)을 마시다가 문득 그 산(山)의 철(鐵)을 얻으니 영원토록 성조에 바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칠지도를 만든 철산지인 ‘곡나철산(谷那鐵山)’을 황해도 곡산(谷山)¹⁴⁾이나 전남 곡성(谷城)¹⁵⁾, 충북 충주(忠州)¹⁶⁾ 등으로 비정해왔는데 이곳은 서쪽으로 7일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곡산(谷山)은 7일 정도 걸리는 거리이긴 하지만 방향이 북(北)쪽이고 이미 언급하였듯이 고구려와 격전지였던 예성강(禮成江) 상류의 최전방 지역이다. 곡성(谷城)은 남(南)쪽으로 11일 정도 걸리는 거리로 거리와 방향이 맞지 않으며, 이곳을 흐르는 섬진강(蟾津江)은 백제와 가야와의 경계로 격전지가 되어 있다.

충주(忠州)지역은 동남(東南)쪽으로 4일 정도 걸리는 거리로 거리와 방향이 맞지 않는다. 더구나 신라와의 경계지역으로 매우 불안정한 지역이며 이곳에서 출토된 철기들은 사철이 아니라 철광석(鐵鑛石)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¹⁷⁾

그러므로 이들 모두가 곡나(谷那)로서의 가능성이 없다. 더구나 곡산·곡성에서는 사철 또는 철산지로 밝혀진 자료가 전혀없어서 그 가능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충주·곡산·곡성 지역들이 삼한시대에 소국(小國)이 존재하지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곡성의 경우는 바로 옆의 남원(南原)

에서 Ti가 6.0, 7.3%, Ca가 1.8, 0.4%, T·Fe가 53.7%였으며, 제철로에서 나온 철에서는 Ti가 0.006%이다. (小松芳成·後藤正治·麻生節夫, 「たたら製鉄法に基づく向浜砂鉄の製錬と鑄造—創造工房実習より得られた二三の知見—」, 『秋田大学工学資源学部研究報告』 第23号, 2002.10)

11) 서천 봉선리유적의 환두대도에서도 Ti가 0.8%가 나와 이것 또한 사철로 제작되었음이 밝혀졌다. (정영상, 「서천 봉선리 출토 철제대도의 금속학적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문화재보존과학과 석사논문, 2009.8)

12) 손은아, 「서산 부장리유적 백제분구묘 출토 철제유물의 금속학적 연구」, 공주대학교대학원 문화재보존과학과 석사논문, 2011.

13) 정영상, 앞 논문, 2009.8.

14) 鮎貝房之進·三品彰英·上田正昭를 비롯하여 대체로 谷山으로 비정하고 있으며, 이병도 박사는 그 부근의 安峽으로 보기도 한다.

15) 이도학, 「곡나철산과 백제」, 『동아시아고대학』 제 25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1.

16) 『충주 탄금대토성 2007년도 발굴조사보고』, 중원문화재연구소, 2009.

17)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중원문화재연구원, 2008.

지역에 고렵국(古獵國)이 존재하고 있어 그 가능성이 더욱 더 희박해져 버렸다.

더구나 『일본서기(日本書紀)』의 기록처럼 곡나철산이 백제 수도였던 하남시(河南市) 고골¹⁸⁾의 서쪽에 위치했고 7일거리에 있었다고 본다면 북쪽의 황해도 곡산(谷山)이나 남쪽의 전라남도 곡성(谷城)은 그 방향과 거리가 모두 맞지 않는다.

그러나 이곳 서산시(瑞山市) 지곡면(地谷面)의 쇠팅이(鐵洞,鐵山) 일대는 이곳의 향토사학자인 이은우 씨가 지적하듯이 백제의 서울 한성(漢城)에서 서쪽(西方)에 위치하고 있고 더구나 서울로부터 7일이 걸리는 거리¹⁹⁾로 그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곳의 물은 먹을 수 있을²⁰⁾ 뿐만 아니라 이 물에서 철을 채취²¹⁾하였다(當飲是水, 便取是山鐵)”²²⁾라는 것으로 강이나 해변의 모래 속에서 사철(沙鐵)²³⁾을 채취하여 칠지도를 제작하였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더구나 서산시 부장리고분에서는 백제시대의 금동관(金銅冠), 금동신발, 환두대도 등이 출토되어 필자는 그 주인공을 백제 담로(擔魯)로 보고 있는데, 그는 서산·태안 지역에서 산출되는 다량의 사철을 녹여 무기를 생산하여 중앙에 바쳤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특히 이 지역은 바닷길을 통해 중국과 일본으로 떠나는 해외진출의 요지였음을 상기해 볼 때 왜왕에게 하사한 칠지도(七支刀)가 이곳의 사철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시 한번 칠지도의 제작지였던 곡나철산의 조건들을 나열해 보자면

- a. 백제 수도에서 서(西)쪽에 있다.
- b. 백제 수도에서 7일(七日) 거리에 있다.
- c. 사철(沙鐵)이 나와야 한다.
- d. 사철이 나오는 곳에 식수(食水)로 쓸 수 있는 샘이 있다.
- e. 상감(象嵌)에 쓰이는 금(金)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세조실록(世祖實錄)』²⁴⁾과 『인조실록(仁祖實錄)』²⁵⁾에는 서산과 태안지역의 사철에 대

18) 오순제, 『한성백제의 도성체제연구』, 학연문화사, 2005.

19) 『지곡의 문화와 유적』, 지곡면지편찬위원회, 2008.

20) 곡나로 비정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슬랙이 남아있는 지곡면 도성리 마을회관의 쇠팅이야철지 부근에는 만동샘, 유지(溜池) 등으로 불리우던 맑은 물이 용솟음 치는 샘물이 있었는데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아 동네에서 음용수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더구나 고대로부터 최근까지 채굴하였던 瑞星鑛山이 있던 아남부리라고 불리우는 산이 이곳에서 200m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존재하고 있어, 이곳의 하천변·해변에서 나온 사철이나 이 광산에서 나온 산사철을 쇠팅이(鐵洞,鐵山)야철지에서 제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日本書紀』의 기록에 의하면 ‘물(水)에서 철(鐵)을 얻었다’고 표현하여 사철(沙鐵)을 채취하였음을 보여주면서도 그 바로 뒷부분에서는 ‘산철(山鐵)’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서 산사철(山砂鐵)일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이 두가지의 표현을 만족시키는 곳은 쇠팅이야철지 밖에 없으며 더구나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샘물까지 갖추고 있어, 기록에서 나타내고 있는 곡나의 지형적 특성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21) 칠지도기념사업회 이은우 회장의 전언에 의하면 쇠팅이에서 고개를 넘어가서 있는 지곡면 화천리(花川里)의 하천변의 모래에는 철가루가 섞여있는 사철이 있어서 본인 직접 자석을 대보았더니 철가루가 붙었다고 한다. 이 분의 도움으로 필자가 답사한 이 부근의 산수골야철지에는 지금도 슬랙이 흘러져 있었다. 이것은 瑞星鑛山이 있는 산줄기의 철광암맥이 풍화작용에 의해 물에 쓸려 내려와 하천변의 모래에 퇴적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채취하여 화천리 산수골야철지에서 제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22) 나라의 서쪽에 江이 있는데, 그 근원은 곡나 철산에서 나오고 있다. 그 먼 곳은 7일을 가도 이르지 못한다. 이 물은 마땅히 마실 수 있으며 곧 이것에서 山鐵을 채취할 수 있다.(國以西有水, 源出自谷那鐵山, 其邈七日行之不及, 當飲是水, 便取是山鐵 : 『日本書紀』, 卷9, 神功 52年(AD252년))

23) 이은우 회장과 주민들이 이곳에서 채취한 사철들은 지곡면의 산수골, 쇠팅이, 무쇠점 등 3곳이다.

24) 忠淸道觀察使啓,道令今年方農月久旱.禾稼不登,沿海諸邑,傷農尤甚.....諸邑軍士草案成籍,沙鐵採鍊等項

해 언급하고 있으며, 이와더불어 『태종실록(太宗實錄)』권34, 17년 11월 7일 무오(戊午)에 “충청도(忠淸道) 해미현 호장 김연(金鍊)이 서산군(瑞山郡) 임내 지곡현(地谷縣) 땅에 은돌(銀石)²⁶⁾이 있다고 고하니, 관가에서 사람을 보내어 파내어서 납 1근 8냥중을 녹였는데 정련한 백은(白銀)이 1전 3푼이었다. 또 다른 도(道)는 은돌이 있는 곳이 모두 암석 사이인데, 여기는 땅이 평평하고 나무가 무성하여 은(銀)을 단련하기에 제일 좋은 땅이었다.”²⁷⁾고 하였다.

더구나 이곳 서산시 지곡면 도성리에는 1960년대까지 금(Au)· 은(Ag)· 아연(Zn)· 연(Pb)· 철(Fe) 등이 섞인 광석을 채굴하였던 서성광산(瑞星鑛山)²⁸⁾이 있었던 곳으로, 그 지명인 ‘은부리’는 ‘은이 나오는 뒤편(銀邊)’라는 뜻이어서 칠지도의 상감(象嵌)에 쓰였던 금(金)²⁹⁾까지 생산되고 있어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서산시 지곡일대가 칠지도의 제작지인 곡나철산이었던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또한 ‘곡나(谷那)’라는 지명을 살펴보면 ‘곡(谷)’은 ‘골짜기’이고 ‘나(那)’는 ‘별판’으로 ‘야산’ 사이에 전개되어있는 ‘별판’을 의미하게 된다. 여기에서 ‘나(那)’는 백제 온조왕의 출발지였던 고구려 초기 수도였던 졸본(卒本)지역을 연상해보는다면, 이 지역은 연나(椽那)· 관나(貫那)· 환나(桓那)· 조나(藻那)· 주나(朱那)· 비류나(沸流那) 등의 소국(小國)들이 성장하였던 골짜기 사이에 자리잡은 별판을 의미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서산시 지곡면의 대산반도(大山半島) 지역은 고대인들이 생활하기에 자연적으로 적합한 곳으로 신석기시대로부터 철기시대까지 연속적으로 살아왔는데³⁰⁾ 그 중에서도 지곡(地谷)에는 삼한시대(三韓時代) 마한(馬韓)에 속했던 치리국(致利鞠國)이 있었다고 한다.³¹⁾ 이러한 치리국이라는 국명에서 ‘리국(利鞠)’을 반절(反切)로 표기하면 ‘륙’이 됨으로 ‘치리국(致利鞠)’은 ‘치륙=지륙=知六’이 된다. 즉 지곡면 일대에 치리국이라는 마한의 소국이 백제에게 점령당한 이후에 백제(百濟)의 지육현(知六縣)³²⁾이 되었고 신라(新羅) 시대에는 지육현(地育縣)으로 고려(高麗) 시대에는 지곡현(地谷縣)이 되었다³³⁾고 한다.

더구나 지곡(地谷)이라는 지명에도 곡(谷)³⁴⁾자가 붙어있고, 지곡면의 부성산성은 ‘터산(吐美

事,竝限來年秋成停罷(『世祖實錄』,卷2, 1年 8月 乙酉)

25) 漢城判尹閔賢男上筭曰,軍餉之措辦,自古多賴於鹽、鐵,而瑞山、泰安,乃鹽、鐵之利窟也,只緣鹽戶酷被侵虐,逃散殆盡.若廣募鹽戶,一月之中,二十日所煮入官,而十日所煮,許令自取,則爭相應募,不患無居人也.安眠申諸處松木之外,雜樹茂盛,以此充其煮取之用,則不患無燒木也.兩邑濱海,皆是鐵沙,募得冶匠,如鹽戶之爲,而以一年所得鹽、鐵,貿換米穀,則不下數萬石矣.(『仁祖實錄』卷36, 16年 1月 17日 辛巳)

26) 금, 은 등은 구리, 납, 아연, 철 등과 같이 黃鐵鑛 또는 非金屬黃化鑛으로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27) 免忠淸道海美縣戶長金鍊役.鍊告瑞山郡任內地谷縣之地有銀石,官家遣人掘取,以鍊鉛一斤八兩,所鍊白銀一錢三分.且他道銀石所在處,皆巖石間,而此則地平木茂,爲鍊銀第一之地.工曹啓,願令金鍊依教免役,以勸後人.從之.

28) 봉오산업이 瑞星鑛山(金,銀鑛)을 매입하였다.<광업계 대형화 추세>, 《매일경제》, 1977.2.22)

29) 承政院奉旨馳書于京畿、忠淸、全羅、慶尙道觀察使曰,近者遣人採金於近地,產金之水,無處無之,而曰不得採者,人力有未至耳,卿其善爲布置,令道內諸邑限役十日,各自採金,務要多得.或恐成後例,掩有爲無者有之.然此特試其產之多少.非據此定貢,卿并諭此意於民.(『世祖實錄』卷3, 10年, 7月 26日 丁丑)

30) 안승주, 「서산 대산반도 고대문화의 성격에 관한 소고」, 『백제문화』 3호,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969.

31)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p.265.

32) 평이현(平夷縣)은 본시 지류(知留)인데 백제지에는 지륙(志六)으로 되어 있다.(『東史綱目』附錄 下卷, 熊津都督府考)

33) 『新增東國輿地勝覽』第19卷, 忠淸道, 瑞山郡, 古跡條

34) ‘知六=地育=地谷’으로 변천되는 과정에서 ‘知=地’로 되었고 ‘六=育=谷’으로 변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地谷이란 ‘사람이 살만한 땅(터,밭,들판)을 가지고 있는 골짜기’로 谷那가 앞뒤로 바뀐 ‘那谷

山,其山)’으로도 불리워서 ‘터(基)’란 ‘땅(地)’을 의미하는 ‘나(那)’³⁵⁾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러한 의미들을 합하면 ‘곡지(谷地)’가 되며 이 글자가 앞뒤가 뒤바뀌면서 ‘지곡(地谷)’이 되고 있다. 즉 ‘곡나(谷那)=곡지(谷地)’라는 지명은 ‘산(山)의 골짜기(谷) 사이에 전개되어있는 별판(那,地)’을 의미하고 있는데, 현재 곡나철산(谷那鐵山)으로 비정되고 있는 서산시 지곡면 도성리(道成里) 쇠팽이(鐵洞=鐵山) 일대는 지곡면 중에서도 가장 서북단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높이 70m 이하의 낮은 구릉성 산지가 가로림만(加露林灣)과 맞닿아 있는데 이 구릉성 산지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별판에 마을들이 펼쳐져 있어 그 풍광이 곡나(谷那)라는 의미와 일치하고 있다.

이곳은 실제로 마한시대 54개국의 하나인 치리국(致利鞠國)의 왕도(王都)였고 백제시대 당시의 치소였던 부성산성(富城山城) 정상에 올라 바라보면 북으로 대산반도(大山半島) 전체의 ‘산 사이에 전개되어있는 별판(谷那)’들이 드넓게 조망되고 있어 그 지명의 의미를 유감없이 잘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곡나(谷那)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더 깊이 연구해 정리해보면

- a. 백제 수도인 한성(漢城)에서 서(西)쪽으로 7일 정도 걸리는 거리여야 한다.
- b. 사철(沙鐵)이 나오는 지역여야 한다.³⁶⁾
- c. 숲을 만드는 소나무, 참나무³⁷⁾가 많은 산들이 있어야 한다.
- d. 고대에 ‘나(那)’에 해당하는 소국(小國)이 존재했어야 한다.
- e. 백제(百濟)시대에도 중요한 지역으로 치소(治所)가 있어야 한다.
- f. ‘곡나(谷那)’라는 지명에 걸 맞는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곡산, 곡성, 지곡, 충주 지역들 중에서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곳은 오로지 서산시 지곡 밖에 없는 것이다.

②지곡을 중심으로 한 서산 지역의 백제유적 분포

이곳 대산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부성산성(富城山城)은 둘레 590m로 서북쪽으로 가로림만(加露林灣)이 자리잡고 있고 동북쪽으로는 내륙 깊숙이 바닷물이 들어와 좌우로 바다를 끼고 있는데 이곳에서 바다 전체를 조망하고 감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³⁸⁾이다. 산성 바로 아래

(별판을 가진 골짜기)’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35) ‘那’는 고구려 5부인 소노부(消奴部)·절노부(絶奴部)·순노부(順奴部)·관노부(灌奴部) 등에서 보이는 ‘奴’와 같은 것으로 ‘들·별판’ 등을 나타내는 ‘壤·原·野’와 통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36) 사철의 생산지는 주로 개울가나 바다가 아니면 곳(串)이었다.(『조선전사』 8권, 과학백과출판사, 1979, 254쪽)

37) 한정옥 관장의 사철제련 실험에 의하면 참나무숯 보다 소나무숯이 더 높은 열을 내며 심지어 1800°C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단 한번의 과정으로 강괴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것은 소나무숯에 붙어있는 관솔들이 터지면서 불길을 더욱 높여주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불꽃이 푸른색에서 투명한 백색으로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조현경의 분석결과 서산 부장리유적 10호분 1호 토광묘에서 나온 소환두대도의 조업온도는 1400-1698°C, 4호분 7호 토광묘의 은상감소환두대도는 조업온도가 1550-1600°C, 5호분 1호 토광묘 삼엽환두대도의 조업온도는 1150-1700°C, 12호분 1호 토광묘의 삼엽환두대도는 조업온도가 1105-1600°C, 2호분 7호 토광묘 대도의 조업온도는 1400-1698°C 등이고, 금산 수당리유적 12호 석곽묘 대도의 조업온도는 1600-1700°C, 천안 용원리유적 130호 토광묘 환두대도의 조업온도는 1105-1600°C, 공주 수촌리 2지점 3호 석곽묘 대도의 조업온도는 1707°C, 서천봉선리유적 2지역 1호 석곽묘 삼엽환두대도의 조업온도는 1150-1700°C, 2지역 9호 석곽묘 대도의 조업온도는 1223-1777°C, 2지역 16호분 석곽묘 대도의 조업온도는 1200-1600°C 등이며, 아산 명암리 박지르레유적 2-2 지점 9호 토광묘 환두대도의 조업온도는 1193-1600°C, 3지점 1호 토광묘의 환두대도의 조업온도는 1100-1600°C 등으로 앞의 복원실험에서 얻은 1800°C까지 육박하고 있다. (조현경, 앞논문,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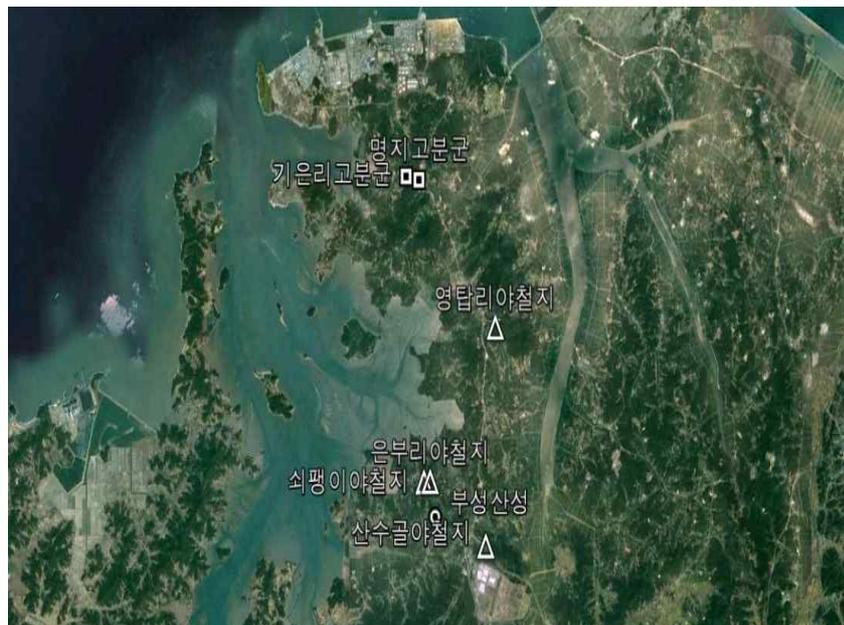
‘닷개(碇浦)’까지 바닷물이 들어와서 중국과의 당(唐)나라와의 교역의 중심역할을³⁸⁾ 하였다고 하는데, 최근 까지도 중국 상선들이 비단과 호염(胡鹽)을 싣고 들어왔으나 1970년대 간척이 되면서 매립⁴⁰⁾되고 말았다.

부성산성(富城山城)에서는 백제시대의 삼족토기(三足土器)와 백제 기와편, 신라시대의 인화문토기 등이 나오고 있어 이러한 사실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리고 부성산성 바로 북쪽 도성리에 ‘선배말’과 산성1리 부성산 동편에 ‘대궐재(大闕峙)’라는 지명이 남아있어 이곳에 큰 마을이 있었고 배들이 드나들었던 번성한 곳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고, 부성산성이 백제시대에 지육현(知六縣)의 치소로 중국으로 떠났던 출발지로 지목되고 있다.⁴¹⁾

더구나 한성백제시기의 3~4세기에는 소환두대도(素環頭大刀)가 나오는 대산을 대로리의 명지고분(明智古墳)과 해미면 기지리고분(機池里古墳)⁴²⁾이 음암면 부



[그림 5] 부성산성에서 본 지곡일대 ‘산 골짜기 사이의 별판(谷那)’의 전경



[그림 6] 서산 대산반도 지역의 백제시대 유적과 야철지(구글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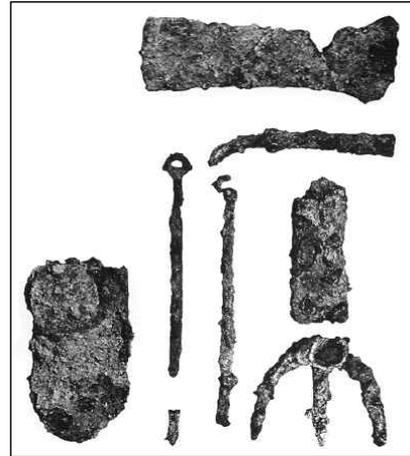
38) 서정석, 「서산지역의 산성과 부성산성」, 『백제문화』 Vol 33,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4.
 39) 최치원이 당에 유학하고 돌아올 때 배를 정박하였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김기혁 외, 『한국지명유래집 총정편』, 국토지리원, 2012)
 40) 『지곡의 문화와 유적』, 지곡면지편찬위원회, 2008.6..
 41) 서정석, 앞글, 2004.
 42) 이남석 외, 「서산 해미 기지리분구묘」, 『분구묘 분구식의 신자료와 백제』, 한국고고학회, 2006.

장리고분 보다는 더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5세기에 들어와서는 금동관모, 금동신발, 은상감환두대도, 철제초두 등이 출토된 부장리고분(副長里古墳)의 주인공이 서산과 태안지역에서 조사된 최고의 위상을 가지는 이 지역의 맹주(盟主)로서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⁴³⁾

이것은 3-4세기 당시에는 명지고분 쪽에서 나오는 지곡의 사철과 기지리고분(機池里古墳)⁴⁴⁾ 쪽에서 나오는 해미쪽의 사철을 남쪽과 북쪽이 따로 관장⁴⁵⁾하고 있었다. 그러나 5세기가 되면서 중앙정부에서 통합하여 부장리고분의 주인공이 서산, 태안지역의 사철(沙鐵)⁴⁶⁾ 뿐



[그림 7] 지곡면 무장리에서 발굴된 백제시대의 탄요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발굴)



[그림 8] 명지고분에서 출토된
철기(앞책, 대산읍지 발굴
편찬위원회, 2012)

만 아니라 소금(鹽)⁴⁷⁾ 등을 장악하여 통제하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시기가 바로 백제가 고구려를 제압한 최정점의 극성기였던 근초고왕 때이다.

특히 칠지도가 제작되었던 대산반도의 서산시 지곡면 지역에는 3~4세기에 명지고분⁴⁸⁾의

43) 이경복, 「백제의 태안반도 진출과 서산 부장리 세력」, 『한국 고대사 탐구』 3, 2009.

44) 『世宗實錄』 卷149, 地理志, 忠清道, 瑞山郡條에 “군의 서쪽인 都飛山 남쪽에는 鐵場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서산시 인지면의 도비산 부근에는 송시리아철지가 남아있다. 이 산의 동쪽에 백제시대의 기지리고분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 고분의 남쪽에는 백제시대의 신송리산성 자리잡고 있으며 이 부근에는 신송리야철지, 초록리야철지, 대곡리야철지 등이 자리잡고 있다.

45) 명지고분과 기지리고분에서는 철제의 素環頭大刀와 더불어 鐵鋌이 나오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46) 한성 판윤 민형남이 상차하기를 “군량을 조치해 마련하는 데에는 예로부터 대부분 소금과 철(鐵)에 의지해 왔습니다. 서산(瑞山)과 태안(泰安)은 바로 소금과 철(鐵)이 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다만 염호가 심한 침탈을 받기 때문에 도망쳐 흩어져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만약 널리 염호를 모집하여 한 달에 20일간 구운 소금은 관아에 바치게 하고 10일 동안 구운 것은 본인이 가지도록 허락한다면 다투어 서로 응모해 사람이 없을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안면곶(安眠串)의 여러 곳에는 소나무 외에도 잡목이 무성하니 이것을 가지고 소금을 굽는 데 쓴다면 땀나무에 관한 근심은 없을 것입니다. 이 두 읍의 바닷가는 모두 철(鐵)이 들어 있는 모래밭이니, 야장(冶匠)을 모집하여 염호들처럼 하고, 1년 동안 얻는 소금과 철을 가지고 미곡을 사들인다면 몇 만 석은 밀돌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仁祖實錄』 卷36, 16年 1月 17日 辛巳)

47) 『世宗實錄』 卷149, 地理志, 忠清道, 瑞山郡編에는 “鹽所가 1곳이요, 鹽井이 2곳이요, 鹽盆이 3곳이다.”라고 하였고, 泰安郡編에는 “鹽盆이 11곳이며, 鹽井이 16곳이다.”라고 하였다.

48) 대산반도 지역의 대산읍 명지고분은 1969년 모두 18기의 움무덤(土壙墓)가 확인되었는데 약 15기가 1군을 이루고 있고, 명지마을을 지나서 좌측 경사면에도 3기 정도가 확인되었다. 이 중 제1군에서 2기, 제2군에서 1기 등 모두 3기가 발굴 조사되었다.(김영배·한병삼, 앞글, 1969)

주인공이 부성산성을 중심으로 지곡일대의 사철을 관장하고 다스렸던 것으로 이 시기에 칠지도가 제작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칠지도가 사철에서 얻은 철로 주조한 후 단조를 거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이 고분에서 나오고 있는 쇠도끼, 철정(鐵挺, Ingot) 등은 주조품이며 쇠스랑, 쇠낫⁴⁹⁾ 등은 칠지도와 같이 주조 후 단조를 거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환두대도(環頭大刀)는 강철로 만들어져 그 당시 백제의 제철 수준이 매우 높았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역이 중요한 철산지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은 길이 13cm, 양끝의 폭이 13cm, 가운데 폭이 9cm의 철정(鐵挺)으로 이것은 칼, 도끼, 창 등의 무기뿐만 아니라 낫, 쇠시랑, 호미 등의 농기구 등 모든 철기를 제작할 수 있는 중간매개체가 되는 중요한 것이다. 『일본서기(日本書紀)』 신공(神功) 46년(AD 246) 3월조에 “백제왕은 왜에서 온 사신에게 철정 40매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림 9] 중국 야철집단인 탁씨(卓氏)와 백제시대 탁소(卓素)의 이동 경로

이것은 이당시 철광석, 사철 등의 제철(製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3-4세기의 한성백제시기에 이곳 서산시 지곡에서 제작된 칠지도(七支刀)와 함께 명지고분에서 출토된 철정(鐵挺)은 백제가 만들어 일본에 전해준 사실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왜냐하면 이곳 지곡면 무장리 부장동에는 “철장골”이라는 지명이 남아있으며 그곳에 야철지가 있다.⁵⁰⁾ 그런데 2000년에 공단조성으로 인하여 무장리아철지를 발굴 조사한 결과 이곳에

이곳에서는 백제시대의 철정(鐵挺)을 비롯하여 철제환두대도(鐵製環頭大刀), 쇠낫(鐵鎌), 쇠도끼(鐵斧), 쇠스랑(鐵鍬), 토기(土器) 등이 출토되었는데 대부분이 철기유물로 이지역의 야철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 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은 길이 13cm, 양끝의 폭이 13cm, 가운데 폭이 9cm의 철정(鐵挺: ingot)으로 이것은 칼, 도끼, 창, 낫, 쇠시랑, 호미 등 모든 철기를 제작할 수 있는 모체(母體)가 될뿐만 아니라 규격화되어 있어서 유통과정에서 화폐로서의 역할도 담당하였던 것이다. 즉 이 지역이 철을 매개로 다른 지역과 교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철광석, 사철 등의 야철(冶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3-4세기의 한성백제시기에 이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야철지들에서 이러한 작업들이 행하여졌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2기의 고분에서 환두대도(環頭大刀)가 나온 것은 그들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다스렸던 강력한 수장(首長)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9) 쇠스랑과 쇠낫은 일본 오오사카(大阪)의 자금산고분(紫金山古墳)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계통으로 밝혀지고 있다. (양책, 대산읍지 발간편찬위원회, 2012) 그런데 자금산고분은 고분시대 전기인 4세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곳에서는 갑옷(短甲) 1령(領), 쇠칼(鐵刀), 쇠검(鐵劍), 쇠단도(鐵短刀), 쇠화살촉(鐵鏃), 쇠도끼(鐵斧), 쇠창(鐵鉤), 쇠톱(鐵鋸), 쇠끌(鐵鑿), 쇠새기개(鐵鉋), 쇠송곳(鐵錐), 쇠낫(鐵鎌), 쇠스랑(鐵鍬) 등의 여러 종류의 철기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일본에서 야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6세기부터이므로 이것들은 한반도의 백제지역인 이곳 지곡일대에서 만들어져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50) 이은우, 『서산 지명사』, 서산시, 2005.

서 백제시대의 제련로의 야철에 쓰는 숯을 생산했던 백제시대(百濟時代)의 ‘탄요(炭窯)’가 발굴됨으로써⁵¹⁾ 이곳에 있었던 제철유적들이 백제시대의 것이었음을 증명⁵²⁾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부근의 명지고분에서 출토되고 있는 환두대도(環頭大刀)는 그 주인공이 백제시기가 지역을 장악하고 다스렸던 강력한 수장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곡면지(地谷面誌)』⁵³⁾에 무장리의 ‘두모곡’은 진시황 시기에 만리장성의 노역을 피해서 피해온 연인(燕人)들이 바다를 건너와 최초로 정착하여 살았던 곳으로 그들은 자기가 살던 곳을 따라 탁수(涿水)라고 하되 중국음 그대로 “탁(tak)”이라고 하지않고 ‘도(道)’ 또는 ‘두(豆)’로 발음 했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사기(史記)』 화식열전(貨殖列傳)⁵⁴⁾에는 진시황 당시의 조(趙)나라의 유명한 야철기술자로 BC228년에 조(趙)나라가 진시황에게 멸망당하자 촉(蜀)으로 달아나 임공(臨邛)에서 철산(鐵山)에 가서 풀무질하고 주조하여 야철로 부자가 된 탁씨(卓氏)⁵⁵⁾가 나오며, 그와 함께 산동출신 야철장인 정정(程鄭)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고사기(古事記)』에는 백제가 일본을 정복한 후 최초로 세운 응신(應神)천황 때인 285년(고이왕 52년)에 백제(百濟)에서 왕인박사와 함께 ‘탁소(卓素)’라는 야철장(韓鍛)을 보내준 기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기록들과 지곡면 무장리야철지가 있었던 “철장골” 부근의 “탁”이라는 명칭은 진시황 시기에 “탁씨(卓氏)” 집단의 일파가 산동(山東)⁵⁶⁾에서 배를 타고 서산의 무장리⁵⁷⁾로 건너와 백제시기까지도 야철집단으로서 백제의 중앙관청 중에서 도부(刀部)⁵⁸⁾에 예속되어 칼, 창 등의 무기를 생산하는 중요한 지위를 점유⁵⁹⁾하고 있다가 고이왕의 명을 받들어 “탁소(卓素)”라는 자가 일본에 야철기술을 전해주려 갔던 것으로 그 당시 일본에서는 자기들은 알지 못하는 “한국에서 건너온 철을 다루는 기술자”라고 하여 “한단(韓鍛)”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그가 가져간 기술은 칠지도(七支刀) 뿐만 아니라 철정(鐵錠)을 제작하여 고이왕에게 받쳐 일본의 응신천황에게 하사하게 하였던 것처럼 사철을 제련하여 백련검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강철⁶⁰⁾을 만드는 기술자였던 것이다.

51) 『서산 무장리 요지 발굴보고서』,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0.

52) 이곳에서는 백제시대의 황갈색연질토기편과 함께 당나라 고조 무덕 4년(AD 621년)의 開元通寶가 출토되었다.(앞책,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0)

53) 『지곡면지』, 지곡면, 2008. pp.296-287.

54) 『史記』, 卷129, 貨殖列傳, 第69.

55) 전한시대의 유명한 문학가인 司馬相如(BC179~BC117)는 사천성 성도 사람으로 임공(臨邛)의 최고 갑부였던 탁왕손(卓王孫)의 딸로 과부가 된 탁문군(卓文君)과 달아나 살았다고 하였는데, 탁왕손이 바로 야철로 갑부가 된 탁씨의 후예인 것이다.(『史記』, 列傳, 卷117, 司馬相如列傳, 第57)

56) 현재에도 山東省 滕州市 西崗鎮 卓樓村에 卓氏가 집성촌을 이루며 2000명이 남아있다. 이들은 趙나라의 수도였던 邯鄲과 가까운 거리에 자리잡고 있다.

57) 무장리분청사기요지 발굴과정에서 요지와는 관련이 없는 교란층에서 황갈색연질토기편과 함께 唐 高祖 武德 4년(AD 621)의 開元通寶가 출토되었다. 이것은 백제당시 산동지역에서 이곳으로 배를 타고 들어와 교류하였음을 증명해주고 있다.(『서산 무장리 요지 발굴보고서』,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0)

58) 『北史』 卷94 「列傳」 百濟條; 『周書』 卷49 「異域列傳」 百濟條.

59) 현재 광산(光山) 탁씨(卓氏) 족보에 따르면 그들의 선계(先系)는 중국인으로 후한(後漢) 광무제(BC6~57) 때 포덕후(布德侯)에 봉해진 탁무(卓茂)라는 인물이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이 이주한 시기를 백제시대나 그 이전의 마한까지 소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구나 도루코 면도날을 생산하는 회사를 창립한 사람 또한 탁시근(卓時瑾) 씨로 현대까지도 탁씨가 철과 관련된 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기이한 인연이다.

60) 철이란 탄소의 양에 따라 純鐵은 0.025%까지, 강은 0.02%~2.0%까지, 주철은 2.0%~6.67%까지를 말한다. 그리고 鑄鐵은 1130°C면 얻을 수 있지만, 鋼鐵은 적어도 1500°C정도 이상 되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다. 특히 주철은 脆性이 커서 잘깨지기 쉬우므로 검은쇠의

③서산지역의 백제 담로(檐魯)와 철(鐵), 염(鹽)의 장악

서산 부장리 고분(副長里古墳)은 서산시 음양면 부장리 219-2번지에 있는 유적으로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31기와 수혈유구 6기, 백제시대의 주거지 40기와 분구묘(墳丘墓) 13기, 조선시대의 토광묘(土壙墓) 등 모두 260여 기의 유구(遺構)가 발굴되었다.



[그림 10] 부장리고분군의 발굴 전경(충남역사문화연구원)

그중에서 백제시대 분구묘는 모두 한 변이 20~40m 정도 되는 사각의 주구를 갖추고 있

다. 매장주체시설은 모두 토광묘(土壙墓)로 목곽을 사용한 것과 목곽 없이 목관(木棺)을 사용한 것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분구묘(墳丘墓)는 하나의 분구 내에 매장주체부가 1개인 것도 있지만 10여 기가 확인된 것도 있다.



[그림 11] 부장리의 백제 금동관

출토유물로는 토기류와 철기류, 장신구류가 있다. 토기류는 광구호 등 다양한 형태의 토기가 있고 철기류로는 청동검(靑銅劍)·환두대도(環頭大刀)·초두(鏃頭)·도끼·낫·철모가 있으며, 장신구류는 백제의 금동관(金銅冠)·금제이식(金製耳飾)·곡옥(曲玉) 등 모두 500여 점의 화려한 출토유물들이 있다.⁶¹⁾

백제가 방(方)→군(郡)→현(縣)→촌(村)으로 구성되어있었던 지방제도와는 달리 국내의 중요 거점지역에 중앙과 직결되어있는 민을 만한 왕족(王族)들로서 담로(檐魯)를 임명하였던⁶²⁾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제도였다. 그 증거가 백제 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금동관(金銅冠)들이다. 지금까지 백제지역에서 금동관(金銅冠)과 금동신발이 나오는 곳은 공주 수촌리고분, 익산 응포 입점리고분, 나주 반남고분, 고흥 안동고분, 서산 부장리고분, 천안 용원리고분 등이 있으며⁶³⁾ 최근에 화성 요리고분에서도 금동관이 나왔다.⁶⁴⁾ 금동관은 나오지 않았지만 금동신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強韌한 성질의 강철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국력과 직결될 수밖에 없었다.

61) 「서산 부장리유적 현장 설명회 자료」,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4.12.

62) 『南齊書』百濟傳에 보면 面中王이었던 餘古가 阿錯王에 임명되었고, 餘歷은 邁盧王, 餘固는 弗斯候에 임명되었는데 “餘氏”는 원래 왕족인 “扶餘氏”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黑齒常之 墓誌銘》에도 “黑齒氏는 원래 왕족인 扶餘氏였다가 黑齒라는 지역에 分封되었기 때문에 흑치를 氏로 삼았다”고 적고 있어 이들 또한 해외에 임명된 담로였음을 알 수 있다.

63) 『백제의 관』, 국립공주박물관, 2011.

64) 한국문화유산연구원은 2014년 5월 택지개발지구인 화성시 향남읍 요리 산 13-4번지 일대 향남2지

발이 나와 여기에 버금가는 곳으로는 원주 법천리고분, 고창 봉덕리고분, 나주 복암리고분 등이 있다.

이중에서 원주 법천리고분은 남한강(南漢江)의 물길을 통제하였던 곳이고, 공주 수촌리고분은 부수도(副首都)의 역할을 하였던 곳이며, 익산의 입점리 고분은 금강(錦江)의 물길을 통제하였던 곳이고, 나주 복암리고분은 영산강(榮山江) 물길을 통제하였던 곳이다. 고흥의 안동고분은 일본(日本)으로 떠나던 수군의 발진 기지였으며, 고창 봉덕리 고분은 호남의 드넓은 곡창(穀倉)지대를 장악하였던 담로(擔魯)의 무덤이었던 것이다.

이들 담로 중에서 서산의 부장리고분은 중국(中國)으로 떠났던 수군의 발진 기지로서의 성격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 지역에 많이 산출되었던 사철(沙鐵)뿐만 아니라 소



[그림 12] 백제의 금동관이 출토된 국내지역의 담로
(국립공주박물관, 『百濟의 冠』, 2011)

구 동서간선도로(H지점) 예정지에서 확인한 4-5세기의 삼국시대 목곽묘(木槨墓·덧널무덤)를 조사하여 그 내부에서 금동관모를 수습하였는데 그것은 '∩' 모양이며 중앙에 기다란 봉을 리벳으로 연결해 세운 후 그 끝에 수발 장식을 얹었다. 그 바깥에는 삼엽초화문(三葉草花文)이라는 무늬를 뚫어 표현했으며, 테두리인 대륜부(帶輪部) 안쪽에는 자작나무 껍질인 백화수피(白樺樹皮)를 덧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금동신발, 금귀걸이, 환두대도, 화살통 등도 확인되었다. 그 당시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위세품(威勢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성 지역 일대가 한성백제의 지방 주요 거점지역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금(鹽)⁶⁵을 중앙에서 직접 통제하고 채기기 위해 설치된 특수한 성격의 담로(擔魯)였던 것이다.

④서산 일원 백제시대 칼의 티탄(Ti) 함량분석

백제시대에 출토된 칼 중에서 공주대학교 조현경이 분석하여 티탄(Ti)이 검출되어 사철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산 명암리 박지르레유적에서 나온 것 중에 4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환두대도에서는 TiO₂가 3.29%, 1.74%, 0.80%, 0.55%, 0.45%가 나왔다. 7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환두대도에서는 TiO₂가 1.11%, 1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환두대도는 TiO₂가 0.97%, 0.73%, 0.77%, 0.80%, 0.82%가 나왔다. 6호 토광묘에서 나온 환두대도는 TiO₂가 1.24%, 1.15%가 나왔다. 9호 토광묘에서 나온 환두대도에서는 TiO₂가 1.17%, 1.34%, 0.69%, 0.54%가 나왔다. 11호 토광묘에서 나온 환두대도에서는 TiO₂가 0.95%, 0.45%가 나왔다.

천안 용원리유적의 토광묘에서 출토된 환두대도에서는 TiO₂가 1.19%, 0.86%, 0.49%가 나왔다.

공주 수촌리유적 1호 토광묘에서 나온 쌍룡문은상감환두대도에서는 TiO₂가 0.78%, 0.68%, 0.58%, 0.47%, 0.42%, 0.40%, 0.32%가 나왔으며, 3호 석곽묘에서 출토된 대도에서는 TiO₂가 1.32%, 0.98%, 0.49%, 0.44%, 0.42%가 나왔다.

금산 수당리유적의 12호 석곽묘에서 나온 대도에서는 TiO₂가 1.66%, 1.39%, 1.13%, 0.93%, 0.87%, 0.85%가 나왔다.

연기 장재리유적의 12호 토광묘에서 나온 대도에서는 TiO₂가 0.97%, 0.38%가 나왔다.

서산 부장리유적 7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은상감환두대도에서는 TiO₂가 4.94%가 나왔으며, 1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삼엽환두대도에서는 TiO₂가 1.17%, 0.92%, 0.86%, 0.73%, 0.63%, 0.55%, 0.48%가 나왔다. 2호분 7호 토광묘에서 나온 대도에서는 TiO₂가 0.96%, 0.91%, 0.86%, 0.82%, 0.80%, 0.64%가 나왔으며, 4호분 5호 토광묘에서 나온 대도에서는 TiO₂가 0.85%, 0.53%가 나왔다. 1호 토광묘에서 나온 소환두대도에서는 TiO₂가 1.40%, 1.09%, 0.89%, 0.78%, 0.75%, 0.69%가 나왔다.

서천 봉선리유적 9호 석곽묘에서 나온 대도에서는 TiO₂가 0.99%가 나왔다. 16호 석곽묘에서 나온 도에서는 TiO₂가 0.91%, 0.81%, 0.44%가 나왔으며, 10호 석곽묘에서 나온 대도에서는 TiO₂가 0.85%, 0.65%, 0.54%가 나왔다.

조현경은 백제시대에 이미 2~3세기 무렵 한반도 중서부 지역에서는 침탄, 담금질 등의 열처리 기술이 보편화된 것으로 파악하였다.⁶⁶

⑤서산지역의 사철(沙鐵) 산지

서산지역은 부장리고분(富長里古墳)⁶⁷을 중심으로 대로리 명지고분, 예천리고분, 기은리고

65) 『世宗實錄』 卷149, 地理志, 忠淸道, 瑞山郡에는 “鹽所가 1곳이요, 鹽井이 2곳이요, 鹽盆이 3곳이다.”라고 하였고, 현재 서산에 속한 海美郡에는 “鹽盆이 3곳”이며, 泰安郡에는 “鹽盆이 11곳이며, 鹽井이 16곳이다.”라고 하였다.

66) 조현경, 「한반도 중서부지역 출토 2-6세기 철도의 제작기술」,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2.

67) 부장리 10호분 1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환두대도에서는 TiO₂가 0.49-1.19%가 나왔고, 4호분 7호 토광묘에서 나온 은상감소환두대도는 TiO₂가 0.44-1.17%가 나왔으며, 2호분 7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대도에서는 TiO₂가 0.64-0.96%, 4호분 5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대도는 TiO₂가 0.53-0.85%가 나왔다.(조현경, 앞논문, 2015)

분, 기지리고분, 언암리고분 등의 백제고분들이 분포되어있고 부성산성, 전라산성, 상왕산성, 신송리산성 등의 백제산성 등이 분포되어있다.

『서산시문화유적분포지도』⁶⁸⁾에 언급된 서산시의 야철지는 총 13곳으로 서산시 인지면 남정리 공수골 야철지, 인지면 남정리 샘골 야철지, 부석면 송시리 불무골야철지, 지곡면 도성리 쇠팽이 야철지, 지곡면 도성리 은부리아철지, 지곡면 화천리 1구 산수골 야철지, 대신읍 영탑리 냉탑리아철지, 음암면 문양리 장수골야철지, 운산면 고산리 두산야철지, 운산면 수평리 점골야철지, 해미면 대곡리 야철지, 고북면 신송리 탑동야철지, 고북면 초록리 점촌야철지 등으로 많은 야철지 등으로 충남지역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다.

조선조 세종 당시에는 서산과 태안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서산군의 도비산(都飛山) 남쪽에 철장(鐵場)이 설치되어⁶⁹⁾ 있었다고 하며 서산지역에는 일제시대에도 대규모의 철광산⁷⁰⁾이 있었다. 특히 세조 때에는 충청도 관찰사가 연해지역의 마을을 동원한 사철(沙鐵)의 채련(採鍊) 등의 일은 아울러 내년 가을 추수까지 하지 말기를 주정하였던 것이다.⁷¹⁾

이중에서도 지곡면의 대신반도(大山半島) 지역은 백제시대의 부성산성을 중심으로 쇠팽이야철지, 은부리아철지, 산수골야철지, 영탑리아철지 등과 명지고분⁷²⁾, 기은리고분⁷³⁾ 등의 백제고

68) 충남발전연구원, 『서산시 문화유적분포지도』, 서산시청, 1998.

69) 『世宗實錄』, 卷149, 地理志, 忠淸道 洪州牧 瑞山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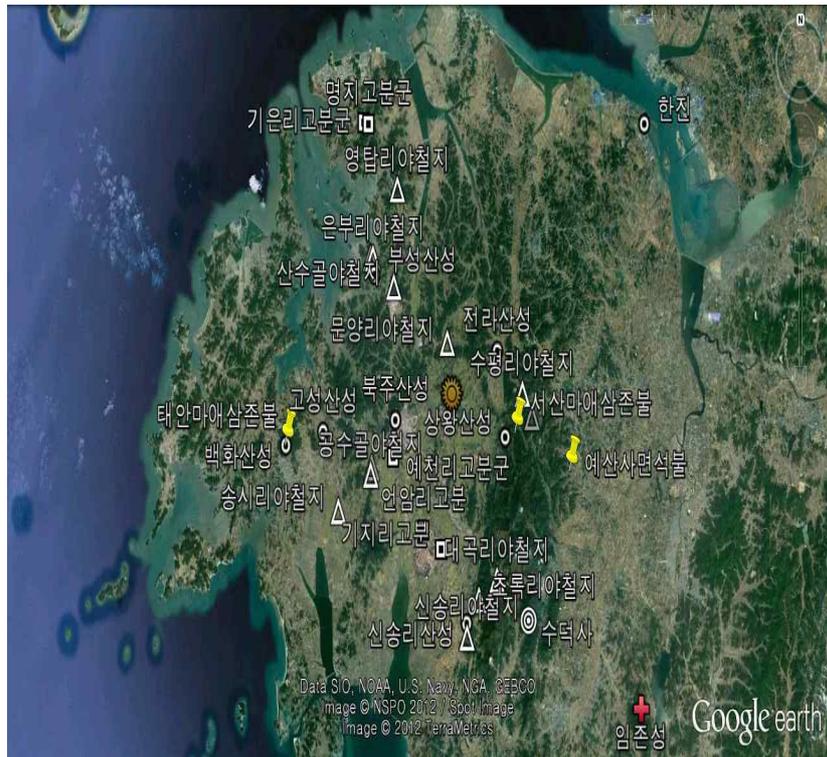
70) 일제시대에도 서산지역의 철광산을 일본의 석원산업이 사들였다는 기사가 남아있다. 즉 石原産業では兩三年来鉦山界の活況に伴い同社事業部の擴張を図ると共に、朝鮮(金山)紀州(金、銅山)九州(金山)兵庫(金、銅山)の諸地方に鉦山を購入してその積極化著るしきものあるが、最近又朝鮮忠淸南道瑞山郡の瑞山鉄山を買収(買収価格三十万円見当)した、その埋蔵鉄鉦量は概算二億トン見当に上るものと推測されその将来性は頗る有望視されている瑞山鉄鉦山は南北延長約五里に亘る大鉦脈で、十四鉦区よりなり総面積約一千四百万坪に達している、鉄鉦の品種は磁鉄鉦で含有率は四十パーセント乃至五十パーセントに過ぎないので鞍山式の貧鉦処理を必要とする、従って南洋方面の鉄鉦と比較すれば品位に於ては相当劣っているが、運航費等の関係よりして採算は充分にたつものとされている磁鉄鉦では鮮満国境の茂山鉦山(三菱、石原)が品質類似し、その埋蔵量三、四億トンと称せられているが、気候ならびに地理的關係よりして瑞山鉦山の法が遙かに有利な地位にあるのみでなく、鞍安と比較してもその貧鉦処理は瑞山の方が容易である関係上石原産業では同鉄山の将来を頗る期待している猶同社では近く測量調査班を現地に派遣し第一期計画に着手する筈であるが、築港その他第一期建設費は五百万円見当に上る模様で、その工事完成は早くとも昭和十二年以降になるであろう (〈石原産業が朝鮮の瑞山鉄山を買収 : 埋蔵量二億トン、有望な磁鉄鉦 近く測量班現地派遣〉, 《神戸又新日報》, 1935.8.14)

71) 忠淸道觀察使啓, 道今年方農月久旱, 禾稼不登, 沿海諸邑, 傷農尤甚, 其備荒之物, 已令預備, 除弊條件逐一具錄以聞. 一諸浦當番船軍, 營鎮守城軍, 防牌, 留防軍, 限來年麥熟, 分四番, 鄉校生徒分三番. 一營鎮月課軍器造作, 諸邑所藏舊軍器修補及船軍圓牌成籍, 諸邑軍士草案成籍, 沙鐵採鍊等項事, 竝限來年秋成停罷. (『世祖實錄』, 卷2, 1年 1月 己亥)

72) 충청남도 서산시 대신면 명지리에 있는 백제시대의 고분군으로 서산의 대신반도(大山半島) 중앙의 망일산(望日山) 서쪽 구진(舊鎭)마을에서 명지마을에 이르기 전의 원편 계곡 구릉의 경사면에 있는 토광묘군이다. 야산개발 등으로 인해 유실된 것이 많으며, 현재 약 15기가 1군을 이루고 있고, 명지마을을 지나서 좌측 경사면에도 3기 정도가 확인되었다. 이 중 제1군에서 2기, 제2군에서 1기 등 모두 3기가 발굴 조사되었다. 제1군 중 가장 높은 곳에 있는 A호분은 40cm 정도의 봉토(封土) 높이에 경사면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북 장경(長徑) 8m, 동서 단경(短徑) 7m 정도의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토광(土壙)의 장축은 동서향으로 북측 벽의 일부가 무너져 유실되었고, 토광 안에서는 목관을 사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유물로는 철제환두대도(鐵製環頭大刀)·붉은색 조질(粗質)의 원저토기(圓底土器)와 쇠도끼(鐵斧)·쇠스랑(鐵鋤) 등의 철기류가 나왔다. B호분도 A호분과 같이 남북이 긴 타원형이며 길이 10m, 너비 8m 정도에 40cm 정도의 낮은 봉토만 남아 있었다. 광도 A호분과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파지 않고 서벽(西壁)이 하향하면서 45°가량 경사져서 좁게 패어 있다. 토광 안에서는 전형적 백제토기인 회흑색 소문원저토기(素文圓底土器)·철제환두대도(鐵製環頭大刀)·철정(鐵錠)·쇠도끼(鐵斧)·쇠낫(鐵鎌) 등의 철기류가 나왔다. 제2군의 C호분은 봉토 높이가 겨우 확인될 정도로 낮았고 광의 구조는 확인할 수 없었다. 크게 파괴된 회흑색 소문원저토기가 출토되었으나 복원은 불가능하였다. 이 곳 토광묘들은 백제토광묘로서는 규모가 아주 작은 것이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특수한 구조를 하고 있다. 즉, 토광에 목관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벽도 수직으로

분들이 분포되어있는데 백제시대에는 부성산성(富城山城)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 나오는 사철들을 관장하였던 것이다.

이곳의 북쪽 도성리(桃星里)에는 ‘쇠팽이(鐵洞, 鐵山)’이라는 지명이 있으며 『여지도서(與地圖書)』충청도 서산군 지곡면조에 ‘고수철리(古水鐵里)’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대요리(大要里)의 옛 지명으로 대요리에는 지금도 ‘무쇠점(鐵店)’이라는 마을 이름이 남아 있다. 특히 도성리에는 금·은·연·철 등을 채굴하였던 서성광산이 있었던 곳으로 그 지명인 ‘은부리’는 ‘은이 나오는 뒤편(銀邊)’로⁷⁴⁾ 철과 관련된 지명이 지곡면(地谷面) 일대에 집중되어있



[그림 13] 서산지역 백제시대의 유적과 야철지 (*는 부장리고분군 : 구글어스)

음은 이곳이 고대로부터 대규모의 철산지(鐵產地)였음을 증명해주고 있다.⁷⁵⁾

특히 조선시대 수군기지로 설치된 평신진(平薪鎭)에서는 대산반도의 사철(沙鐵)을 이용하여 무기를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⁷⁶⁾되고 있어 지곡일대가 고대로부터 최근까지도 매우 중요한

파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차차 좁아지고 있다. 또한 광의 긴 쪽이 경사면과는 직각을 이루며, 부장품의 출토상태로 본 유해는 서침(西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토광묘는 서울 가락동에서 발굴된 바 있다.(金永培·韓炳三, 「大山面 百濟土壙墓 發掘報告」, 『考古學』 2, 한국고고학회, 1969)

73)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2구의 등근산의 북서 사면 하단부로 발로 개간되었다가 다시 논으로 경작되고 있다. 개간과 경작으로 유적은 파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유물의 출토 상황으로 볼때 10여기의 토광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의 약 300여평의 지역에서 격자문과 승석문이 새겨진 회청색 경질의 원저호(圓底壺)와 발(鉢) 등의 백제시대 토기 조각들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서산 기은리 2구 토광묘』, 『서산시 문화유적분포지도』, 충남발전연구원, 1998)

74) 충청도(忠淸道) 해미현 호장 김연(金鍊)의 역사를 면제하였다. 김연이 서산군(瑞山郡) 임내 지곡현(地谷縣) 땅에 은돌(銀石)이 있다고 고하니, 관가에서 사람을 보내어 파내어서 납 1근 8냥중을 녹였는데 정련한 백은(白銀)이 1전 3푼이었다. 또 다른 도(道)는 은돌이 있는 곳이 모두 암석 사이인데, 여기는 땅이 평평하고 나무가 무성하여 은(銀)을 단련하기에 제일 좋은 땅이었다.(『太宗實錄』 17年 11月 7日 戊午)

75) 이은우 씨의 도움으로 은부리, 쇠팡이, 산수골, 화천리, 대요리 무쇠점에서는 슬래그를 수습하였고, 도성리에서는 광석을 수습하여 공주대 조남철 교수에게 분석을 의뢰하였다.

76)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가 아뢰기를 “본도(本道: 忠淸道)는 금년에 한창 농사지을 날에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 벼농사가 부실하니.....영진(營鎭)의 월과군기(月課軍器: 매달마다 각도 고을과 영鎭에 貢物로 부과하여 만들어 바치게 하던 군사물자)의 제작과 여러 고을에 소장하고 있는 옛 군기(軍器)의 수보(修補) 및 선군원패(船軍圓牌: 船軍의 戶首에게 주던 나무로 만든 등근 牌)의 성적과 여러 고을의 군사초안(軍士草案)의 성적과 사철(沙鐵)의 채련(採鍊) 등의 일을 아울러 내년 가을 추수까지 정파(停罷)하게 하소서”하였다. (『世祖實錄』 卷2, 1年 8月 6日 己酉)

철산지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서산의 가로림만, 천수만과 태안반도 지역에 산재되어 있었던 사철산지들은 대규모의 간척을 통해서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의 간월호 해변에서 대규모의 사철 분포지가 확인되었다.

칠지도의 제작지로 비정되고 있는 서산시 지곡 일대에서 이곳 주민들로 결성된 서산향토문화연구회에 의해 채취한 사철을 공주대학교 조남철 교수가 분석한 결과 TiO₂의 함유량이 화천리 산수골의 사철은 0.54%, 화천리 원천마을의 사철은 0.43%, 무쇠점마을의 사철은 0.63% 등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무쇠점야철지에서 출토된 제철로 노벽의 외벽에 있는 슬래그에서는 0.62%, 내벽의 슬래그에서는 0.67%가 나오고 있다. 그 외에 은부리야철지의 슬래그를 분석한 결과 TiO₂가 2.54%, 1.20%가 나왔으며, 쇠팅야철지의 슬래그를 분석한 결과 TiO₂가 0.98%가 나오고 있다.⁷⁷⁾ 이것을 볼 때 가로림만 일대에는 거대한 사철지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본다.



[그림 14] 간월호의 도당리에서 채취한 사철

특히 대산읍 명지고분에서는 백제시대의 철정(鐵錠)을 비롯하여 환두대도, 쇠낫(鐵鎌), 쇠도끼(鐵斧), 쇠못, 쇠스랑, 토기 등이 출토되었는데 대부분이 철기유물들이다. 이 고분의 주인공은 3~4세기에 부성산성을 중심으로 지역의 사철제련을 관장했던 인물로 보인다.

⑥백제지역의 사철산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와 여러 문헌에서 언급된 사철지를 보면 신라(新羅) 권역은 경주부 감은포·팔조포⁷⁸⁾, 언양현 석남동⁷⁹⁾, 안동부 임하현 사등라리·목곡리⁸⁰⁾, 예천군 다인현 대곡탄, 영덕현 오포항 남역포정⁸¹⁾, 상주목 송라탄⁸²⁾, 삼척도호부⁸³⁾, 울릉도⁸⁴⁾ 등이

77) 조남철, 「서산시 지곡일대의 사철과 야철지 슬래그의 분석」, 『칠지도와 백제의 사철제련-칠지도 기념사업회 학술심포지엄-』, 사철제련연구회, 2015.

78) 현재의 월성군 양북면 감포 지역으로 한국사철제련연구회에서는 이곳의 사철을 채취하여 다다라 제철법을 복원하는데 성공하였다.

79)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석남산인데 1469년 발간된 『慶尙道續撰地理志』의 慶尙道 彦陽縣에도 石南山에서 나오는 '沙鐵'이 기록되어있다.

80)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는 반변천변으로 내앞이라고도 불리웠는데, 이곳의 광산이라 불리우는 곳은 철분이 많은 땅으로 옛날에 연쇠를 채취하였다고 한다.(안동 지명유래, 안동시청)

81) 현재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로 한국사철제련연구회에서는 포항시 흥해읍을 관통해 흐르는 曲江川 하구에서 사철을 확인하였는데, 이 부근의 포항시 흥해읍 옥성리고분에서 나온 철기를 분석한 결과 Ti가 0.97%가 나와 사철을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임재경, 「2-6세기 포항지역의 철기제작기술의 연구」, 용인대 예술대학원 문화재보존과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12)

82) 『商山誌』山川에 “松羅灘은 州의 북쪽 37리에 있으며 즉 낙동강의 상류이다.”라고 하였는데, 현재 상주시 사벌면 매호리의 낙동강변의 여울이 지는 雲城津 아래로 보고 있다.(〈사벌국면 마을유래〉, 상주시청, www.sangju.go.kr)

83) 三陟都護府의 동쪽 6리의 浦汀에서 사철이 나온다고 하였는데 『河陰先生文集』卷4, 狀啓, 「嶺東鹽鐵轉販不便狀啓」에 보면 三陟浦와 大浦 2곳에 철이 나온다고 하였다. 그런데 『新增東國輿地勝覽』卷44, 三陟都護府 山川條에 五十川이 죽서루 아래에서 못을 이루었다가 또 동으로 흘러 三陟浦에서 바다로 들어간다고 하였는데, 이 부근의 동해 망상동유적에서는 TiO₂가 1.81%, 동해 송정동유적에서는 TiO₂가 1.05%가 나오고 있어 이곳의 사철을 이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84) 護軍南薈, 司直曹敏回自茂陵島復命, 進所捕男婦共六十六及產出沙鐵石鍾乳生鮑大竹等物 (『世宗實錄』, 卷82, 20年 7月 15日 戊午)

있다.

가야(伽耶) 권역⁸⁵⁾은 김해부 감물야촌⁸⁶⁾, 창원부 악상리 부을무산⁸⁷⁾, 합천군 야로현⁸⁸⁾ 심묘리⁸⁹⁾, 용궁현 무흘탄·작탄·수정탄⁹⁰⁾, 산음현 마연동산⁹¹⁾, 삼가현 모태역리 함정산⁹²⁾, 양산⁹³⁾ 등이며 백제권역은 청풍군 며오지⁹⁴⁾, 은진현 작지(鵲旨)·웅전·토곶⁹⁵⁾, 공주목 이산현⁹⁶⁾, 석성현 삼산리⁹⁷⁾, 함평현⁹⁸⁾ 등으로 되어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서는 사철광산(沙鐵鑛山)이 21개읍인데 비해 석철광산(石鐵鑛山)은 15개읍에 불과하다. 이것은 사철이 석철광산에 비해 채굴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조선전기에 공납으로 내던 공철(貢鐵)을 채납했던 철장도회(鐵場都會)들도 대부분 사철광산이 있는 곳에 개설되었다. 따라서 부역농민들은 대부분 하천변이나 해변에서 사철(沙鐵)을 채

- 85) 고성 소을비포성지유적 제철유구 22기가 나왔는데 다량의 Ti가 검출되어 사철을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신경환 외, 「고성 소을비포성지 제철 관련 유물 분석 고찰」, 『고성 소을비포성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소, 2007)
사천 늑도유적 A지구에서는 노벽편 70여점, 송풍관편 12점, 슬래그 10여점이 나왔는데 분석결과 다량의 Ti이 나와 사철을 원료로 사용하였음이 밝혀졌다.(신경환·이남규, 「늑도 유적 철재의 분석」, 『늑도 패총 V-고고편-』, 경남고고학연구소, 2006)
- 86) 김해시 하동면 대감리, 중동리, 예안리 등인데 1469년 발간된 『慶尙道續撰地理志』에 金海의 공물에도 甘勿也에서 나오는 '沙鐵'이 기록되어있다.
- 87) 창원시 삼남면 불오산리의 불오산인데 1469년 발간된 『慶尙道續撰地理志』에 昌原의 공물에도 吹無山에서 나오는 '沙鐵'이 기록되어있다. 이 부근의 김해 여래리유적에서는 TiO₂가 0.17%가 나와 이것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 88) 합천 야로리 야철지는 4기의 노적이 확인되었는데 노벽체편, 철괴, 슬래그 등이 나왔는데 분석결과 TiO₂가 5.01-10.52%가 나와 사철을 원료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경남고고학연구소, 『합천 야로 야철지 시굴조사 보고서』, 2006)
고령 용리유적에서는 노벽체, 송풍구편, 슬래그 등 나왔는데 분석결과 TiO₂가 4.11%, V₂O₅가 0.17%가 검출되어 사철을 이용하여 제련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大澤正己·角田德幸, 『韓國におけぬ製鐵原料の金屬學的調査-達川鑛山及龍理遺蹟採集資料-』, 2006 ; 신종환, 「합천 야로와 제철유적」, 『합천 야로 야철지 시굴조사 보고서』, 경남고고학연구소, 2006)
- 89) 합천군 묘산면 사리로 현재 사리2구 진지마을에 야철지가 남아있다.(「한반도의 제철유적 목록」, 『한반도의 제철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2, p.720)
- 90) 예천군 진보면 낙동강변으로 1425년 발간된 『慶尙道地理志』의 龍宮縣 土產貢物에도 '沙鐵'이 기록되어있다.
- 91) 산음현은 현재의 산청군으로 고상모의 조사에 의하면 산청군 단성면 일대와 하동군 옥종면 월횡리 일대에는 티탄철광상이 분포되어있는데 TiO₂ 0.18-20.34% 정도이다.(고상모, 「하동-산청 티탄철석광상의 광체배태양상」, 『한국광물학회지』 제23권 제1호, 2010)
- 92) 1469년 발간된 『慶尙道續撰地理志』에 三嘉의 공물에도 黃山에서 나오는 '沙鐵'이 기록되어있다.
- 93) 『慶尙道邑誌』梁山條, 土產沙鐵 ; 『輿地圖書』慶尙道, 梁山條, 土產沙鐵.
- 94) 제천시 금성면 월굴리에는 일제시대 자철광을 캐던 광산이 있었고 쇠녹이던 대장간이 있었다.(〈제천시명사〉, 제천시청, www.jecheon.go.kr)
- 95) 웅전(熊田)은 도곡면에 속했었는데 현재는 논산시 은진면 토양리이다. 토곶(吐串)은 논산시 성동면 삼산리이다. 이 부근의 논산시 부적면 충곡리 한양말에서 사철이 나온다고 하여 한국사철제련연구회에서 그곳 주민의 도움으로 사철을 채취하여 공주대 조남철교수가 분석하였는데 TiO₂가 0.33%, V₂O₅가 0.24%, ZrO₂가 0.33%가 나왔다.
- 96)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에는 불무고개라는 지명이 남아있다.(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4권 상, 1974, p.175)
- 97)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에는 석창광산이 있었다.(한글학회, 『한글학회』, 1974, p.464)
- 98) 『新增東國輿地勝覽』, 咸平縣, 土產條에 '水鐵出縣西海際里, 兩班橋海岸, 鐵出縣西沙乃浦, 瓮岩浦'라 하였는데 해제리는 현재 무안군 해제면의 바닷가로 고종 3년에 함평군에서 무안군으로 바뀌었다. 함평예덕리 만가촌유적, 중량유적, 소명유적, 반암유적 등에서는 철정이 출토되어 함평지역에서 이러한 사철을 이용하여 제철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지명총람 16』(한글학회, 1984)에서는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는 예전에 금을 캐기 때문에 금굴 또는 金谷이라고 불렀다고 하였다. 이 부근 7km 정도 동북쪽으로 이곳과 같은 강줄기인 고막원천변에 있는 나산면 이문리 석지마을 '큰고랑', '쇠똥'으로 불리는 곳에서는 슬래그가 나오는 야철지가 발견되어 사철일 가능성이 높다.

취하는 작업에 종사하였으며, 한사람이 하루에 6말(斗) 정도의 모래를 물채질(淘沙)한 것⁹⁹⁾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⁰⁰⁾

백제(百濟) 권역으로 사철을 이용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 지역들과 <한국사철제련연구회>에서 조사한 사철 분포 지역들을 종합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㉔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¹⁰¹⁾,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¹⁰²⁾, 연천의 고남산¹⁰³⁾ 등이 있는데 볼음도의 사철을 한국사철제련연구회에서 조사하고 채취하여 한정옥이 녹여본 결과 Ti 함량이 높아 매우 힘들었다. 필자는 고남산지역의 산사철을 채굴하는 광산을 답사하였는데 이곳과 소연평도에 대한 조사 보고서¹⁰⁴⁾에 의하면 Ti를 함유하고 있는 함티탄자철석광산임을 보여주고 있다. 대연평도산을 오사와(大澤正己)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광산은 티탄자철광으로 TiO₂가 18.51%, V₂O₅가 0.372%이다.¹⁰⁵⁾ 그리고 춘천시 중도의 사철에서는 TiO₂가 7.77%가 나왔으며¹⁰⁶⁾ 화천 원천리유적의 노벽편에서는 TiO₂가 1.02%가 나왔다.¹⁰⁷⁾

㉕ 양평 대심리유적에서는 10여점의 철부, 철도자, 철촉, 호미 등과 슬래그가 나왔는데 그 주위의 남한강변에 산재한 사철을 사용하여 제철이 행하여졌을 가능성이 있다.¹⁰⁸⁾ 가평 대성리유적에서 나온 주조철부에서는 티탄(Ti)이 3.3%, 바나듐(V)이 1.3%가 나왔다.¹⁰⁹⁾ 그리고 탄천지역은 이곳 가락동농수산물시장 부근에 살았던 서채운 씨의 제보에 의하면 어릴적에 자석을 가지고 탄천변에서 사철을 채취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서울 풍납토성에서 나온 못(釘)과 용인수지지구에서 발굴된 낫(鎌), 투겁도끼(有釜斧), 화살촉(鏃) 등에서 Ti가 나오고 있어 사철을 원료로 사용했음¹¹⁰⁾이 밝혀졌고, 용인 서천동유적에서 출토된 사철(沙鐵)에서는 TiO₂가 1.06%¹¹¹⁾이다.

99) 集賢殿僉議政府所進社會之法，皆曰不可行也。上使晉陽大君，謂承政院曰予亦以爲不可行，唯鹽法可行。其議以聞。禮曹判書金宗瑞適至承政院，諱傳上旨，問曰鹽法可行乎，宗瑞對曰可行。曰行之何以，曰臣曾爲咸吉道觀察節制使，本道多有鹽盆，諸道亦皆有之。先用諸道官鹽盆，煮海爲鹽，優價以賣，則民樂買之。曰各道各官鹽盆，不可無也，豈宜盡奪，除出用之可也。宗瑞曰我國三面傍海，鹽利居多，而國家不之用，臣竊憾焉。曰古人云魚鹽之利。魚豈無利乎，宗瑞曰若用其各官魚箭而貿易，則利在是矣。曰古人云卽山鑄錢。本國無銅錢，不可鑄也。然鐵豈無利乎，宗瑞曰本國產鐵，不可勝用。鏡城等處，一人一日所淘，幾六斗。(『世宗實錄』，卷105，26年 7月 14日 辛酉)

100) 신종환, 「조선시대의 제철문화」, 『한반도의 제철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2, 604쪽.

101) 공주대 조남철 교수의 분석 결과 TiO₂ 12.9%, V₂O₅ 0.71%이다.(『한반도 사철제련과 대도의 재현을 위한 자연과학적 분석』, 공주대 문화재보존과학과 무기질문화재연구실, 2012.10)

102) 광석은 자철광, 티탄철광, 적철광으로 이루어져 있다.(『광물자원탐사를 위한 광상자료의 통합처리 기술 및 신모델 개발연구』, 한국자원연구소, 1998)

이곳의 각석암에는 TiO₂가 0.21-1.34% 정도이다.(정호완, 「소연평도 및 고남산 지역에 나타나는 함티탄자철광상들의 지화학적 특징 및 광상학적 성인연구」, 『서울대학교 연구보고서』, 과학기술부, 1985)

103) 정호완의 분석에 의하면 TiO₂가 0.8-2.08% 정도이며(정호완, 앞글, 1985), 한국자원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TiO₂가 1.29-6.577%이다.(위글, 한국자원연구소, 1998)

104) 정호완 외, 앞글, 1985.6.

105) 大澤正己, 「가평 대성리유적 출토 철 관련유물의 금속학적 조사」, 『가평대성리유적』,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106) 大澤正己, 「김제 은곡제철유적 출토제철관련유물의 금속학적 조사」, 『김제 장흥리 은곡 제철유적』, 대한문화유적연구센터, 2011.

107) 신경환 외, 「한국고대 제철관련 유물의 금속학적 연구」, 앞책,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2, p.624.

108) 김원용 외, 『양평 대심리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971.

109) 大澤正己, 앞글, 2009.3.

110) 신경환 외, 「백제철기 제조공법의 특성」, 『백제 생산기술의 발달과 유통체제 확대의 정치 사회적 함의』, 학연문화사, 2008.

111) 『용인 서천동유적』, 경기문화재연구원, 2011.

㉟ 수원 망포동유적 제철유구 2기와 입상재, 단조박편, 사철(沙鐵), 철재(鐵滓:Slag) 등이 출토되어 사철을 이용하여 제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¹²⁾ 화성 반월동유적은 철소재로 사용된 철괴(鐵塊) 2점이 출토되었는데 분석결과 사철을 원료로 제련이 행하여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¹¹³⁾ 고양시 벽제동 제철유적의 슬래그에서 TiO_2 가 1.67~2.01%, V_2O_5 가 0.30~0.41%가 검출되어 사철을 원료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¹¹⁴⁾

㊸ 천안 용원리 환두대도(環頭大刀)는 TiO_2 가 0.44~1.19%, 아산 명암리 박지르레유적의 토광묘에서 출토된 환두대도(環頭大刀)에서는 TiO_2 가 0.23~1.74%가 나왔다.¹¹⁵⁾ 청주시의 하천에서 채취된 사철(沙鐵)¹¹⁶⁾에서는 TiO_2 가 0.33%가 나왔다.¹¹⁷⁾

㊹ 충주지역은 고려시대에 다인철소(多仁鐵所)¹¹⁸⁾를 운영할 정도로 유명한 곳으로 많은 야철지유적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철광석(鐵鑛石)을 사용하고 있다. 야동리 풀무골 야철지에서 TiO_2 가 4.11%, 3.61%, ZrO_2 가 0.65, 0.4%이고, 수룡리 원모롱이 야철지의 일부 슬래그에서 TiO_2 가 1.1%, ZrO_2 가 0.07%이며, 금곡리 아래쇠실 야철지의 일부에서 TiO_2 가 1.26%, ZrO_2 가 0.05%이고, 사문리 새절골 야철지의 일부에서 TiO_2 가 1.22%, ZrO_2 가 0.08% 등이 나와 사철이 일부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¹¹⁹⁾

㊺ 논산시 부적면 충곡리 한양말의 사철지는 『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¹²⁰⁾와 『호서읍지(湖西邑誌)』¹²¹⁾에서 언급되었고 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으로¹²²⁾ 한국사철제련연구회에서 이곳을 답사한 후 그곳 주민의 도움으로 사철(沙鐵)을 채취하여 공주대 조남철교수가 분석하였는데 TiO_2 가 0.33%, V_2O_5 가 0.24%, ZrO_2 가 0.33%가 나왔다. 연기 달전리 유적의 슬랙에서 TiO_2 가 1.31%, V_2O_5 가 0.17%, ZrO_2 가 0.06% 등이 나오고¹²³⁾ 있고, 공주 계실리의 슬랙에서는 TiO_2 가 1.52%, V_2O_5 가 0.20%, ZrO_2 가 2.03%가 나오고¹²⁴⁾ 있어 사철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철한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지역의 연기 장재리 12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대도에서는 TiO_2 가 0.38~0.97%가 나왔으며, 공주 수촌리 22지점 1호분에서 출토된 쌍룡문 은상감환두대도는 TiO_2 가 0.32~0.78%가 나왔으며 2지점 석곽묘에서 출토된 대도에서는 TiO_2 가 0.42~1.32%가 나왔고, 금산 수당리 12호분 석곽묘에서 출토된 대도에서는 TiO_2 가 0.85~1.66%가 나왔다.¹²⁵⁾

㊻ 김제 장흥리 은곡제철유적에서 출토된 사철(沙鐵)에서는 TiO_2 가 0.99%, ZrO_2 이 0.24%,

112) 『수원 망포동유적』, 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113) 『화성 반월동유적』, 충남대 백제연구소, 2007.

114) 김수기, 「고양 벽제동유적 출토 유물의 본존과 금속학적 연구」, 『고양 벽제동 유적』, 기전문화재연구원, 2006.

115) 조현경, 앞 논문, 2015.

116) 靑川, 一云鋤川, 俗離之水, 灣環曲抱, 障北通南, 內多名村, 地產鐵.(『大東地志』卷6, 忠淸道, 淸州, 山水條)

117) 大澤正己, 앞글, 2011.

118)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4, 忠淸道 忠州牧 古跡.

119) 충주지역 제철유적에서는 채집한 철광성에서는 Zr의 함량이 다른 곳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이창선, 「충주 제철유적의 현황과 성격」, 『선사와 고대』 35집, 2011.

120) 『忠淸道邑誌』 連山縣, 土產, 沙鐵出漢陽村.(1845년경)

121) 『湖西邑誌』 連山, 土產, 沙鐵出漢陽村.(1895년)

122) 『金屬工藝- 韓國의 在來 採鐵·製鍊·鑄鼎 技術調查-』,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4.

123) 이진원, 「연기 달전리유적 출토 제철 철재의 금속학적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문화재보존과학과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2011.

124) 조남철 외, 「제철유적 출토 철재의 재료학적 특성 연구」, 『보존과학회지』 Vol.26 No.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10.

125) 조현경, 앞 논문,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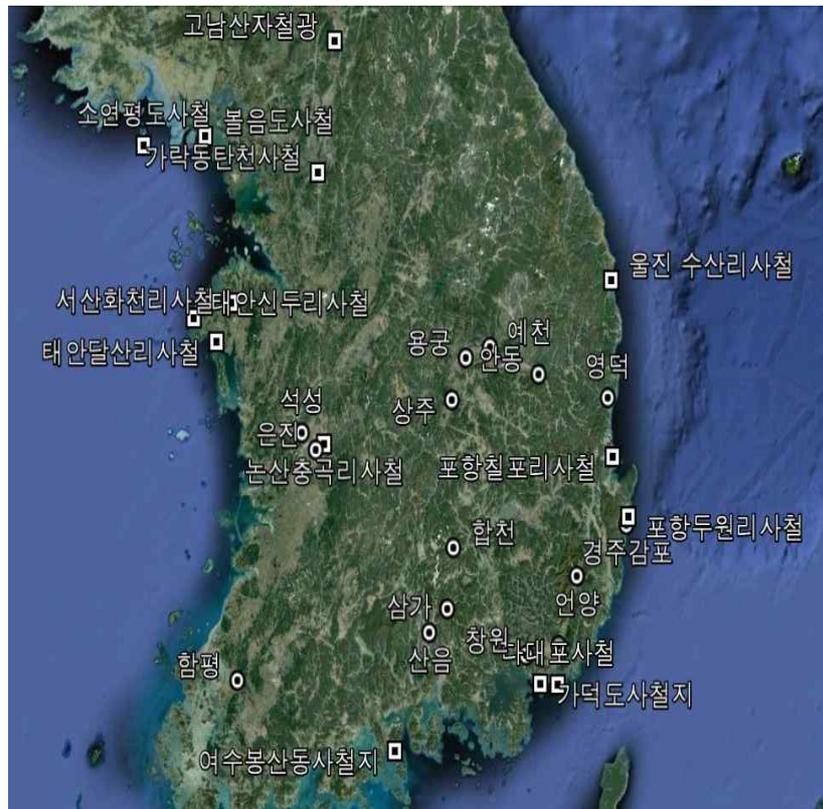
슬래그에서는 TiO_2 가 0.6%, ZrO_2 이 1.0%, 노벽에서는 TiO_2 가 0.46%, ZrO_2 이 0.02%가 나와¹²⁶⁾ 이 상형로는 사철을 이용해 제련한 것이 확실하며¹²⁷⁾, 서천 봉선리 2지역 9호분 석곽묘에서 출토된 대도에서는 TiO_2 가 0.99%, 2지역 16호분 석곽묘에서 나온 대도는 TiO_2 가 0.44~0.91%, 3-2지역 10호분 석곽묘에서 출토된 대도는 TiO_2 가 0.54~0.85%가 나왔다.¹²⁸⁾

㉞ 나주 북암리 제철유적의 노벽편에서는 TiO_2 가 1.53%가 나왔다.¹²⁹⁾ 광주시 금곡동유적에서 나온 사철(沙鐵)

에서는 TiO_2 가 3.56%, 슬래그에서는 2.09%, 철소재에서 20.17%, 판상철편에서는 18.32%가 나왔다.¹³⁰⁾

㉟ 태안 지역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19, 충청도 태안군 토산조에서 “철(鐵)이 다수산곳(多修山串)에서 나온다”고 하였는데 북한의 이태영¹³¹⁾은 다수산을 태안군 소원면 소원리 대소산으로 비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의 신세철¹³²⁾은 태안군 남면의 달산리 야철지(達山里冶鐵址)를 다수산으로 지목하였으며 이곳에 오산소(吳山所)라는 철소(鐵所)가 있었다고 보았다. 이곳에는 백제시대의 달산리산성이 있으며 이 부근의 바닷가 양쪽(맞개:서해 쪽,안개:천수만쪽)에서는 최근까지도 사철이 많이 있어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서산방조제를 막은 후로는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창기리 바닷가에는 ‘쇠섬’이라는 곳이 있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태안의 신두리 해안 사구(砂丘)지역에는 현재도 소량의 사철(沙鐵)이 분포되어 있음을 필자와 충남대 노태천 교수, 갈박물관 한정욱 관장에 의해 발견되었고, 태안지역에서는 신두리 가마골야철지, 소근리 섭바탕야철지, 평천리야철지, 반곡리 징관골야철지, 달산리야철지 등



[그림 15] 세종실록지리지의 사철지와 필자가 조사한 사철지

126) 大澤正己, 앞글, 2011.

127) 신경환 외, 앞글, 2012, 620쪽.

128) 조현경, 앞 논문, 2015.

129) 신경환 외, 앞글, 2012, 625쪽.

130) 양삼렬, 「출토유물의 과학적분석」, 『무등산 금곡동』, 국립광주박물관, 1993.

131) 이태영, 『조선광업사』 2, 공업종합출판사, 1991, 42쪽.

132) 신세철, 「오산소와 양골소에 대한 고찰」, 『소성의 향기』 제12집, 태안문화원, 2006.

여러 곳의 야철지유적들이 존재하고 있어 백제시기에는 많은 사철이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을 통제하였던 백제 당시 이 지역의 치소로서는 백화산성(白華山城)이 거론¹³³⁾되고 있다.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산 2번지에 있는 조선 태종 4년에 설치된 수군기지인 소근진(所斤鎭) 유적지 부근에도 섭바탕 야철지(冶鐵地)가 발견되고 있는데 이곳은 해변에 퇴적된 사철을 이용하여 제련을 무기를 제작¹³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조 성종 때인 15세기에는 이곳에 철장(鐵場)이 설치되어 있었고¹³⁵⁾ 18세기 숙종조에는 안면도에는 사철을 이용해 제련을 하던 민간의 사철점(沙鐵店) 46호가 설치되었음¹³⁶⁾을 알 수 있다.

① 여수지역은 조선시대 전라좌수영의 수군(水軍) 본영이 설치되었던 여수의 봉산동 사철소지(鳳山洞 沙鐵所址)는 바닷가의 사철을 채취하여 제련한 장소로 추정되는 봉산동 3통 3~4반 일대로 사철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슬래크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 일대에 사철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으며, 지금도 30cm 정도만 땅을 파면 사철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¹³⁷⁾ 이곳에 남아있는 슬래크를 분석한 결과 TiO₂가 9.3%, V₂O₅가 0.39% 나와¹³⁸⁾ 사철을 사용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전라좌수영에서는 이 지역의 사철을 이용하여 무기를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조 연간(1748년)의 『양역실총(良役實總)』과 헌종 연간(1847년)의 『호좌수영지(湖左水營誌)』에 조선 후기 전라좌수영의 제철관련 장인들이 회포장이 45명, 수철장이 37명, 피철장이 3명, 사철취련장(沙鐵吹鍊匠)이 10명이었는데, 고종 연간(1878년)의 『호좌영사례(湖左營事例)』에서는 사철취련장이 대규모로 늘어나 30명으로 되었으며 이곳에서는 연간 1.1~1.3톤 정도의 사철이 생산하였다고 추정된다.

전라좌수영은 성종 10년(1479)에 전라도 수군절도사영이 전라좌수영과 전라우수영으로 분리되면서 여수지역에 설치되었는데 둘레 1.7km 전라좌수영성 안에 진남관 외에 78개동의 건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있다. 그 부속 청사 중에서 야장청(冶匠廳)은 대장장이와 대장간을 관리하던 곳이고, 별포청(別砲廳)은 별포(別砲)를 제작 관리하던 곳이며, 원포청(元砲廳)은 원포(元砲)를 제작 관리하던 곳이다. 특히 사공청(沙工廳)은 사철(沙鐵)을 담당하던 관리들이 집무하였던 곳이다.¹³⁹⁾ 그러므로 임진왜란 때에도 이순신 장군은 이곳에서 사철을 제련하여 거북선과 각종 무기를 제작하였으며, 영조 27년(1751) 절도사 정익량이 사철고(沙鐵庫)¹⁴⁰⁾를 설치했다고 전

133) 이경복, 「백제의 태안반도 진출과 서산 부장리 세력」, 『한국 고대사 탐구』 Vol3. 2009.

134) 조선시대에 수군들이 사철채취 및 제철의 부역에 동원되어 자체적으로 철기를 제작 수급하기도 하였다.(이태영, 앞책, 1991, p.42)

135) 御經筵。講訖，侍讀官趙之瑞啓曰，臣所摘泰安郡守宋傑，不法有九條。繩索等物，計戶分定，一一徵納，此雖皆有用處，不可斂及編氓也。多般物件，稱貢物未收，或一二斗。或三四斗，巧作名色以斂，至如生麻，亦頭會以斂，臣召宋傑，問用麻處，答云將以結網也。郡有魚鹽之利，使一吏持魚鹽求麻，亦可以足用。荒蟹，海濱賤物，雖使衙仕吏卒取之，可以多得，今乃用闔郡之民，什伍爲統，定數以斂，或倉庫直宿，或衙仕，多般號令，少有稽緩，以爲闕到，鋤、鎌、斧、斤之屬，悉皆收奪，無絲毫假貸。郡有鐵場，冶鍊有課，豈無羨餘，雖不橫取於民，用鐵有裕。(『成宗實錄』卷236, 21年 1月 4일 丁巳)

136) 備邊司達曰，本司郎廳金滄·李禔，安眠島及邊山摘奸以來矣....李禔則以爲，丙申摘奸時，標內起耕田畝，使之還陳，而山上礪碓處外，多有仍前冒耕者，其數多至七十八結，丙申摘奸時，定界壘石處，間或毀圮，檜·枳兩木，元無種植形止，濱海處，依朝令作契禁松，頗有其效。山脚所居兩班四十三戶，店漢四十六戶，曾已毀出，而其中六戶，更爲冒居，故治罪毀出，丙申摘奸時，入葬三十墳掘移，而後新入葬二十五塚，故十三塚，治罪掘移，其餘十二塚，塚主或因事出他，或知幾逃躲，未及掘移。丙申摘奸時，沙鐵店四十六戶，鹽盆十五坐，盡爲毀出，而後又有鹽盆冒設之處，聞摘奸先聲，皆已毀撤。(『承政院日記』512冊, 肅宗 45年 1月 17日 庚寅)

137) 『여수시의 문화유적』, 조선대학교 박물관, 2000.

138) 최주 외, 「여수봉산동 출토의 사철 쇠뿔에 대하여」, 『보존과학회지』Vol.3 No.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1994.

139) 문영구, 『전라좌수영연구』, 대한건설진흥회, 1992.

해진다.¹⁴¹⁾

6. 맺음말

제철산업은 현대에도 매우 중요한 기간산업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현대에도 철광석을 용광로에서 녹여 선철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전로, 전기로 등에서 녹여 강철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런데 고대에 이미 사철을 용광로에 넣어서 강철 덩어리인 옥강(玉綱)을 얻어내었던 고도의 기술력은 그 당시 최고의 기술로 특수한 집단들에게만 극비에 전수되었으며, 국운을 좌우하였던 고도의 하이테크 기술¹⁴²⁾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이 백제에서 다다라(タタラ)라는 명칭으로 일본에 전해진 후 명치시대를 거쳐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현재에도 일본도(日本刀)는 오직 이 제련 기술로만 제작된다고 하며 이들은 사철(沙鐵)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런데 백제의 철지도 또한 사철을 이용한 다다라 기술로 만들어진 검으로 백제에서 일본 왕에게 하사한 물품이다. 왜냐하면 그 명문에 선사이래에 이러한 검이 없었으며 백번을 두드려 만든 것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철기시대 초기에는 운석을 주어서 그 운철(隕鐵)을 이용하여 강철검을 만들었으나 그것이 흔치 않으므로 사철(沙鐵)¹⁴³⁾을 이용하다가 철광석을 채굴하여 강철검을 만들게 되면서 널리 보급되게 되었다. 그런데 철광석(鐵鑛石)을 채취한 후에는 잘게 부수어 비눗물 등을 통한 부유선광법(浮游選鑛法)을 이용하여 가벼운 돌가루는 위에 띄우고 무거운 철가루는 아래로 가라앉혀서 분리를 해내는 선광(選鑛) 작업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사철은 강이나 해변의 모래에 있는 것을 자석(磁石)의 자력을 사용하여 철가루만을 따로 채취할 수 있기에 부유선광과 같은 별도의 선광작업이 불필요하다. 더구나 철광석 중에서 철성분이 많은 부광(富鑛)일 경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철보다도 못한 철함유량이 적은 빈광(貧鑛)일 경우도 있다. 그러하기에 일본도를 만드는 장인들이 사철을 고집¹⁴⁴⁾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결과 사철은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지만 충청도(忠淸道)에서 가장 집중도가 높은 곳이 바로 서산(瑞山:태안 포함)지역인 것을 알았다. 그중에서도 지곡(地谷) 일대로 그중에 쇠팅이 야철지를 중심으로 은부리, 산수골, 화천리, 대요리 무쇠점, 무장리 철장골 등 6개의 야철지가 집중되어 있으며, 쇠팅이, 산수골, 무쇠점 등 3곳의 냇가에서 사철을 채취하였고 도성1리의 서성광산에서는 철광석을 채취할 수 있었다.

이곳은 철지도 명문이나 일본서기의 관련 기록에서 백제 수도에서 서(西)쪽 방향이어야 하고, 7일(七日) 거리에 있어야 하며, 사철(沙鐵)이 나와야하고, 금(金)을 비롯한 비철이 나와야 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거론되어온 황해도 곡산, 전라남도 곡성, 충청북

140) 전라좌수영의 본영에는 沙鐵倉이 4칸이 있었다.(문영구, 앞책, 1992)

141) 惠廳堂上·備局有司堂上·守禦使之任, 竝還爲差下, 使卽上來察任, 何如, 上曰, 依爲之. 出舉條, 又出榻教寅明白, 一武弁罷職, 勿論罪之當否, 元無關緊, 而第全羅右水使盧啓禎, 因御將所達, 以創造鐵碇, 不稟朝廷, 被罪矣. 鐵碇利害, 臣未知之, 而追後聞之, 則全羅左水營, 有鐵碇, 統營戰船, 皆爲鐵碇云. 如此則鐵碇, 非啓禎所創造, 而左水營·統營, 曾無稟報, 則啓禎之獨以此被罪, 未免斑駁, 銓地方以邊倭之難於得人爲慮云. (『承政院日記』 961冊, 英祖 19年 7月 17日 丁酉)

142) 오순제, 「한성백제의 하이테크 기술」, 『위례문화』 제16호, 하남문화원, 2013.

143) 사철은 川砂鐵, 浜砂鐵, 山砂鐵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서산 지곡이나 논산에서 채취한 것은 냇가나 강변에서 나온 川砂鐵이고, 감포나 불음도, 태안 등 해변에서 채취한 것은 浜砂鐵이며, 고남산과 지곡의 광산에서 채취한 것은 山砂鐵에 해당한다.

144) 감포사철이 나오는 곳에 사는 주민의 말에 의하면 일제시대에 자기집 앞마당에 3기의 용광로를 만들어서 일본인들이 쇠를 뽑아서 가져갔는데 왜 이곳에서 철을 가져가느냐고 물어보니 이곳의 철이 충신을 만들는데 가장 좋기 때문이라고 말해주었다고 한다.

도 충주 등이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비해, 이곳만 유일하게 모든 조건들을 완벽히 충족시켜주는 한반도 유일의 장소가 되고 있다. 더구나 이곳에는 황금산, 철궁, 철마 등 철과 관련된 전설¹⁴⁵⁾도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고대로부터 철과 매우 밀접한 지역임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5세기에 백제의 담로로서 서산, 태안지역 전체를 다스렸던 부장리고분이 나타나기 전인 3~4세기에 지곡(地谷)에 있는 명지고분(明智古墳)¹⁴⁶⁾의 주인공이 부성산성을 중심으로 지곡일대의 사철을 관장하고 다스렸던 것으로 이 시기에 칠지도가 제작되었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칠지도가 사철에서 얻은 철로 주조한 후 단조를 거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명지고분에서 나오고 있는 쇠도끼(鐵斧), 철정(鐵錠) 등은 주조품이며 쇠스랑(鐵鋏), 쇠낫(鐵鎌)¹⁴⁷⁾ 등은 칠지도와 같이 주조 후 단조를 거친 것이고 특히 환두대도(環頭大刀)는 강철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¹⁴⁸⁾

특히 지곡면 무장리 부장동에는 “철장골”이라는 지명이 남아있는데 그곳에 야철지가 있었는데 현재는 훼손되어 없어졌다고¹⁴⁹⁾ 한다. 그런데 2000년 발굴에 의해 이곳에서 백제시대의 야철에 쓰였던 숲을 생산했던 백제시대의 탄요(炭窯)가 발굴됨으로써 이곳에 있었던 철장(鐵場)들이 백제시대의 것이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¹⁵⁰⁾

더구나 이곳 무장리의 야철장인(冶鐵匠人)들은 중국의 야철집단인 탁씨(卓氏)와 일본에 파견

145) 「전통민속」, 『대산읍지』, 대산읍지 발간편찬위원회, 2012.

146) 대산반도 지역의 대산읍 명지고분은 1969년 모두 18기의 움무덤(土壙墓)가 확인되었는데 약 15기가 1군을 이루고 있고, 명지마을을 지나서 좌측 경사면에도 3기 정도가 확인되었다. 이 중 제1군에서 2기, 제2군에서 1기 등 모두 3기가 발굴 조사되었다.(김영배·한병삼, 앞글, 1969)

이곳에서는 백제시대의 철정(鐵錠)을 비롯하여 철제환두대도(鐵製環頭大刀), 쇠낫(鐵鎌), 쇠도끼(鐵斧), 쇠스랑(鐵鋏), 토기(土器) 등이 출토되었는데 대부분이 철기유물로 이지역의 야철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 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은 길이 13cm, 양끝의 폭이 13cm.가운데 폭이 9cm의 철정(鐵錠: ingot)으로 이것은 칼, 도끼, 창, 낫, 쇠시랑, 호미 등 모든 철기를 제작할 수 있는 모체(母體)가 될뿐만 아니라 규격화되어 있어서 유통과정에서 화폐로서의 역할도 담당하였던 것이다. 즉 이 지역이 철을 매개로 다른 지역과 교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철광석, 사철 등의 야철(冶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3-4세기의 한성백제시기에 이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야철지들에서 이러한 작업들이 행하여졌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2기의 고분에서 환두대도(環頭大刀)가 나온 것은 그들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다스렸던 강력한 수장(首長)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47) 쇠스랑(鐵鋏)과 쇠낫(鐵鎌)은 일본 오오사카(大阪)의 자금산고분(紫金山古墳)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계통으로 밝혀지고 있다.(앞책, 대산읍지 발간편찬위원회, 2012) 그런데 자금산고분은 고분시대 전기인 4세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곳에서는 갑옷(短甲) 1령(領), 쇠칼(鐵刀), 쇠검(鐵劍), 쇠단도(鐵短刀), 쇠화살촉(鐵鏃), 쇠도끼(鐵斧), 쇠창(鐵鉞), 쇠톱(鐵鋸), 쇠끌(鐵鑿), 쇠새기개(鐵鉞), 쇠송곳(鐵錐), 쇠낫(鐵鎌), 쇠스랑(鐵鋏) 등의 여러 종류의 철기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일본에서 야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6세기부터이므로 이것들은 한반도의 백제지역인 이곳 지곡일대에서 만들어져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148) 일본에서는 사철제련(砂鐵製鍊) 방법에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도검류(刀劍類)를 제작하기 위해 강철(鋼鐵)인 화강(和鋼 또는 玉鋼)을 생산하는 모압법(鋤押法)이 있고, 둘째는 주조품(鑄造品)을 만들기 위한 선철(銑鐵)인 화선(和銑)을 만드는 선압법(銑押法)이 있다. 이 중에서 선철을 탈탄(脫炭), 단련(鍛鍊)으로 정련하여 연철(鍊鐵)인 포정철(庖丁鐵)을 만들어 농기구(農器具) 등을 생산하였다.(倭國一, 『古來の砂鐵製鍊法』, 慶友社, 2007)

일본의 나라현 고분 출토품들을 분석한 결과 발굴된 鐵錠 중에는 2개에서 나온 탄소량은 0.71, 0.77%로 공석강에 가깝고, 8개는 0.054~0.39%로 아공석강이었고, 검·도끼·창 등의 무기류에서는 4개의 탄소량은 0.76, 0.77, 0.87, 1.33%로 공석강이나 과공석강이 나오고 있으며, 27개에서는 0.06~0.67%의 아공석강이었다.(清水欣吾, 『奈良縣下の古墳より出土した鐵刀劍の化學分析』, 『橿原考古學研究所紀要 考古學論巧』 9, 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 1983)

149) 이은우, 앞책, 2005.

150) 앞책,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0.

된 탁소를 이어주는 동일한 탁씨 집단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아울러 이곳에서 채취한 사철(沙鐵)을 분석한 결과 TiO_2 가 0.43%, 0.54%가 나와 과학적으로도 사철(沙鐵)인 것을 완벽히 증명해주고 있다.

[참고문헌]

오순제, 「칠지도의 곡나철산과 한성백제시기 서산지역의 담로」, 『서산의 문화』 24호, 서산향토문화연구회, 2012.

오순제, 「칠지도와 서산시 지곡일대 야철지의 관련성」, 『서산의 문화』 27호, 서산향토문화연구회, 2015.

오순제·한정욱, 『백제 칠지도의 비밀과 전통사철제련, 환두대도의 복원』, 수동예림, 2021.

【제1토론】

<이소노카미신궁(石上神宮) 소장 칠지도(七支刀)의 재고찰과
제작지 연구>

(오순제, 한국고대사연구소 소장)에 대한 토론

노태천(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칠지도에 새겨진 총62자의 새김글(銘文)이나 제작 방법과 제작 장소에 대한 문제는 한일고대사에 있어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명문을 조작했음과 제작 기술과 제작 장소 등을 밝힌 오순제 박사의 논문을 토론하기는 최근 수년간 관련 연구에 전념하지 않은 토론자(노태천)에게 무척 부담되는 일이다.

1. 사철(沙鐵, 砂鐵)로 만들어진 칠지도에 대한 질문

- 칠지도를 복원한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하면, 칠지도는 티탄(Ti)을 포함한 사철(砂鐵)로 주조한 후에 탈탄처리한 가단주철로 제작되었다고 한다. 한중 고대야금기술에 있어서 가단주철은 이미 기원전 3/4세기부터 제작되었음이 밝혀진 바가 있으므로 칠지도를 가단주철로 제작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어떤 집단이 주철을 만들어 가단하여 강철을 만드는 기술을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전파했는지가 과제로 남아있다.

(토론 A): 고대의 가단주철기술이 한중일 어떤 집단이 어떠한

경로로 전파·전달되었는지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2. 칠지도의 제작지인 서산시 지곡에 대한 질문

- 발표자(오순제)는 칠지도를 제작한 장소로 충남서산시 지곡면도성리 쇠팽이 일대로 보고 있다. 토론자도 발표자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토론 B): 고대의 제철제련 과정에서는 원료를 채취한 장소에서 직접 제련하여 주철을 만들고 그곳에서 가단하여 강철제품을 만들거나 주철을 생산하고 이동시켜서 강철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발표자가 주장하는 지곡면도성리 쇠팽이 일대(예: 명지고분에서 출토된 쇠도끼, 철정, 쇠스랑, 쇠낫, 환두대도 등)에서 제철 또는 제련의 흔적(제련로, 제철로, 슬래그, 원료 사철, 제철제련도구 등)의 발견·발굴 상황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3. 서산시지곡면 무장리의 ‘豆毛谷’과 ‘涿水’ 문제

- 발표자는 지곡면 무장리아철지가 있었던 “철장골” 부근의 “涿”이라는 명칭은 진시황 시기에 “탁씨(卓氏)” 집단의 일파가 산둥(山東)에서 배를 타고 서산의 무장리로 건너와 백제 시기까지도 야철집단으로서 백제의 중앙관청 중에서 도부(刀部)에 예속되어 칼, 창 등의 무기를 생산하는 중요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들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탁소(卓素)”라는 자는 칠지도(七支刀) 뿐만 아니라 철정(鐵鋌)을 제작하여 고이왕에게 받쳐 일본의 응신천황에게 하사

하게 하였던 것처럼 사철을 제련하여 백련(강)감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강철을 만드는 기술자였다고 주장했다.

(토론 C): 문헌기록이나 물질적 증거가 부족한 한중일 고대사의 한가지 단면을 추정 또는 미리 예단할 수는 있으나, 단정적으로 주장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이다. 토론자 (노태천)가 검색해본 한가지 자료를 소개한다.

-(탁씨와 야철관련 중국측 검색자료/발췌함) “卓姓出自戰國七雄之一的楚國。楚威王熊商（公元前339年至公元前329年在位）有個兒子叫公子卓。卓的後代有個叫“滑”的人，在楚國任大夫，以先人的名字為姓氏，姓卓，稱卓滑。這就是《戰國策》所說卓姓為“楚大夫卓滑之後”。因楚國都城在郢（今湖北江陵西北紀南城），故卓姓祖根在今湖北。戰國時期，卓姓族人已有遷至今河北省境者。戰國、秦、漢間有大商人卓氏，其祖先為趙國人，秦破趙時被遷到蜀，居於臨邛（今四川邛崃），冶鐵成為巨富，有家僮千人。西漢時，臨邛有卓王孫，也是個大富商。卓王孫的女兒卓文君，善鼓琴，喪夫後寡居在家。辭賦家、成都（今屬四川）人司馬相如過飲於卓氏，以琴心挑之，文君與司馬相如一同逃往成都。因司馬相如家貧，不久，他們又同返臨邛，文君當壚賣酒，相如和傭保雜作。卓王孫深以為恥，分財產給他們，使回成都。他們的故事流行民間，舊小說、戲曲曾取為題材。西漢末有卓茂，南陽宛（今河南南陽）人，平帝時任密縣令，王莽秉政時任京部丞，後因病免職歸家。東漢光武帝劉秀建武元年（25年），被任為太傅，封褒德侯。他和魯恭都以循吏（舊謂遵理守法的官吏）見稱，因之詩文中以卓、魯合稱，作為能吏的典型。

他的長子卓戎，官太中大夫；次子卓崇，官大司農，封汎鄉侯。卓崇的兒子卓琴、孫卓訢等皆襲封爲侯。這說明東漢時期南陽卓氏爲名門望族。三國時吳國有卓恕，居會稽（今浙江紹興），曾到建康（今江蘇南京）作客，可見當時江、浙一帶已有卓氏。

<<https://www.jiapu.tv/x/iskl/135064.html>>

- 전국시대에 탁씨의 일족이 야철업으로 거부가 되었으나, 서한말에 卓茂 일족은 야철업보다는 행정관리에 종사했음이 기록으로 보인다. 卓茂의 후손 중에서 동한시기에 江蘇省이나 南京 등지에서 백제지역으로 이주했을 탁씨 후손들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와 현지 답사하여 찾은 사철지

- 발표자는 백제지역 뿐만 아니라, 신라지역의 사철지에 대해서도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와 여러 문헌을 조사하고 답사하여 제시하고 있다.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는 고고학자 또는 역사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정리하기 어려운 작업을 수행하여 발표했다.

(토론 D): 가능하다면 고구려지역 또는 요하부근이나 산동반도, 황하 동쪽과 동남쪽 등 황해 연안 지역, 그리고 일본열도의 동해쪽과 규슈 서쪽해변 등지에 분포한 사철지도 조사하여 정리하면 한중일고대 사철의 제련과 제철에 대한 종합적 검토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칠지도에 대한 금석학적·고고야금학적 귀한 논문을 발표한 오순제 박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부족한 토론을 마치기로 한다.(2024/3/27/노태천)

제2발표

정종 원년(1399) 등시라로(藤時羅老) 왜구
집단의 투항과 오에이(応永)의 난
—왜구 투항에 관한 ‘조선 조정의 회유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표 : 송중호(독립연구자)

토론 : 조혜란(방송통신대)

【제2주제】

정종 원년(1399) 등시라로(藤時羅老) 왜구 집단 투항과 오에이(応永)의 난 —왜구 투항에 관한 ‘조선 조정의 회유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송 종 호*

- | | |
|---|---|
| I. 머리말
II. 등시라로 왜구 투항 관련 사료 및 선행연구 검토
1. 등시라로 왜구 투항 관련 사료
2. 주류 연구자들의 선행연구 검토
3. 강상운(1966)·다무라 히로유키(1967)의
선행연구 검토 | III. 오에이의 난과 등시라로 왜구 투항
1. 1399년 이전 조선-오우치씨-대마도 간 삼각 관계
2. 1399년 오에이의 난
3. 등시라로 왜구 투항의 배경
IV. 맺음말 |
|---|---|

I. 머리말

한반도에서 1350년(충정왕2) 이래 전개된 왜구 활동은 1386년(우왕12) 이후 진정되기 시작하여 조선초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쇠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쇠퇴 배경에 관하여 현재 한국·일본의 통설적 견해는 ‘조선 조정의 왜구·왜인에 대한 회유책’을 그 주된 요인으로 지목해 왔다.¹⁾

이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 조선 조정의 ‘회유책’의 결실은 태조 말기부터 나타났다고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것이 1396년(태조5) 12월 나가온(羅可溫) 왜구 집단(이하 “나가온 왜구”)의 투항 및 1399년(정종원) 11월 등시라로(藤時羅老)·등망오시라(藤望吾時羅) 왜구 집단(이하 “등시라로 왜구”)의 투항이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이들 왜구 투항 이전에 ‘조선 조정의 회유책’이 시행되었다는 명확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 점과 관련하여, 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석사.

** 본 발표문은 논문의 최종본이 아니며 토론용으로 제한 배포되는 것이므로, 인용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존 통설적 견해에 관해서는, 中村榮孝, 「室町時代の日鮮關係」 『日鮮關係史の研究(上)』, 吉川弘文館, 1965, 163~164쪽(原著 1935); 田中健夫, 「倭寇の変質と日鮮關係の展開」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東京大学出版会, 1959, 14쪽; 李鉉淙, 「朝鮮初期 向化倭人考」 『歴史教育』 4, 1959, 342~343, 345쪽; 田中健夫, 『倭寇と勘合貿易』, 至文堂, 1961, 31쪽; 有井智徳, 「李朝初期向化倭人考」 『村上四郎博士和歌山大学退官記念 朝鮮史論文集』, 開明書院, 1982, 277쪽; 村井章介, 『中世倭人伝』, 岩波新書, 1993, 19쪽(이영 역, 『중세 왜인의 세계』, 소화, 2003, 28~29쪽); 韓文鍾, 「朝鮮前期 對馬島の通交와 對日政策」 『韓日關係史研究』 3, 1995, 127쪽; 河宇鳳,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일본과의 관계」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신편 한국사 22)』, 2002, 375~376쪽; 佐伯弘次, 「中世の三島地域と東アジア」, 佐伯弘次 編, 『街道の日本史49: 壱岐・対馬と松浦半島』, 吉川弘文館, 2006, 97쪽 등 참조.

히 위 나가온 왜구 투항에 관해서 필자는 최근 연구²⁾를 통하여, 이 왜구 투항이 조선 조정의 '회유책'이 아니라, 이키(壺岐)·대마도 정벌군 출정이라는 적극적 군사 조치를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위에 언급된 또 하나의 투항 사건, 즉 1399년 등시라로 왜구 투항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이들은 1399년 9월~10월에 걸쳐 평안도 및 황해도 해안에서 대규모 왜구 활동을 벌였다. 그렇지만 11월 초에 갑자기 투항한다. 이 투항 이전에 이들이 조선 조정 측의 사람들을 만나 회유를 받았다는 기록은 역시 보이지 않는다.

위 나가온 왜구 투항 사건에 조선 조정의 '회유책'이 작용하지 않았던 점이 해명되었으므로, 이 등시라로 왜구 투항 사건은 조선 조정의 '회유책'이 왜구 투항 과정에서 실제로 작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등시라로 왜구 투항의 배경이 명확히 규명되고, 여기에서도 조선 조정의 '회유책'이 작용하지 않았던 점이 명백하다면, 왜구 투항에 관한 기존의 '회유책' 통설은 다시 처음부터 검토되어야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등시라로 왜구 투항의 배경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이하 제2장에서는 등시라로 왜구에 관한 사료 내용 및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등시라로 왜구 투항 배경을 1399년 일본에서 있었던 '오에이(応永)의 난(亂)'과 관련지어 논증하기로 한다.

Ⅱ. 등시라로 왜구 투항 관련 사료 및 선행연구 검토

1. 등시라로 왜구 투항 관련 사료

조선초 한반도에서의 왜구 활동은, 1397년(태조6) 9월 4일 이후 1401년(태종원) 윤3월까지³⁾ 약 3년 6개월 동안 '소강기'로 접어든다.⁴⁾ 이 '소강기' 동안 관련 사료에서 찾을 수 있는 왜구 활동은 오직, 1399년(정종원) 9월부터 10월까지 서북면 및 풍해도에 나타난 것뿐이다.⁵⁾ 9월 10일 왜구는 서북면 전주(宣州)·박주(博州)(평안북도 선천·박천)를 침구해 왔다.⁶⁾ 10월 1일에는 풍해도 웅진(甕津: 황해도 웅진)으로 침입했으며,⁷⁾ 10월 19일에는 풍해도에서 병선 1

2) 송종호, 「조선초 왜구의 퇴조와 조선 조정의 '회유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1396년(태조 5년) 나가온 왜구 집단의 투항과 김사형의 이키·대마도 정벌군 출진 간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 『韓日關係史研究』 78, 2022(이하 “「나가온 왜구 투항」”), 251~297쪽.

3) 『태조실록』 권12, 태조 6년 9월 4일 계축; 『태종실록』 권1, 태종 1년 윤3월 7일 병신; 윤3월 11일 경자.

4) 이 3년 6개월 남짓 동안 한반도에서의 왜구 활동은 소강상태를 보였다가 그 이후 다시 왜구 활동이 활발해지는 각별한 양상을 보인다. 필자는 이에 '소강기'라는 명칭을 붙이고자 한다. 이러한 일시적인 '소강기'의 존재, 그리고 그에 이은 왜구 활동의 부활이라는 현상이 기존 통설, 즉 '조선 조정의 회유책'에 따라, 왜구 활동이 점차 소멸해 간다.'라는 취지의 견해에 대한 하나의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이 '소강기'의 개시 및 종료의 배경에는, 일본 측의 조선·명과의 관계 개선 노력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 시기 '소강기'의 배경 및 양상에 관해서는 별도의 기회에 자세히 논증하기로 한다.

5) 이외에, 1400년(정종2) 상당한 규모의 왜구가 황해도 해주에서 조영무의 군사적 위력에 굴복하여 투항한 사례가 있다(『정종실록』 권4, 정종 2년 4월 1일 병신). 이때에도 왜구 활동이 있었다면 이 역시 이 '소강기'에서의 왜구 활동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향후 별도 기회에 검토하기로 한다.

6) 『정종실록』 권2, 정종 1년 9월 10일 정축. 『정종실록』에서의 날짜 기재는 그 전후 시기보다 그 간격이 크다. 따라서 『정종실록』 상의 날짜에 대한 해석에는 더욱 주의를 요한다.

7) 『정종실록』 권2, 정종 1년 10월 1일 정유.

척을 불태우고 조선 선군(船軍) 50명을 죽였는데, 이 때 왜구는 풍주(豐州; 황해도 송화군) 서촌(西村)에까지 침입했다고 한다.⁸⁾

그런데 11월 8일 왜구들은 갑자기 조선 조정에 투항을 제안해 왔다. 당시 투항의 배경에 관해서 아래 <사료1>을 살펴보자.

<사료1> ㉔왜선 7척이 서북면 선주에 이르러 항복하기를 청하였다. ... 처음에 ㉖왜구가 대명(大明)의 연해 지방을 침략하고 우리 풍해도·서북면 등지에 이르렀는데, ㉔육주목(六州牧) 고의홍(高義弘)이 군사를 일으켜 ㉔삼도의 도적들을 쳐서 섬멸한다는 소문을 듣고, ㉔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마침내 항복하기를 빌었던 것이다. (11월 8일)⁹⁾

위 <사료1>로 볼 때, 조선 조정에 투항을 제안해 온 왜구들은, 먼저 중국에서 침구 활동을 한 후 투항 직전에는 풍해도·서북면에 있었음이 확인된다(㉖구절). 그 직전인 9월·10월에 풍해도 및 서북면 지역에서 왜구 활동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투항을 제안한 왜구들은 9월부터 이 지역에서 왜구 활동을 하던 왜구들과 같은 집단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투항 후 정황에 관해서는 아래 <사료2>에 서술되어 있다.

<사료2> 구륙(仇陸)이 항왜 14명을 데리고 왔다. 구륙 등이 선주에 이르러 ㉑만호(萬戶) 등시라로 등을 보고, ㉑우리나라가 항복한 사람을 아주 후하게 대접한다고 타이르고, 또한 전하의 어질고 위엄스러움을 말하니, 왜인들이 감동하고 기뻐하여 드디어 항복하였다.¹⁰⁾ ... ㉑만호 등망오시라·선주(船主) 피견도로(彼堅都老) 등 60여 명과 잡혀 온 중국인 남녀 21명을 군현에 나누어 거처하게 하였다. (11월 25일)¹¹⁾

위 두 사료를 함께 보면, 투항을 제안한 왜구들은 왜선 7척에 탑승한 규모였고, 등시라로·등망오시라 등 2명 이상의 만호급 두목이 인솔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피견도로(彼堅都老)라는 선주까지 있었던 대규모 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㉑·㉒·㉓구절).

이들의 투항 배경에 관해서는 <사료1> ㉔~㉔구절에 “육주목 고의홍이 삼도의 도적질하는 자들(三島之爲賊者; 이하 ‘삼도지적(三島之賊)’을 쳐서 섬멸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해서 투항했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육주목 고의홍”은 서일본 6개국(國)¹²⁾의 슈고(守護)를 겸하고 있던 오우치 요시히로(大内義弘)를 의미한다. 즉 <사료1>의 취지는, 등시라로 왜구 집단이 오우치 요시히로의 군세가 ‘삼도지적’, 즉 왜구 세력을 토벌한다는 계획을 입수한 후, 그 ‘화’가 자신들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조선 조정에 급히 투항했

8) 『정종실록』 권2, 정종 1년 10월 19일 을묘.

9) 『정종실록』 권2, 정종 1년 11월 8일 갑술. 「倭船七艘, ㉔至西北面宣州請降, 遣降倭仇陸、藤昆招諭之, ... 初, ㉔倭寇侵掠大明沿海之地, 以及我豐海道西北面等處, ㉔及聞其六州牧高義弘起兵㉔擊殲三島之爲賊者, ㉔恐禍及己, 遂乞降.」

10) 위 <사료2> ㉑구절은 기존의 통설적 견해에서 ‘조선 조정의 회유책’의 근거로 자주 인용되어 왔다 (아래 각주 14번, 15번 참조). 그러나 <사료1>에 보듯이, ㉑구절의 시점은 이미 등시라로 왜구 집단이 11월 8일에 조선 조정에 투항을 제안해 온 이후였다. 따라서 ㉑구절은 왜구가 투항을 먼저 제안해 온 배경 설명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1) 『정종실록』 권2, 정종 1년 11월 25일 신묘. 「仇陸以降倭十四人來, 仇陸等至宣州, 見㉑萬戶藤時羅老等, ㉑諭以我國待降附甚厚, 且言殿下仁威, 倭人感悅遂降, ... 將㉑萬戶藤望吾時羅、船主彼堅都老等六十餘人及所虜中國男婦二十一名, 分處郡縣.」

12) 일본 혼슈(本州) 서부의 스오(周防; 야마구치 현 동부)·나가토(長門; 야마구치 현 서부)·이와미(石見; 시마네 현 서부)·이즈미(和泉; 오사카 부 남서부)·기이(紀伊; 와카야마 현, 미에 현 남부) 및 규슈의 부젠(豊前; 후쿠오카 현 동부, 오이타 현 북서부).

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주류 연구자들의 선행연구 검토

위 제1절에서 보았듯이, 등시라로 왜구의 투항은 ‘요시히로의 삼도지적 토벌’ 때문이었다고 『정종실록』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아래 제3절에서 언급하는 두 연구자를 제외하면, 예로부터 현재까지 한국·일본의 주요 연구자들은 거의 모두 이에 관하여 별다른 고찰을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栄孝),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 세키 슈이치(関周一) 등 중세 한일관계사에서의 주요 일본 연구자들은 (필자가 아는 한) 그 저서에서 등시라로 왜구 투항 사건에 관하여 언급한 바가 없다.¹³⁾ 다나카 다케오(田中健夫)(1959), 이현종(1959), 나종우(1992) 등은 등시라로 왜구 투항 사실 자체는 언급하였다. 그러나 ‘요시히로의 삼도지적 토벌’을 취지로 하는 위 사료 내용은 전혀 소개하지 않고, 기존의 ‘조선 조정의 회유책’의 결과로만 그 투항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¹⁴⁾

1970년대 이후를 보자면, <사료1>의 ‘요시히로의 삼도지적 토벌’ 부분을 언급한 연구자로서는 아리이 도모노리(有井智徳)(1982), 한문종(2001), 마츠오 히로키(松尾弘毅)(2007·2009)만이 보인다. 우선 일본의 아리이 도모노리와 마츠오 히로키의 견해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a) 아리이 도모노리(1982): 왜구는 ... 일본 6주목 고의흥이 군사를 일으켜 이를 쳐서 섬멸했다는 일을 들은 후, 삼도의 왜구는 화가 자신들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급기야 투항을 결심하고, 1399년 11월 배 7척에 분승하여 서북면 선주에 이르러 투항을 청했다. 이에 왕은 항왜 구륙과 등곤을 파견하여 이를 초유하게 했다. 구륙등은 선주에 이르러 수괴 등시라로 등과 만나 조선국이 투항자를 후대하는 점을 타이르고, 또한 국왕의 인위(仁威)를 말하자, 왜인은 감격하여 기뻐하면서 드디어 투항했다.¹⁵⁾

(b) 마츠오 히로키(2007·2009): 등시라로 등이 왜선 7척을 이끌고 왜구 활동을 위하여 중국으로 가고 있었는데, 오우치 요시히로가 왜구 토벌의 군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여 조선에 투항했다.¹⁶⁾

위 인용문에 보듯이, 아리이 도모노리와 마츠오 히로키는 등시라로 왜구 투항 사실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위에 언급한 <사료1>·<사료2>를 단순 번역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¹⁷⁾ 이에 대한 상세한 해석이나 평가는 없었다. 따라서 이들 연구자들은 기존 통설, 즉 ‘조선 조정의 회유책’론에 대하여 아무런 비판을 가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음으로 한문종(2001)의 견해를 보자.

13) 中村栄孝, 앞의 책; 村井章介, 『中世倭人伝』; 関周一, 『対馬と倭寇』, 高志書院, 2012 등 참조.

14) 田中健夫,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15쪽(“[회유책의 맥락에서] 1399년 11월에는 왜선 7척이 투항을 청했고”); 李鉉淙, 앞의 논문, 345쪽(“[등시라로 왜구 투항 사료 인용]로써 국왕의 인위와 대우의 두터움을 말하자 안심하고 드디어 투항한 것이라든지 ...”). 羅鐘宇, 「韓國中世對日交涉史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153쪽(“1399년 11월에는 왜선 7척이 평북 선주에 이르러 투항하겠다고 하므로 항왜 구륙을 보내어 초유케 하여 14명을 상경시켜 서반 8품 이하를 수직하고, ...”) 등.

15) 有井智徳, 앞의 논문, 280~281쪽.

16) 松尾弘毅, 「朝鮮前期における向化倭人」 『史淵』 144, 2007, 38쪽; 松尾弘毅, 「中世日朝關係における前期受職人とその変遷」 『전북사학』 35, 2009, 286쪽.

17) 특히 <표1>에서 마츠오 히로키는 “... 중국으로 가고 있었는데,”라고 서술하고 있으나, 이는 <사료1> 원문 취지와 다르다.

향화왜인의 첫 번째 유형은 조선의 왜구 대책 실시로 투항해 온 항왜를 들 수 있다. ... 이러한 유형의 향화왜인으로는 표시라(表時羅), 나가온, ... 구록(庚六), ... 등이 있다. ... 한편, 향화왜인 중에는 왜구 토벌에 불안을 느껴 투항해 온 자들도 있었다. ... 일본에서 규슈의 오우치 요시히로가 왜구를 섬멸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여 조선에 투항하였다. 이때의 항왜는 등시라로·등망·오시라·피견도로 등을 확인할 수 있다.¹⁸⁾

한문종은 위와 같이 항왜들을 “조선의 왜구 대책 실시로 투항해 온 항왜”와 “왜구 토벌에 불안을 느껴 투항해 온 자들”로 나누어 서술하면서, 등시라로 항왜를 후자로 분류하고 있다. <자료1>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등시라로 항왜를 ‘조선 조정의 회유책’이 적용되지 않는 별도 범주의 항왜로 취급했던 것이다. 이 점에서 그는 기존 통설에서의 여타 연구자들보다 한 걸음 진전된 모습을 보인다. 다만 그의 연구도 ‘요시히로의 삼도지적 토벌’의 구체적 의미를 규명하는 상세한 고찰에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다.

요컨대, 등시라로 왜구 집단은 조선초 항왜 중에서 나갔던 왜구에 버금가는 대규모 집단이었고, 그 투항 배경도 ‘요시히로의 삼도지적 토벌’이라고 명확히 사료에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기존 통설, 즉 ‘조선 조정의 회유책’론과 일견 충돌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 한문종을 제외하고는) 중세 한일관계사의 주요 연구자들은 모두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등시라로 왜구 투항 사건에 관심을 두지 않아 왔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등시라로 왜구 투항의 실제 배경을 규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3. 강상운(1966)·다무라 히로유키(1967)의 선행연구 검토

등시라로 왜구 투항에 관하여 진지한 검토를 한 선행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찍이 1960년대에 강상운(1966) 및 다무라 히로유키(田村洋幸)(1967)의 연구가 있었다. 이 두 연구는 참고할 바가 크므로,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강상운(1966)의 견해를 먼저 본다. 그의 견해가 서술된 내용이 다소 길므로, 본문에서는 그 요지만 서술하고 원문 내용은 각주로 돌린다.

- ① 오우치 요시히로의 왜구 토벌은, 실제로는 1397년부터 규슈(九州)에서 펼쳐진 오우치씨 측과 쇼니씨(少弐氏)·기쿠치씨(菊池氏) 간 전쟁이었을 것이다. 오우치씨의 규슈 토벌과 왜구 토벌은 일맥상통한다.
- ② 등시라로 왜구가, 오우치 요시히로가 규슈 호족과 함께 왜구까지 토벌한다는 소문을 듣고 조선에 투항한 점을 보면, 쇼니씨·기쿠치씨는 왜구와 관련이 있었던 모양이다.
- ③ 쇼니씨 등이 오우치씨에 의하여 소탕당하면, 왜구들은 그 은신처가 없어지게 되므로 조선 조정에 투항한 것 같다.¹⁹⁾

18) 한문종, 『조선전기 향화 수직왜인연구』, 국학자료원, 2001, 58쪽; 한문종, 「조선전기 일본인의 向化와 정착」 『동양학』 68, 2017, 157쪽. <자료2>의 “등망오시라”에 관하여, 한문종은 이를 ‘등망’과 ‘오시라’ 등 2사람으로 파악하고 있다. 참고로 다무라 히로유키 등 여타 연구자들은 ‘등망오시라’를 한 사람으로 파악하여 왔다(田村洋幸, 앞의 책, 67쪽 등 참조). ‘등망오시라’라는 이름은 그 성을 「藤(도, 후지)」 또는 「藤原(후지와라)」, 이름을 「孫四郎(마고시로)」 또는 「孫次郎(마고지로)」로 풀 수 있으므로(「孫四郎」에 관해서는, 趙垞熙, 「『朝鮮王朝實錄』に見られる日本人名の音譯表記法に関する研究(1)」 『일어일문학』 91, 2021, 215쪽 등 참조), 필자도 이를 한 사람으로 본다.

19) 姜尙雲, 「麗末鮮初の韓·日關係史論 -韓國과 日本의 今川·大内 兩諸侯와의 關係-」 『國際法學會論叢』 11(1), 1966, 28~29쪽.

위 강상운의 견해는 비록 추측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듯 보이지만, 1399년 등시라로 왜구 토벌의 배경은 물론, 고려말-조선초 왜구 주제 논의에서도 여러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첫째, 위 요약문 ①번에 보듯이, 그는 ‘오우치 요시히로의 삼도지적 토벌’이 실제로는 오우치씨의 북규슈에서의 전쟁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한반도에서 등시라로 왜구가 투항한 사건이 일본 북규슈에서의 전쟁 상황과 연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필자도 동감이며, 이에 관해서는 제3장에서 상세히 살펴본다.

둘째, 위 요약문 ②번 및 ③번에 보듯이, 그는 고려말-조선초 왜구의 실체와 관련해서 쇼니씨(少弐氏)·기쿠치씨(菊池氏)를 지목하고 있다. 그는 『정종실록』의 사료만을 기반으로 하여 이러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는 탁견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그의 추측은, 왜구가 절정기에 있었던 고려말 시기 한국·일본 사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영의 연구²⁰⁾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논증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위 요약문 ③번에 보듯이, 그는 왜구들의 투항 배경을 그들의 은신처, 즉 본거지에 대한 위협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점 역시 ‘요시히로의 삼도지적 토벌’이라는 상황을 단순히 전투에서의 승패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왜구의 본거지 및 세력권의 약화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역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상운은 등시라로 왜구 투항에 관한 『정종실록』의 사료, 즉 <사료1>을 정확히 인용하면서 그 사료 속에 나온 ‘요시히로의 삼도지적 토벌’에 관하여 여러 시사점을 주고 있다. 다만 1399년 11월 시점에서 오우치씨의 어떠한 활동이 등시라로 왜구 투항을 이끌어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여 주지 못했던 점은 아쉽다.

다음으로 비슷한 시기에 제기된 다무라 히로유키(1967)의 견해를 본다.

②[<사료1> 및 <사료2>를 요약 설명한 후] ⑥[1399년 5월 오우치 요시히로가 왜구 토벌 공적

“①이조실록에 “... 대장군[막부 쇼군]이 대내전(大内殿)[오우치 요시히로]으로 하여금 군사를 더하여 나가서 공격하게 하니, 적이 무기와 갑옷을 버리고 모두 나와서 항복하였다.”라는 기록은 왜구를 진압하는 기사가 아니라 규슈(九州) 토벌 이야기라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에 의하면 오에이(応永) 4년(1397) 9월에 히고(肥後)의 기쿠치 다케토모(菊池武朝)[가] 치쿠젠(筑前)의 쇼니 사다요리(少弐貞頼)와 공모하여 반란을 일으켰는데, ... 오우치 요시히로는 [그 동생] 미츠히로(満弘)로 하여금 토벌케 했으나 전사했으므로 요시히로가 친히 이를 격퇴한 일이 있다. 이 사실과 [앞에 쓴] 실록 기록이 부합되는 점이 있다. ...

당시 왜구와, 규슈[에서] 반기를 든 호족들과 약간의 관계가 있었으므로, 규슈 토벌과 왜구 소탕을 위한 병졸 동원은 일기상통(一氣相通)하는 그 무엇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②즉 [등시라로 왜구 투항에 관한 위 <사료1>을 인용한 후] 이렇게 명나라 연해와 우리나라 연해를 침범하던 왜구들이 오우치 요시히로 병(兵)이 삼도지적자(三島之賊者), 즉 규슈의 반란 호족과 더불어 왜구까지도 격섬(擊殲; 공격해 섬멸함)한다는 소리를 듣고 미리 겁이 나서 우리나라에 투항한 것을 보면, 규슈 토벌 기쿠치(菊池)·쇼니(少弐) 등의 제족(諸族)과 소위 왜구와의 관계도 전혀 없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③왜구들로 말하면 자기들을 감싸 주던 규슈의 몇몇 사족들이 오우치 군에 의하여 소탕당하고 나면 은신할 곳이 없는지라 부득이 우리나라에 와서 항복하게 된 것 같다.” (인용문 내의 원문자 번호들은 위 본문에서의 요약문과 대응되도록,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20) 이영, 「『경신년 이후의 왜구』와 내란기의 일본 사회」 『왜구와 고려·일본 관계사』, 해안, 2011, 126~205쪽(원저: 李領, 「<庚寅年以降の倭寇>と内乱期の日本社会」 『倭寇と日麗關係史』, 東京大学出版会, 1999, 119~192쪽); 이영, 「<경신년(1380) 왜구=기쿠치씨(菊池氏)> 설에 관한 한 고찰 - 무력의 특징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35, 2012, 5~40쪽; 이영, 「여말-선초 왜구(倭寇)의 배후 세력으로서의 쇼니씨(少弐氏)」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3(이하 “『왜구 배후 쇼니씨』”), 161~182쪽, 이영, 『왜구, 고려로 번진 일본의 내란』, 보고서, 2020, 123~255쪽 등 참조.

을 조선 조정에 알려진 것은, 1396년~1398년 기간 동안 오우치씨가 쇼니씨·기쿠치씨에 대한 토벌에 나섰던 사실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 ㉔의 영향은 중국·조선에 침입한 왜구에까지 미쳐서, 중국을 약탈한 왜구가 오우치 요시히로의 토벌을 전해 듣고 조선에 투항했다고 한다.²¹⁾

다무라 히로유키도 강상운과 마찬가지로, <사료1>을 명확히 인용하면서 등시라로 왜구가 ‘요시히로의 삼도지적 토벌’ 소식을 듣고 조선 조정에 투항했던 점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㉔ 문장). 또한 (역시 강상운과 마찬가지로) 1396~1398년 시기 동안 오우치 요시히로의 왜구 토벌이, 실제로는 북규슈에서 쇼니씨·기쿠치씨와 전쟁을 벌였던 것을 의미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㉔ 문장). 다만 다무라 히로유키의 연구도 강상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분석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는 등시라로의 투항 배경에 관하여, 등시라로 왜구가 중국에서 약탈행위를 하면서 오우치씨의 토벌 활동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라고 서술했다(㉔ 문장). 그러나 이는 시간적 흐름을 생각할 때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생각해 보면 ‘요시히로의 삼도지적 토벌’, 즉 쇼니씨·기쿠치씨에 대한 전쟁은 관련 사료에 근거할 때 (늦어도) 1397년부터 시작되어 있었다. 즉 등시라로 왜구가 한반도 서해안에서 왜구 활동을 시작한 시점(1399년 9월~10월)에는 이미²²⁾ 오우치씨의 ‘삼도지적 토벌’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셈이 된다. 따라서 오우치씨의 북규슈 내 토벌 활동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등시라로 왜구가 한반도에서 침구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다가 1399년 11월에 갑자기 조선에 투항해 온 점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치 않다. 더욱이 등시라로 왜구가 위치한 곳은 평안도 연안이었는데, 이곳은 오우치씨가 전투를 수행하던 일본 규슈와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등시라로 왜구가 어떻게 위협을 느꼈다는 것인지 그 배경도 따로 해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무라의 견해는 등시라로 왜구 투항의 배경을 규명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본 제2장에서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등시라로 왜구 투항 사건에 관해서는 1960년대에 강상운과 다무라 히로유키의 본격적인 연구들이 있었다. 이 두 연구는 『정종실록』에 언급된 ‘요시히로의 삼도지적 토벌’의 의미를 북규슈에서 오우치씨와 쇼니씨 간 전쟁 상황과 연관 짓고, 그로부터 등시라로 왜구 투항의 배경을 규명하려 노력하였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그 이후 한국·일본의 연구자들은 심층적인 연구로 나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직접적인 사료 내용도 제대로 언급하지 않은 채, 그 투항 배경에 관하여 이를 ‘조선 조정의 회유책’이었다고 단정했다. 그 결과 기존 통설로서는 등시라로 왜구가 무슨 연유로 투항했는지에 대해서 적절한 해답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등시라로 왜구 투항에 관하여 서술한 <사료1>, <사료2>의 내용을 충실히 검토하고, 강상운·다무라 히로유키의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참고할 것이다. 나아가 이들 두 연구에서의 시사점은 수용하면서, 두 연구가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던 ‘요시히로의 삼도지적 토벌’의 구체적인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등시라로 왜구 투항 배경의 진정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Ⅲ. 오에이의 난과 등시라로 왜구 투항

21) 田村洋幸, 앞의 책, 362~363쪽 참조.

22) 설령 등시라로 왜구가 중국을 침구하였다는 점을 고려해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에서의 침구 활동에 대략 1년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더라도 그 출발은 1398년 무렵이 된다. 이때에는 이미 오우치씨 측과 쇼니씨·기쿠치씨 측 사이에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였다.

등시라로 왜구는 중국에서의 침구를 마치고 1399년(정종원·오에이(応永)6) 9월 평안도 연안에서 침구 활동을 하다가 11월 초에 급히 투항해 왔다. 그 이유는 오우치 요시히로가 “군사를 일으켜 삼도지적을 섬멸한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등시라로 왜구는 ‘요시히로의 삼도지적 토벌’에 관한 소문을 언제 들었을까? 조선 조정에 투항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정보를 입수한 상태에서는, 조선에서 침구 활동을 개시하거나 지속했을 리 없다. 따라서 사료에 나타난 이들의 마지막 왜구 활동 날짜인 1399년 10월 19일 이후²³⁾에서야, 이들은 ‘요시히로의 삼도지적 토벌’ 관련 소문 내지 첩보를 입수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등시라로 왜구가 그 침구 활동을 중지하고 본거지로 귀환하는 정도로는 해결될 수 없고, 조선 조정에 급히 투항해야만 할 정도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이어야 한다. 또한 그것은 시기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1399년 10월~11월 시점에서 등시라로 왜구 또는 그들의 본거지인 대마도²⁴⁾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갖는 위협이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들을 고려할 때, 1399년 10월~11월 무렵에 오우치 요시히로가 벌였던 일은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일본 중세사에서 유명한 ‘오에이의 난’이다. 이것은 서일본의 유력 다이묘(大名)였던 오우치 요시히로가 일본 막부 최고 권력자인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満)²⁵⁾를 상대로 일으켰던 모반 사건이다. 일본 본토에서 일어난 모반 사건이 어떻게 평안도 연안에 있던 왜구 투항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일까?

본 제3장 제1절에서는 우선 1399년 이전 조선-오우치씨-대마도 간 삼각 관계를 정리하고, 제2절에서는 오에이의 난을 살펴본 후, 제3절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등시라로 왜구 투항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에 관해 고찰하기로 한다.

1. 1399년 이전 조선-오우치씨-대마도 간 삼각 관계

가. 조선과 오우치씨 간 관계

고려-오우치씨 간 통교 관계는, 1379년(우왕5) 오우치 요시히로가 왜구 토벌을 위해 박거사(朴居士) 및 군사 186명을 고려로 파견했던 일로 시작되었다.²⁶⁾ 그러나 박거사 파견 이후

23) 『정종실록』 권2, 정종 1년 10월 19일 을묘. 『정종실록』의 날짜는 왜구 침구 사건이 서울의 조정에 보고된 때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등시라로 왜구가 위 정보를 입수한 시기는 10월 19일보다 약간 빨랐을 가능성도 있다.

24) 등시라로 왜구의 본거지 및 출신에 관해서는 아래 제3장 제3절 가.항을 참조하시오.

25) 요시미츠는 1369년 무로마치 막부 제3대 쇼군이 되었다가, 1395년 쇼군직을 아들 요시모치(義持)에게 물려주었다. 그러나 같은 해에 일본 조정의 최고 관직인 태정대신(太政大臣)에 올랐고, 막부 내의 최고 권력은 사망 시까지 그대로 장악하였다.

26) 『고려사』 권133, 열전 권 46, 우왕 4년 10월; 권134, 열전 권47, 우왕 5년 5월; 권114, 열전 권27, 제신, 하을지. 가와조에 쇼지 등은, 고려 사신 한국주가 이마가와 료순에게 파견되었다가 오우치 요시히로의 왜구 정벌군과 함께 귀국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요시히로의 왜구 정벌군 파견의 배경에 이마가와 료순의 지시 또는 상호 협의가 있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川添昭二, 『對外關係の史的展開』, 文献出版, 1996, 169쪽; 橋本 雄, 「対明·対朝鮮貿易と室町幕府一守護体制」,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編, 『日本の對外關係4: 倭寇と「日本国王」』, 吉川弘文館, 2010, 110쪽; 須田牧子, 「大内氏の対朝關係の変遷」 『中世日朝關係と大内氏』, 東京大学出版会, 2011, 48~51쪽; 松岡久人, 『大内義弘』, 戎光祥出版, 2013, 125쪽 등 참조). 이 시기 이마가와 료순과 오우치 요시히로의 협력 관계에 관하여는, 송중호, 「고려말-조선초 대마도와의 통교 공백기(1369~1397)의 배경 및 양상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의 대마도에 대한 영향력을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82, 2023(이하 “통교공백기”), 79~80쪽을 참조하시오.

오우치 요시히로는 1395년(태조4) 규슈 단다이(九州探題) 이마가와 료슌(今川了俊)의 실각 때까지 고려·조선 조정과 통교 관계에 나선 바 없었다.²⁷⁾ 여기에는 당시 고려·조선과의 통교를 독점하던 이마가와 료슌의 영향력이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한다.²⁸⁾ 료슌은 1395년 윤7월 실각했으므로, 오우치 요시히로는 그 직후인 그해 12월 조선에 사신을 다시 보내온 것을 비롯해 매년 1회 이상 꾸준히 조선 조정에 사자를 파견했다. 그리고 오우치씨는 기회 되는 대로 왜구 금압 의지를 조선 조정에 천명했다.²⁹⁾

그러던 중 1397년(태조6) 12월 일본에 파견되었다가³⁰⁾ 1399년 5월에 조선으로 귀국한 통신관 박돈지(朴惇之)를 통하여, 오우치 요시히로는 왜구 토벌 승전보를 조선 조정에 알려 왔다(<사료3>). 요시히로는 그로부터 2개월 후인 7월에 이 왜구 토벌 공적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백제 후손이라는 점을 인정해 주고, 또한 토전(土田)을 하사해 달라고 조선 조정에 요청한다(<사료4>). 그 관련 사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료3> ④처음에 삼도 왜구(三島倭寇)가 우리나라의 우환이 된 지 거의 50년이 되었다. 무인년[1398]³¹⁾에 태상왕[태조]이 명하여 박돈지를 일본에 사신으로 보냈는데, 박돈지가 명령을 받고 일본에 이르러 대장군[아시카가 요시미츠]에게 말하였었다. “우리 임금께서 신에게 명하기를, ‘... 대장군이 정예 군사와 엄한 호령으로 어찌 ⑤삼도 도적(三島之賊)을 제압하여 이웃 나라의 수치를 씻지 못하겠는가? 대장군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셨습니다.”

⑥대장군이 흔쾌하게 명령을 듣고 “제가 그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라 말하고, 곧 군사를 보내어 토벌하게 하였으나, 적과 싸워 여섯 달이 되어도 이기지 못하였다. ⑥대장군이 대내전(大內殿) 오우치 요시히로이로 하여금 군사를 더하여 나가서 공격하게 하니, 적이 무기와 갑옷을 버리고 모두 나와서 항복하였다. (5월 16일)³²⁾

<사료4> ... ⑦요시히로가 규슈를 쳐서 이기고, 사자를 보내어 방물(方物)을 바치면서 또 그 공을 아뢰었다. 임금이 요시히로에게 토전(土田)을 하사하고자 하다가 ... 그만두었다.

⑧요시히로가 청하기를, “저는 백제 후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저의 세계(世系)와 저의 성씨를 알지 못하니, 갖추어 써서 주시기를 청합니다.”라 하였고, 또한 백제의 토전을 청하였다. ... 박석명(朴錫命) 등이 상소하였다. “... 요시히로가 ⑨도적들을 토벌한 공적이 있고, ...” 문하부 낭사 등이 또 아뢰었다. “... 지금 요시히로가 ⑩도적들을 토벌한 공적을 내세우고 각별히 백제의 후손이라 일컫는다고 해서 토전을 주면, 후세 쟁란의 실마리가 이로부터 비롯될까 두렵습니다. ...” (7월 10일)³³⁾

27) 田中健夫, 「朝鮮との通交關係の成立」 『中世對外關係史』, 東京大学出版会, 1975, 101쪽 등 참조.
 28) 송종호, 「통교공백기」, 79~81쪽 참조.
 29) 『태조실록』 권8, 태조 4년 12월 16일 을사; 권9, 태조 5년 3월 29일 병술; 권12, 태조 6년 7월 25일 갑술; 11월 14일 임술 등 참조.
 30) 『태조실록』 권12, 태조 6년 12월 25일 계묘. 1397년 12월 조선 조정의 파견 명령이 있었지만, 박돈지의 묘지(墓誌)에 의하면 그가 실제로 부산 동래에서 일본으로 출발한 것은 1398년(태조7) 3월이었다(李行, 『騎牛集』 권1, 墓誌, 「正憲太夫 檢校參贊 議政府事 朴惇之 墓誌」, 「... 戊寅三月, 發東萊, 海雲浦開帆. ...」; 須田牧子, 앞의 책, 56쪽 참조).
 31) 위 각주 30번 참조.
 32) 『정종실록』 권1, 정종 1년 5월 16일 을유. 「①初, 三島倭寇爲我國患, 幾五十年矣. 歲戊寅, 太上王命惇之, 使于日本. 惇之受命至日本, 與大將軍言曰: “吾王命臣曰: ‘... 大將軍以兵甲之精, 號令之嚴, ②豈不能制三島之賊, 以雪隣國之恥! 惟大將軍以爲如何?’” ③大將軍欣然聞命曰: “我能制之.” 卽遣兵討之, 與賊戰六月未克. ④大將軍令大內殿加兵進攻之, 賊棄兵擲甲, 舉衆出降.」
 33) 『정종실록』 권2, 정종 1년 7월 10일 무인. 「... ⑤義弘伐九州克之, 遣使來獻方物, 且言其功. 上欲賜義弘土田, ... 乃止. ⑥義弘請云: “我是百濟之後也. 日本國人不知吾之世系與吾姓氏, 請具書賜之.” 又請百濟土田. ... 朴錫命等上疏曰: ... 今以六州牧義弘, 有⑦討賊之功, ... 門下府郎舍等又上言: “... 今以義弘⑧討賊之功, 特稱百濟之後, 錫之土田, 竊恐後世爭亂之端, 兆於此矣. ...”」

위 제2장 제3절의 강상운 및 다무라 히로유키의 견해에서 보았듯이, <사료3> ㉞·㉟·㊱ 구절에서 조선이 일본 막부에게 요구하여 이루어졌던 오우치 요시히로의 ‘삼도지적(三島之賊)’ 토벌은, <사료4> ㉟구절에서 “규슈를 쳐서 이기고(伐九州克之)”라 표현된 대로 이 시기 북규슈에서의 분쟁과 관련 있다. 이를 더 살펴보자.

이마가와 료슌이 실각한 이듬해인 1396년(오에이3) 4월, 막부가 임명한 새로운 규슈 단다이 시부카와 미츠요리(渋川満頼)가 규슈로 내려왔다. 그러자 이 지역 토착 세력인 쇼니 사다요리(少弐貞頼)와 기쿠치 다케토모(菊池武朝) 등이 이에 반기를 들고 봉기했다.³⁴⁾ 그 이후 북규슈 도처에서, 신임 단다이 시부카와 미츠요리 및 그를 지원하는 오우치 요시히로·오토모 치카요(大友親世) 측과, 예전에 이마가와 료슌을 지지했던 쇼니 사다요리·기쿠치 다케토모 측 사이에 전투가 이어진다.³⁵⁾

이러한 상황에서 1398년(오에이5) 윤4월에 막부의 최고 권력자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쇼니 사다요리를 토벌하라는 미교쇼(御教書)³⁶⁾를 발령했고,³⁷⁾ 오우치 요시히로는 10월 16일 드디어 스스로 규슈로 내려가 쇼니씨·기쿠치씨 군을 격파했다.³⁸⁾

일본의 당시 사료에 의하면, 이 기간 무렵 오우치씨는 7월에 “친제이[규슈] 전투 승리(鎮西合戦勝利)”를 교토에 보고했던 바 있고,³⁹⁾ 11월에 “금번 규슈 전투 승리(今度九州御合戦御勝利)”를 축하했던 바 있다.⁴⁰⁾ 한편 『조선왕조실록』 <사료3>에서는 ‘일본 막부가 나섰지만 6개월이 되도록 승리하지 못하고, 오우치 요시히로가 나서자 적들이 항복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㉟·㊱구절). 막부가 나선 것은 1398년 윤4월의 미교쇼와 연결되고, 오우치씨의 승전은 그로부터 6개월 남짓이 지난 그해 11월의 “금번 규슈 전투 승리”로 연결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료3>에서 오우치 요시히로가 조선 사신 박돈지에게 ‘삼도지적 토벌’의 실적으로 알렸던 것은 바로, 관련 사료에서 1398년 11월 “금번 규슈 전투 승리”로 기록된 쇼니씨에 대한 승전이라 볼 수 있다.⁴¹⁾

34) 쇼니씨·기쿠치씨 봉기 시기에 관하여, 기존의 다수 견해는 이를 1397년으로 보아 왔다(姜尙雲, 앞의 논문, 28쪽; 本田美穂, 「室町時代における少弐氏の動向 一貞頼・満貞期一」 『九州史学』 91, 1988, 29쪽; 이영, 「왜구 배후 쇼니씨」, 175쪽; 平瀬直樹, 『大内義弘』, ミネルヴァ書房, 2017, 144쪽; 荒木和憲, 『対馬宗氏の中世史』, 吉川弘文館, 2017, 43쪽 등). 이에 대하여 그 시기를 1396년 말 무렵으로 본 연구자들도 있었다(田村洋幸, 앞의 책, 363쪽; 松岡久人, 『大内義弘』, 137~138쪽 등). 이러한 견해 대립과 관련하여 최근 호리카와 야스후미는 통설적 견해인 1397년 설의 근거가 된 요시히로 조운(吉弘紹曇) 서장(書狀)(연도 미상 3월 20일자)의 작성 연도를 1397년이 아닌 1395년으로 봄으로써, 통설적 견해인 1397년 설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호리카와 등의 새로운 견해에 의하면, 쇼니씨·기쿠치씨 봉기 연도는 신임 단다이가 부임했던 1396년으로 보는 쪽이 더욱 타당하다(堀川康史, 「今川了俊の京都召還」 『古文書研究』 87, 2019, 95~98쪽; 荒木和憲, 「室町期北部九州政治史の展開と特質」 『日本史研究』 712, 2021, 5쪽 참조).

35) 堀川康史, 앞의 논문, 96~97쪽; 荒木和憲, 「室町期北部九州政治史の展開と特質」, 5쪽 등 참조.

36) 일본 중세에, 3위 이상 공경의 가신, 막부의 식켄(執權) 또는 렌쇼(連署)가 주군 또는 쇼군의 명을 받들어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특히 가마쿠라 시대로부터 쇼군 가의 미교쇼는 권위를 갖고 있었다. (『角川日本史辞典』)

37) 「綾部家文書」 渋川満頼施行状 応永五年四月二十一日 (本田美穂, 앞의 논문, 29쪽에서 재인용); 같은 논문, 29쪽; 荒木和憲, 「室町期北部九州政治史の展開と特質」, 5쪽 등.

38) 「迎陽記」 応永五年十月十六日 (『大日本史料』 7編 3冊. 応永五年十月十六日条, 559쪽); 이영, 「왜구 배후 쇼니씨」, 175쪽.

39) 「兼教朝臣記」 応永五年七月十日 (荒木和憲, 「室町期北部九州政治史の展開と特質」, 5쪽, 21쪽 각주 17번에서 재인용).

40) 「住吉神社文書」 応永五年十一月三十日 大内氏奉行人連署奉書 (荒木和憲, 「室町期北部九州政治史の展開と特質」, 5쪽, 21쪽 각주 17번에서 재인용).

41) 이영(2013)은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1398년 8월에 오우치 요시히로에게 보낸 문서(足利義滿書 大内

쇼니씨는 고려말 이래로 왜구 주체 세력이었다.⁴²⁾ 이러한 점에서 『조선왕조실록』이 ‘삼도 왜구’ 문제(<사료3> ㉔구절)와 오우치씨의 쇼니씨에 대한 ‘삼도지적 토벌’(<사료3> ㉕·㉖구절)을 연관지어 서술하고 있는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조선 조정의 군신 모두가 위와 같은 점에서, 오우치씨의 쇼니씨 토벌이 왜구 토벌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사료4> ㉗·㉘·㉙구절).⁴³⁾ 따라서 이 사건을 계기로 오우치 요시히로는 조선 조정으로부터 더욱 큰 신임을 얻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 조정과 일본 막부 간의 통교를 중재하는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⁴⁴⁾

1399년 7월 10일에 오우치 요시히로는 위와 같은 규슈 토벌의 공을 내세우면서 조선 조정에 대하여, 그가 백제의 후손이라는 점을 인정해 주고, 또한 토전을 하사해 달라고 요청한다(<사료4> ㉚·㉛구절).⁴⁵⁾ 이러한 그의 요청은 결국 거부되었지만, 이때 조선 국왕과 신하들이 이를 깊이 논의하면서 고민했던 점만 보아도, 1399년 당시 조선 조정의 오우치 요시히로에 대한 신임의 정도가, 예전의 이마가와 료슌에 대한 신임 이상의 것이 되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나. 조선과 대마도 간 관계

고려-대마도 간 통교 관계는 1368년(공민왕17) 제4대 대마도주 소 츠네시게(宗經茂)의 사자가 고려 조정에 입조함으로써 수립된 바 있었다.⁴⁶⁾ 그러나 대마도는 이듬해인 1369년(공민왕18) 이를 파기했고,⁴⁷⁾ 조선 건국 이후인 1397년(태조6)까지 약 30년 동안 고려·조선과 대마도 간에는 통교 관계가 없는 ‘통교 공백기’ 상태가 지속되었다.⁴⁸⁾

통교 공백기 중이던 1389년(창왕원) 고려 박위의 대마도 정벌을 계기로 하여, 왜구의 한반도 침구는 수년 동안 소강상태로 접어들다.⁴⁹⁾ 이로써 이성계를 비롯한 장차 조선 건국 세력은 대마도 정벌이 왜구 활동을 일시적으로나마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1392년(태조원) 조선 건국 이후 왜구들의 한반도 침구는 다시 빈번히 일어나는 모습으로 보였으므로,⁵⁰⁾ 조선 조정은 해마다 대마도 재정벌을 검토했는데, 그 관련 사료는 다음과 같다.

義弘充 応永五年八月日(田中健夫 編, 『善隣國寶記·新訂統善隣國寶記』, 集英社, 1995, 106~107쪽)를 근거로 하여, 요시히로의 ‘삼도지적 토벌’을 1398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루어진 승리로 보았던 바 있다(이영, 『왜구 배후 쇼니씨』, 173~176쪽 참조).

42) 같은 논문, 161~182쪽 등 참조.

43) 같은 논문, 176~177쪽 참조. 이와 반대로, 오우치씨의 위 북규슈 전투가 실제로는 박돈지가 요청한 왜구 진압과는 무관했지만, 요시히로가 이를 이용하여 조선의 환심을 사려 했다거나(中村榮孝, 앞의 책, 151쪽; 姜尙雲, 앞의 논문, 28~29쪽 등 참조), 박돈지가 스스로 왜구 진압으로 이해했던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須田牧子, 앞의 책, 59쪽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는 당시 왜구가 쇼니씨·기쿠치씨 등 규슈 남조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44) 中村榮孝, 앞의 책, 151쪽; 田中健夫, 『中世對外關係史』, 106쪽; 橋本 雄, 앞의 논문, 110쪽; 関 周一, 「『中華』の再建と南北朝内乱」,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編, 『日本の對外關係4: 倭寇と『日本国王』』, 吉川弘文館, 2010, 102쪽; 須田牧子, 앞의 책, 60쪽; 松岡久人, 『大内義弘』, 143쪽; 伊藤幸司, 「大内氏のアジア外交」, 大内氏歴史文化研究会 編, 『大内氏の世界をさぐる』, 勉誠出版社, 2019, 29쪽 등 참조.

45) 『정종실록』 권2, 정종 1년 7월 10일 무인.

46) 『고려사』 권41, 공민왕 17년 7월 11일 기묘; 11월 9일 병오.

47) 『고려사』 권41, 공민왕 18년 7월 9일 신축; 11월 1일 임진; 11월 27일 무오 등 참조; 송종호, 『통교공백기』, 72~73쪽 참조.

48) 고려·조선-대마도 간 통교 공백기에 관해서는, 송종호, 『통교공백기』, 69~90쪽을 참조하십시오.

49) 한반도에의 왜구 침구 빈도는, 박위의 대마도 정벌 직전 해인 1388년에 27회였는데, 그 이후 1389년 12회, 1390년 9회, 1391년 1회, 1392년 2회로 소강상태를 보였다(이영, 『왜구, 고려로 번진 일본의 내란』, 156쪽).

<사료5> [왜구를 금압하겠다는 이마가와 료순의 서한에 대한 조선 조정의 답서에서] 근래에 본국의 수군 장수들이 여러 번 해적을 사로잡고 ㉔주사(舟師: 수군)를 이끌고 가서 잔당을 쳐서 잡자고 하므로, 조정이 의논하여 장차 이를 허락하려던 차에 마침 ㉕그대[료순]의 말씀을 보고 중지했다. ... (태조 3년(1394) 10월 11일)⁵¹⁾

<사료6> [이마가와 료순이 서한을 통하여 이키·대마도의 도적에 대하여 언급한 데 이어] 만약 ㉖또 관군 장수들에게 따로 다른 방도를 내게 한다면 통호(通好)하는 길이 끊어질까 염려됩니다. ... ㉗제가 서툰 계책이나마 쓰도록 맡겨 주시면, 반드시 <왜구들이> 모두 없어져 두 나라의 정이 마땅히 좋아질 것입니다. (태조 4년(1395) 7월 10일)⁵²⁾

<사료7> [김사형의 이키·대마도 정벌군의 출정을 전송하면서, 국왕의 교서에서] 이제 하찮은 섬 오랑개가 감히 날뛰어 우리 변방을 침노한 지가 3, 4차에 이르러서, 이미 장수들을 보내어 나가서 방비하게 하고 있다. ㉘그러나 크게 군사를 일으켜서 수록으로 함께 공격하여 일거에 섬멸하지 않고는 변경이 편안할 때가 없을 것이다. (태조 5년(1396) 12월 3일)⁵³⁾

<사료8> [조선 조정이 오우치 요시히로에게 회신한 문서에서, 이키·대마도 주민의 왜구 활동을 비난한 후] 그러므로 우리 수군 장수들이 통분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 번 청하기를, ㉙크게 전함을 준비하여 장차 가서 그 죄를 물어 바다 섬을 깨끗이 쓸어버려 영원히 혼란의 근원을 없애고자 하였다. 그러나 성상께서 문덕(文德)으로 먼 곳까지 편안하게 하시고, ㉚귀국에서도 사자를 보내 내빙(來聘)하여 도적을 금하는 것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아직 그 일을 정지하는 것이다. 각하는 ... 흥한 무리를 금하고 제압하여 이웃나라의 화호를 두텁게 하라. ... (태조 6년(1397) 12월 25일)⁵⁴⁾

위 사료들에서 보듯이, 조선은 1394년(태조3)부터 1397년(태조6)까지 매년 대마도·이키 정벌을 검토하였다(㉔·㉕·㉖·㉗구절). 그러나 당시 조선 조정으로부터 깊은 신임을 얻고 있던 이마가와 료순 및 오우치 요시히로는 각기 왜구 금압 의지를 표명하면서 대마도 등에 대한 정벌을 만류했다. 이에 조선 조정은 매번 이를 믿고 정벌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다(㉘·㉙·㉚구절).

다만 <사료7>에 보듯이 1396년(태조5) 12월에는 조선 조정이 이키·대마도 정벌군을 실제로 출진시켰다.⁵⁵⁾ 그 배경 중 하나로서는, 당시 이마가와 료순이 교토로 소환되어 실각한 상

50) 한반도에의 왜구 침구 빈도는, 1392년 2회에서 1393년 12회, 1394년 14회, 1395년 6회, 1396년 14회, 1397년 13회 등으로 증가한다(송종호, 「조선초 왜구 활동과 조선-일본 관계 연구 - 태조~태종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29쪽).

51) 『태조실록』 권6, 태조 3년 10월 11일 정축. 「比來, 本國水軍將帥累擒海賊, ㉔請以舟師, 往捕餘黨, 朝議將許之, ㉕適承來諭乃寢。」

52) 『태조실록』 권8, 태조 4년 7월 10일 신축. 「若㉖又以官軍將帥, 別開異途, 恐絕通好之路. ... ㉗等我做拙計, 必無嘍類, 方宜陪兩國之款懷哉!」

참고로 국사편찬위원회가 인터넷에 게시한 『조선왕조실록』에서는 「無嘍類」를 “지저귀는 무리들이 없어져”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嘍類」는 중국어에서 “살아 있는 생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므로(「百度百科」 등), 이는 오역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의 조선초 시기 다른 대목에서 나오는 「無嘍類」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정종실록』 권2, 정종 1년 7월 1일 기사; 『태종실록』 권7, 태종 4년 6월 10일 기묘;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8월 9일 무신; 『세종실록』 권73, 세종 18년 윤6월 19일 계미 등). 위 인용문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면 되리라 생각된다.

53)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 12월 3일 정해. 「今叢爾島夷, 敢肆猖狂, 侵我邊鄙, 至於再四, 已遣將帥, 出而禦之. ㉘然非大興師旅, 水陸相迫, 一舉而殄滅之, 則邊境無時得息矣。」

54) 『태조실록』 권12, 태조 6년 12월 25일 계묘. 「故我水軍將士, 靡不憤惋, 再三申請, ㉙大備戰艦, 將欲往問厥罪, 掃清海島, 永絕亂源. 聖上欲以文德綏遠, 而㉚貴國亦遣使來聘, 諭以禁賊, 故姑寢其事. 閣下 ... 禁制兇徒, 以篤隣好, ...」

태였으므로, 조선 조정의 토벌 시도를 만류할 일본 측 세력이 없었던 점도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이때 대마도로서는 1389년에 이어 7년 만에 다시 조선 정벌군을 맞아 싸워야 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한 위기를 모면하고자 당시 조선 동해안에서 왜구 활동을 벌이던 나가온 왜구 집단은 급히 투항했다.⁵⁶⁾ 이로써 조선의 이키·대마도 정벌군은 진군을 멈췄고 대마도 현지에서의 정벌은 없었지만,⁵⁷⁾ 이러한 조선 조정의 대마도 정벌 시도에 의하여 그 이후 1401년 초까지 3년 반 남짓 동안 한반도에서의 왜구 활동은 다시 소강기로 접어들었다.⁵⁸⁾

그리고 1396년 12월 말 및 1397년 4월에 있었던 나가온 항왜의 도주 사건⁵⁹⁾을 계기로, 조선 조정과 대마도는 외교적 접촉을 시작했다.⁶⁰⁾ 드디어 1398년(태조7) 1월부터 대마도 사자가 조선 조정에 입조한다.⁶¹⁾ 이로써 양국 간의 통교 관계는 재개된 것이다.

이 시기 대마도 내부에서는 같은해인 1398년 5월부터 11월 사이에 정변이 일어났다. 그 시기까지 대마도주 직을 차지하던 소씨 방계인 니이 나카무라 소씨(仁位中村宗氏; 이하 “니이 소씨”) 출신의 제6대 소 요리시게(宗頼茂) 대신, 소씨 종가(宗家) 출신의 소 사다시게(宗貞茂)가 제7대 대마도주로 취임하는 정권 교체였다(제2차 정변).⁶²⁾ 이듬해인 1399년 7월 소 사다시게는 조선 조정에 서계를 보내와 그의 대마도주 취임을 알리고 왜구 금압에의 의지를 전달하면서,⁶³⁾ 조선 조정과의 통교 관계를 진전시키고자 했다.

소 사다시게는 그해 9월에도 조선 조정에 사자를 파견함으로써⁶⁴⁾ 조선과의 통교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그러나 사료 기록으로 볼 때, 조선 조정은 소 사다시게의 7월 서계 및 9월 사행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조선 조정으로서는 이때까지 여전히 오우치 요시히로 측을 전적으로 신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오우치씨 이외에 왜구 금압을 실현할 일본 내 대안 세력을 고려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1399년 하반기 시점에서 본다면, 대마도로서는 조선과의 통교 관계를 복원하기는 했지만, 당시 매년같이 대마도 정벌을 기획하고 있는 조선 조정의 입장을 누그러뜨릴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지는 못했던 불안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 오우치씨와 대마도 간 관계

위 가.항에 서술된 바와 같이, 1399년 당시 쇼니씨와 오우치씨는 1396~1397년부터 줄곧 북규슈 각지에서 치열한 전투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때 쇼니씨 군사의 주력 부대는 치쿠젠 국(筑前国; 후쿠오카 현 서부) 슈고다이(守護代)였던 대마도 소씨(宗氏)였으므로, 1398년 7월·11월에 있었던 오우치씨의 대승리는 “삼도의 도적”이었던 쇼니씨, 그리고 소씨 측의 참패를 의미했다. 위 나.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바로 이 무렵인 1398년 5월 이후 시기에 대마도 제2

55) 송종호, 「나가온 왜구 투항」, 280~282쪽 등 참조.

56)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 12월 9일 기사 등 참조; 송종호, 「나가온 왜구 투항」, 267~293쪽 참조.

57) 같은 논문, 278~282쪽 참조.

58) 한반도에서의 왜구 침구 빈도는, 1393~1397년 각 연도 별로 12, 14, 6, 14, 13회였던 것이, 1398년 0회, 1399년 4회(모두 등시라로 왜구로 추정됨), 1400년 0회로 급감한다(송종호, 「조선초 왜구 활동과 조선-일본 관계 연구」, 29쪽).

59)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1월 3일 병진; 1월 28일 신사; 4월 6일 무자. 나가온 항왜 도주 사건에 관해서는, 송종호, 「‘조선 조정의 왜구 회유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태조 6년(1397) 항왜 도주와 군관 처벌의 배경을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80, 2023, 51~72쪽 참조.

60)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2월 27일 경술; 3월 25일 무인; 5월 6일 정사.

61) 『태조실록』 권13, 태조 7년 1월 1일 기유.

62) 長 節子, 『中世日朝關係と対馬』, 吉川弘文館, 1987, 44~45쪽 등 참조.

63) 『정종실록』 권2, 정종 1년 7월 1일 기사.

64) 『정종실록』 권2, 정종 1년 9월 10일 정축.

차 정변이 일어나 그 지배층이 니이 소씨에서 소씨 종가 출신으로 교체되는 정치적 격변도 있었다. 그러나 쇼니씨를 주군으로 모시면서 오우치씨 등과 맞서 싸운다는 대마도의 기본 방침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⁶⁵⁾

위 가.항에서 보았듯이, 오우치씨는 일본 전역에서 손꼽히는 유력 다이묘인 동시에, 조선 조정과 일본 막부 양측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세력이었다. 대마도 소씨는 이러한 오우치씨를 전쟁 상대방으로 맞아 싸우고 있었고, 그로부터 참패를 당한 최근 경험도 있었으므로, 오우치씨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은 상당히 컸을 것이다.

즉 1399년 하반기 당시 대마도 소씨로서는, 일본 국내에서 계속되고 있던 전쟁에서 버거운 상대방이었던 오우치씨, 그리고 바다 건너에서 왜구 근절을 목표로 언제라도 대마도 재정벌에 나설 수 있는 조선 조정, 이 양측으로부터 모두 군사적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이들 조선과 오우치씨 등 두 세력은 매우 강력한 신뢰 관계로 맺어진 형세였으므로, 대마도로서는 이 두 세력이 양측에서 협공해 올 가능성도 실제 위협으로 느끼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1399년 오에이의 난

1399년 당시 오우치 요시히로는 일본 6개 구니(国)를 지배하고 있었고, 일본 중앙 정계에서도 실력자가 되어 있었다. 또한 일본 막부의 조선 통교를 중재할 정도로 조선 통교에서 강력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요시히로의 국내·국제적 위상으로 인하여, 오우치씨는 일본 막부의 정점에 있는 아시카가 요시미츠에게는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에는 예전의 야마나씨(山名氏; 1391년 타도됨)·이마가와 료순(1395년 실각함)과 마찬가지로⁶⁶⁾ 타도 대상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따라서 요시미츠는 1397년(오에이4) 무렵부터 오우치 요시히로를 강하게 도발한 듯하며,⁶⁷⁾ 요시히로가 이에 반발하여 거병했던 것이 바로 1399년(오에이6) 오에이의 난이다.

그 준비 과정으로서 오우치 요시히로는 1399년, 당시 동일본 지역을 통치하던 가마쿠라부(鎌倉府)의 간토 구보(関東公方) 아시카가 미츠카네(足利滿兼)와 은밀히 손을 잡았다.⁶⁸⁾ 다른 한편으로, 위 제1절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해 7월 10일 조선 조정에 백제 왕가의 본관과 토전을 요청했다. 이 중 토전을 요청했던 것은 오우치 요시히로가 막부에 대한 모반이 실패했을 때 퇴각하여 머물 근거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⁶⁹⁾ 또한 백제

65) 1380년대 이후 대마도의 지배 구조는 이마가와 료순과 쇼니씨가 모두 영향력을 행사하는 양속적(兩屬的)인 상태였다(松尾大輝, 「南北朝期宗氏による対馬支配と少弐氏」 『古文書研究』 92, 2021, 31쪽). 이 시기 쇼니씨는 이마가와 료순에 순응하고 있었으므로, 양속체제 구조에서 비롯되는 갈등도 없었다. 따라서 1396년 이후 북규슈에서 쇼니씨와 신임 단다이 시부카와 미츠요리와 전투에서 대마도 소씨는 니이 소씨·소씨 종가 모두 쇼니씨를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

66) 川添昭二, 『今川了俊』, 吉川弘門館, 1988, 221쪽 (原著 1964); 柳田快明, 「室町幕府権力の北九州支配—十五世紀前半の筑前国を中心に—」 『九州史学』 59, 1976, 39쪽; 村井章介, 「倭寇と日本国王」,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編, 『日本の対外関係4: 倭寇と「日本国王」』, 吉川弘文館, 2010, 15쪽 등 참조.

67) 오에이의 난이 아시카가 요시미츠의 국내 정치 및 국제외교에서의 주도권 장악을 위하여 요시미츠가 유발한 것이라는 취지에 관하여, 佐藤進一, 『南北朝の動乱(日本の歴史9)』, 中央公論新社, 2005, 499쪽(原著 1974); 川添昭二, 『対外関係の史的展開』, 93쪽; 河宇鳳, 앞의 논문, 370~371쪽; 村井章介, 「倭寇と日本国王」, 15쪽; 松岡久人, 『大内氏の研究』, 清文堂出版, 2011, 15쪽; 村井章介, 『中世日本の内と外』, 筑摩書房, 2013, 161~163쪽 등 참조.

68) 川添昭二, 『今川了俊』, 223쪽.

69) 姜尙雲, 앞의 논문, 33쪽; 佐藤進一, 앞의 책, 502~503쪽; 한윤희, 「조선 초 쓰시마(對馬)·이키(壱

왕가의 본관을 요청했던 것은, 오우치 요시히로가 모반을 일으키는 경우, 오우치씨 역시 막부 쇼군 가문인 아시카가씨(足利氏) 못지않은 명문 혈통이라는 명분을 갖게 되는 효과를 기대했던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시기 무렵 전후로, 조선 조정에 대한 오우치씨의 요구 사항이 확연히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전해였던 1398년 12월 29일 오우치 요시히로는 '상국 대부인(相國大夫人)'의 명령을 받아 대장경을 청구했던 바 있었다.⁷⁰⁾ '상국'은 아시카가 요시미츠를 의미하므로,⁷¹⁾ 이 때 요시히로는 요시미츠의 지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6개월여 후인 1399년 7월 10일, 그는 아시카가 요시미츠에 대한 모반을 염두에 두고 조선 조정에 본관과 토전을 요구하고 있다. 즉 1399년 상반기 중에 오우치 요시히로의 모반 의지가 급속도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 당시 조선 조정으로서는 그의 내심을 정확히 알 수 없었겠지만, 오우치 요시히로의 모반 의지가 일본 열도를 건너와 조선에까지 노출되었다는 사정도 알 수 있다.

요시히로의 이러한 불순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막부는 여러 차례 요시히로에게 교토로 상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⁷²⁾ 그동안 오우치 요시히로는 간토 구보 아시카가 미츠카네 이외에도 이마가와 료슌, 야마나씨(山名氏), 도키씨(土岐氏), 교고쿠씨(京極氏) 등 일본 각지의 세력들을 포섭해 놓은 상태였다.⁷³⁾ 이윽고 10월 13일 교토 남쪽에 있는 사카이(堺; 오사카 부 사카이 시)에 도착했다.⁷⁴⁾ 그 이후 요시히로는 교토로 상경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모반한다는 소문이 계속 퍼졌다.⁷⁵⁾

이에 대하여 아시카가 요시미츠는 10월 27일 승려 젓카이 추신(絶海中津)을 사자로 파견했고, 오우치 요시히로는 그에게 모반의 의지를 밝혔다. 즉 선전포고였다.⁷⁶⁾ 이튿날인 10월 28일 그는 교토 남쪽에 있는 나라 국(奈良国) 고후쿠지(興福寺) 세력에게도 거병을 요청했다.⁷⁷⁾ 11월이 되어 아시카가 요시미츠는 대군을 이끌고 출진하여 11월 29일 요시히로가 있는 사카이 성 공격을 시작했다. 그리고 12월 21일 드디어 요시히로가 패하여 자결함으로써 오에이의 난은 막을 내린다.⁷⁸⁾

이렇게 오에이의 난은 당시 일본 정치 구도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었다. 결과적으로 오우치 요시히로라는 걸출한 정치적 존재가 사라졌으므로, 그 영향은 일본 국내뿐 아니라, 조선-

岐)·히젠(肥前) 지역의 피로인 송환에 관한 한 고찰 -1400년대 피로인 송환자(=일본의 통교자)의 증가 배경과 관련하여- 『동아시아문화연구』 88, 2022, 52쪽 참조. 나카무라 히데타카도 요시히로의 토전 요구를 "[오에이의 난과] 관련지어 생각하면, 꽤 흥미 있는 사실이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中村栄孝, 앞의 책, 152쪽).

70) 『태조실록』 권15, 태조 7년 12월 29일 신미.

71) 1395년 아시카가 요시미츠는 일본 막부의 쇼군 직을 아들인 요시모치(義持)에게 물려준 후, 일본 조정의 최고 관직인 태정대신(太政大臣)에 오른다. 태정대신의 중국식 명칭이 '상국' 또는 '대상국(大相國)'이다. '대상국'이라는 호칭은 『태조실록』 권12, 태조 6년 12월 25일 계묘; 『정종실록』 권1, 정종 1년 5월 16일 을유; 권2, 정종 1년 7월 1일 기사; 7월 10일 무인 등에도 보인다. 田中健夫, 『中世對外關係史』, 106쪽도 함께 참조하시오.

72) 「堺記」 応永六年十月十三日 (『大日本史料』 7編 3冊, 応永六年十月十三日条, 131~132쪽); 佐藤進一, 앞의 책, 499쪽.

73) 橋本 雄, 앞의 논문, 112쪽 참조.

74) 佐藤進一, 앞의 책, 499쪽; 松岡久人, 『大内義弘』, 139쪽; 平瀬直樹, 앞의 책, 159쪽, 173쪽 등 참조.

75) 佐藤進一, 앞의 책, 499쪽.

76) 같은 책, 499쪽; 松岡久人, 『大内義弘』, 139~141쪽; 平瀬直樹, 앞의 책, 159~160쪽 등 참조.

77) 松岡久人, 『大内義弘』, 150쪽; 平瀬直樹, 앞의 책, 173쪽 참조.

78) 川添昭二, 『今川了俊』, 228쪽; 佐藤進一, 앞의 책, 499쪽; 松岡久人, 『大内義弘』, 147~152쪽 등 참조.

일본 관계 전반에까지 크게 미치게 되는 것이다.⁷⁹⁾

3. 등시라로 왜구 투항의 배경

가. 오우치씨의 공세 강화에 대한 우려

오에이의 난은 1399년 10월에 발생했던 사건으로서, 시기적으로는 그 다음달인 11월 등시라로 왜구 투항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일본 교토 인근에서 일어난 오에이의 난이 어떻게 조선 평안도 해안에서 왜구 투항을 이끌어낸 것일까? 이러한 의문점을 염두에 두고 앞에서 보았던 <사료1>을 다시 읽어 보자.

<사료1(재인용)> 왜선 7척이 서북면 선주에 이르러 항복하기를 청하였다. ... 처음에 왜구가 대명(大明)의 연해 지방을 침략하고 우리 풍해도·서북면 등지에 이르렀는데, ... ◎요시히로(義弘)가 군사를 일으켜 @삼도의 도적들(三島之爲賊者)을 쳐서 섬멸한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마침내 항복하기를 빌었던 것이다.

우선 밑줄친 ◎구절의 “요시히로가 군사를 일으켜”는 오에이의 난을 의미한다. 위 제2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1399년 7월 무렵, 오우치 요시히로의 거사 계획은 이미 조선 조정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 각지 세력들 사이에도 오우치 요시히로 모반에 관한 소식이 널리 퍼져 있었을 것이다.⁸⁰⁾ 10월 13일 오우치 요시히로는 대군을 이끌고 교토 남쪽 사카이에 주둔했으며, 10월 27일에는 요시히로 스스로 모반의 의지를 천명했다. 오우치씨와 막부 간 정면충돌은 당시 일본 국내 정세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따라서 그 소식은 다시금 일본 전국에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을 것이다. 그해 9월에 중국에서 조선 해역으로 들어선 등시라로 왜구 집단도 10월 후반 또는 11월 초 어느 시점에는 그 근거지인 대마도와의 통신을 통하여 이러한 정보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등시라로 왜구가 11월 9일 갑자기 투항한 계기였던 요시히로 관련 최신 소식이란 바로 이 오에이의 난에 관한 정보였을 수밖에 없다.⁸¹⁾

오우치씨가 일본 막부에 대항하여 본격적인 모반을 일으킨 상황이라면, 서일본 각지에서도 오우치씨 지지 세력과 막부 지지 세력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일어날 개연성은 충분했다. 위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슈에서는 1396~1397년 이래로 쇼니씨·기쿠치씨 측과 오우치

79) 조선 조정으로서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오우치 요시히로라는 든든한 대화 창구를 잃었다. 그 결과 조선 조정은 왜구 통제 등 일본과의 현안을 맡아줄 대화 상대방을 새로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 이후 점차 조선-대마도 간에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1407년(태종7) 평도전(平道全)의 조선 조정 투화(投化)를 계기로 양자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한다. 이에 관해서는 별도 기회에 상세히 고찰하기로 한다.

80) 그 해 9월에는 일본 하늘에 객성(客星)이 나타나 음양사(陰陽師)들이 대규모 병란이 있을 것이라 예언하고 있었다(『堺記』 応永六年九月 (『大日本史料』 7編 3冊, 応永六年十月十三日条, 131쪽)). 이 점에서도 오에이의 난이 발발하기 전부터 이미 오우치씨에 의한 반란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만연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81) 등시라로 왜구가 10월말~11월초 시점에 오에이의 난의 전모, 즉 오우치 요시히로가 막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정종실록』 <사료 1> 기록에 따라, 등시라로 왜구가 ‘요시히로의 삼도지적 토벌’을 언급했다는 점은 명확하다. 즉 이들이 교토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정확히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와전되어 퍼지고 있던 오우치씨의 대규모 거병 소식은 접했다고 보인다. 따라서 등시라로 왜구가 오에이의 난의 전모를 명확히 입수했든 아니든 상관 없이, 이들이 당시 사정을 북규슈에서 오우치씨의 대규모 공세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았다는 점에서는 결과적으로 별 차이 없다.

씨·규슈 단다이 측 간의 전쟁이 이 시기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1399년 10월 당시에도 쇼니씨는 오우치 모리하루(大内盛見: 요시히로의 동생)를 상대로 전투 중이었고,⁸²⁾ 이때 대마도 소씨 역시 주군인 쇼니씨에 가담하여 북규슈에 주둔 중이었다. 오에이의 난 발발을 계기로 해서 조만간 오우치씨와의 전투가 더욱 격심해질 것은 불을 보듯 명확했다. 위 <사료1> ㉔구절의 “삼도의 도적들을 쳐서 섬멸한다는 소문”이란, 오에이의 난으로 말미암아 오우치씨의 쇼니씨·소씨에 대한 공세가 더욱 강렬해질 것이라는 대마도 측의 우려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등시라로 왜구는 2명 이상의 ‘만호’가 통솔하고 있었고 오우치씨와의 전투를 걱정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은 대마도 소씨 세력 또는 소씨를 섬기는 무가 세력에 속한다고 보인다. 1399년 당시로 보면, 소씨는 쇼니씨 군세의 주력 부대로서, 바로 1년 전인 1398년 7월 및 11월에 오우치씨에게 크게 패한 경험이 아직도 생생했을 때였다. ‘오우치씨의 삼도지적 토벌’, 즉 북규슈에서 오우치씨와의 대규모 전쟁이 다시 벌어진다면, 그러한 참패에 대한 위기감을 다시금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나. 조선-오우치씨의 대마도 협공 가능성에 관한 우려

그러면 위 <사료1> ㉔구절에서 등시라로 왜구가 두려워한 “화”는 오에이의 난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그 해답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료는 보이지 않지만, 이에 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위 가.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왜구가 두려워한 “화”는 우선 그 직전 해인 1398년 7월·11월과 같은 양상으로 쇼니씨·소씨가 규슈에서 오우치씨와 싸워 다시 참패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등시라로 왜구로서는 왜구 활동 후 돌아갈 근거지가 없어지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⁸³⁾ 등시라로 왜구가 절대로 회피하였으면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그렇지만 장차 예상되는 패전의 우려만으로, 아직 오우치씨로부터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조선 조정에 투항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더 엄중한 위협이 있던 것은 아닐까? 이에 대한 필자의 추가적인 시론(試論)은 다음과 같다.

둘째, 왜구가 두려워한 “화”는 등시라로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 본섬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 상황도 또한 의미한다고 보는 방법이다. 즉 대마도 본섬이 입을 수 있는 심각한 타격을 회피하기 위해, 조선 연안에 있던 왜구들이 자진하여, 또는 대마도 지배층의 지령에 따라, 조선 조정에 투항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위 <사료5> 내지 <사료8>에서 본 바와 같이, 국왕 태조를 위시한 조선 조정은 건국 직후인 1393년 이래 매년 대마도 재정벌을 계속 모색하고 있었다. 다만 이마가와 료슌과 오우치 요시히로의 만류에 따라 그 정벌 계획이 연기되어 왔을 뿐이다. 이러한 조선 조정 내 정서는 어떤 경로로든 대마도 지배층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던 중 1396년 12월 드디어 김사형의 이키·대마도 정벌군 출진이 있었고, 그 이후 한반도에서의 왜구 활동은 잦아들어 그 소강기에 접어든다. 소강기 중인 1399년 9월에 갑자기 나타난 등시라로 왜구는 그 침구 규모 및 심각성으로 보아 조선 조정이 다시 적극적인 대응, 즉 대마도 재정벌을 강구해야 할 상황이 되어 있었다. 이는 김사형의 이키·대마도 정벌군이 출진했던 1396년 12월과 비슷한 상황

82) 有川宜博, 「御領越後入道本仏の戦死」 『少武氏と宗氏』, 1986, 7쪽(荒木和憲, 『中世対馬宗氏領国と朝鮮』, 山川出版社, 2007, 24쪽; 荒木和憲, 『対馬宗氏の中世史』, 45쪽에서 재인용).

83) 이는 ‘오우치씨의 공격으로 왜구들이 은신할 곳을 잃을 것을 우려하여 투항했다.’는 강상운(1966)의 견해와 맥을 같이한다(위 제2장 제3절 가.항 참조).

이었다.⁸⁴⁾

게다가 그 같은 시기 일본에서는, 조선 조정의 강한 신임을 얻고 있던 오우치씨가 오에이의 난을 일으켰다. 북규슈에서도 오우치씨가 쇼니씨·소씨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리라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오우치씨가 예전처럼 대마도 정벌을 만류하는 것이 아니라,⁸⁵⁾ 오히려 규슈에서의 전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하여 조선 조정을 부추긴다면, 조선 조정이 대마도 정벌에 나설 개연성은 커진다. 실제로 이 시기 오우치씨는, 모반을 감행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호의적인 주변 세력을 모두 자신의 편으로 가담시켜 전투에 나서게 하려는 상황이었다.

물론 관련 사료가 없는 상태에서, 조선 조정이 이 시기에 대마도 재정벌을 추진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로부터 30년 남짓 이후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참고할 만한 사실이 있다. 오우치씨가 쇼니씨·소씨 등을 상대로 1425년부터 북규슈에서 또다시 장기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 오우치씨의 제12대 당주 오우치 모치요(大内持世)가 그 당주 재임 시기인 1431년~1441년 기간 중에 조선과 협공하여 대마도를 정벌하려 했던 사실이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다.⁸⁶⁾ 후대의 사실이기는 하지만, 오우치씨 측으로서는 언제라도 조선을 대마도 협공의 파트너로 삼아 대마도를 공략하려 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사료라고 생각한다.

1399년 대마도의 입장에서는 ① 불과 10년 전 조선의 대마도 정벌에 대한 아픈 기억, ②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조선과 오우치씨 사이에 끼인 지정학적 위치, ③ 오우치씨와 격렬한 전쟁이 지속되는 상태라는 악조건 속에서, 오우치씨가 일으킨 오에이의 난이라는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1399년의 제반 정세는, 1430년대 오우치 모치요의 대마도 협공 계획이 있었던 때와는 그 시기가 다르지만, 지정학적 위치 및 오우치씨와의 전쟁 상태 등 여러 측면에서 이와 흡사했다. 만약 조선 조정이 대마도 정벌에 나선다면, 대마도로서는 북규슈에서 대마도주를 위시한 주력 부대가 오우치씨와 싸우면서, 본거지인 대마도에서는 소수의 잔류 부대가 조선군을 방어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즉 (조선 조정의 실제 정벌 추진 여부와는 상관 없이) 1399년 당시 대마도로서는 오우치씨가 조선 측에 대하여 대마도 협공을 제안하고 그러한 제안이 실현되는 상황을 우려했을 개연성은 컸다.

이러한 대마도 지배층의 위기감이 등시라로 왜구에게 전달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사료1> ㉔구절에서 등시라로 왜구가 두려워했던 “화”는, 단지 오우치씨와의 전쟁에서 참패한다는 의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우치씨의 제안으로 조선이 대마도 정벌에 나설 것을 두려워하여’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한다. 따라서 등시라로 왜구는 그들의 본거지인 대마도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사태를 회피하기 위하여, 1396년 12월 나간 왜구 집단과

84) 송종호, 「나간 왜구 투항」, 291~292쪽 등 참조.

85) <사료8>에서 보았듯이, 1397년 12월 당시 오우치 요시히로는 조선 조정의 대마도 정벌 시도를 만류했다. 이 당시 요시히로는 기존의 아시카가 요시미츠 막부 체제 하에서 실질적인 규슈 단다이의 역할을 하고자 했던 것이다. 위 본문 제3장 제2절에서 보았듯이, 막부에 순응하는 그의 입장은 1398년 12월까지 외형적으로는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외형적 입장도 1399년 7월 시점에는 이미, 조선에 대한 본관 및 토전 요구로써 변화해 있음을 알 수 있다.

86) 『세종실록』 권104, 세종 26년 4월 30일 기유(「강권선(姜勸善)이 ... 또 아뢰기를, “대내전(大内殿) 관반(館伴) 노라가도로(盧羅加都老)가 말하기를, “대마도는 본래 조선의 목마지(牧馬地)이므로, 대내전 [오우치 모치요]은 조선과 더불어 협공하여 대마도를 조선에 돌리고자 하였다가 불행하게도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의 대내전[오우치 노리히로(大内教弘)]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勸善又啓: 大内殿館伴盧羅加都老言: “對馬島, 本朝鮮牧馬之地. 大内殿欲與朝鮮夾擊, 以本島歸諸朝鮮, 不幸捐世. 今大内殿, 未之知也.”)); 6월 7일 을유; 『문종실록』 권9, 문종 1년 8월 24일 기축 등 참조. 스다 마키코 역시 위 사료를 근거로 하여, 오우치씨가 조선의 군사력을 빌어 대마도를 협공하여 정벌한 후, 조선의 관리 아래 대마도를 복속시킴으로써 쇼니씨의 배후지를 단절시키려 했던 점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須田牧子, 앞의 책, 64쪽).

마찬가지로, 조선 조정에 투항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필자는 추측한다.

참고로 이 시기 대마도로서는 이마가와 료슌·쇼니씨·소씨 등 그 지배 세력 변동에도 상관없이 줄곧, 그 시기 대마도 내 왜구 세력의 움직임을 자체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 첫 번째 선례가 1389년 박위의 제1차 대마도 정벌 직후부터 관측되는 왜구 활동의 급감 현상이며, 두 번째 선례가 1396년 말 김사형의 제2차 대마도 정벌군 출진 직후에 있었던 나가고 왜구의 투항 및 그 이후 왜구 활동의 급감 현상이었다.⁸⁷⁾ 그렇게 1399년 11월 (조선 조정의 실제 정벌 추진 여부와는 상관 없이) 또 한 번의 대마도 정벌군 침공이라는 위기감을 느낀 대마도로서는, 그 시기 한반도에서 활동하던 등시라로 왜구의 침구 활동을 중지시키고 임시방편으로라도 조선 조정에 투항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요컨대, 1399년 10월 오우치 요시히로가 일으킨 오에이의 난은, 대마도 세력 및 등시라로 왜구에게 우선 오우치씨의 공세 강화에 대한 우려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오우치씨와 조선 조정의 대마도 협공 위협으로 그 우려가 확대되었을 것으로 필자는 추측한다. 이러한 대마도 세력 및 등시라로 왜구의 위기감이 11월 등시라로 왜구 투항으로 귀결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IV. 맺 음 말

1399년(정종원) 11월 등시라로 왜구 투항의 배경에 관하여, 『정종실록』은 이를 명확하게 ‘오우치 요시히로의 삼도지적 토벌로 인한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해서’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사료 기록에 관하여 강상운(1966)과 다무라 히로유키(1967)의 선구적 연구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견해들을 제시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조선 조정의 회유책’론을 중심으로 한 기존 통설적 견해에는 반향이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종실록』에서 말하는 ‘오우치 요시히로의 삼도지적 토벌’이 1399년 10월~12월에 있었던 오에이의 난, 즉 오우치 요시히로가 일본 막부에 대항하여 일으킨 전국적인 모반 사건과 관련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등시라로 왜구가 두려워했던 ‘화’란 우선, 오우치씨가 북규슈에서 진행 중이던 쇼니씨·소씨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여 대마도 세력이 크게 패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더하여 대마도 세력 및 등시라로 왜구는, 오우치 요시히로가 조선 조정에게 대마도를 협공하자고 제안할 개연성을 크게 보고 그 경우 본거지 대마도에 초래될 극심한 위기를 우려했다는 취지의 시론(試論)도 제시했다. 즉 대마도로서는, 당시 일본 국내에서 강력한 위상을 갖고 있지만 대마도와는 가장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전쟁 상태를 지속하고 있던 오우치씨, 그리고 대마도 재정벌 기회를 모색하며 대마도를 위협하던 조선 조정, 이 두 세력이 손잡고 규슈와 대마도 본섬의 대마도 세력을 협공해 오는 상황을 두려워했다고 보인다.

조선초 한반도에 침구했다가 투항한 왜구들 중 『조선왕조실록』이 그 지도자의 이름을 명확히 기재했던 대규모 왜구 집단은 나가고 및 등시라로 집단 등 두 개뿐이다. 필자의 예전 연구와 종합해 보면, 이 두 왜구 집단은 모두 조선 조정의 대마도 정벌로 초래될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조선 조정에 투항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즉 조선초 대규모 항왜 발생의 가장 큰 배경에는, 왜구 근거지인 대마도를 적극적으로 토벌하려는 조선 조정의 강력한 의지 및 실행력, 그리고 왜구의 근거 세력인 쇼니씨·소씨 토벌에 열중했던 일본 오우치씨와 조선 조정이 유지해

87) 이 시기 왜구 활동 추이에 관해서는, 위 각주 49번, 58번 참조.

은 돈독한 통교 관계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기존의 통설에서 말하는 ‘조선 조정의 회유책’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조선초 항왜가 ‘조선 조정의 회유책’에 호응하여 조선 임금의 덕에 감화함으로써 귀화하였다는 취지의 기존 서술은 다시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조선초 항왜는 이 시기 항화왜인이 발생하게 된 최초의 유형인 동시에, 그 대표적인 유형의 하나였다. 항왜가 어떠한 배경에서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규명해야만, 이들 항왜에 대한 조선 조정의 제반 정책, 항왜 및 항화왜인들의 행동 양식 등 제반 문제를 정확히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쟁점들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고려사』

『조선왕조실록』(『태조실록』 ~ 『문종실록』)

李行, 『騎牛集』(권1, 墓誌, 「正憲太夫 檢校參贊 議政府事 朴惇之 墓誌」)

『善隣国宝記』(田中健夫 編, 『善隣国宝記·新訂統善隣国宝記』, 集英社, 1995)

「迎陽記」, 「堺記」(『大日本史料』7編 3冊)

姜尙雲, 「麗末鮮初の 韓·日關係史論 -韓國과 日本의 今川·大内 兩諸侯와의 關係-」 『國際法學會論叢』 11(1), 1966, 15~53쪽.

羅鐘宇, 「韓國中世對日交涉史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송종호, 「조선초 왜구 활동과 조선-일본 관계 연구 - 태조~태종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송종호, 「조선초 왜구의 퇴조와 조선 조정의 ‘회유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1396년(태조 5년) 나가는 왜구 집단의 투항과 김사형의 이기·대마도 정벌군 출진 간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78, 2022, 251~297쪽.

송종호, 「‘조선 조정의 왜구 회유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태조 6년(1397) 항왜 도주와 군관 처벌의 배경을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80, 2023, 35~78쪽.

송종호, 「고려말-조선초 대마도와의 통교 공백기(1369~1397)의 배경 및 양상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의 대마도에 대한 영향력을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82, 2023, 51~97쪽.

이영, 「‘경인년 이후의 왜구’와 내란기의 일본 사회」 『왜구와 고려·일본 관계사』, 해안, 2011, 126~205쪽(원저: 李頌, 「<庚寅年以降の倭寇>と内乱期の日本社会」 『倭寇と日麗關係史』, 東京大学出版会, 1999, 119~192쪽).

이영, 「<경신년(1380) 왜구=기쿠치씨(菊池氏)> 설에 관한 한 고찰 - 무력의 특징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35, 2012, 5~40쪽.

이영, 「여말-선초 왜구(倭寇)의 배후 세력으로서의 쇼니씨(少貳氏)」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3, 161~182쪽.

이영, 『왜구, 고려로 번진 일본의 내란』, 보고서, 2020.

李鉉淙, 「朝鮮初期 向化倭人考」, 『歷史教育』 4, 1959, 340~368쪽.

趙垺熙, 「『朝鮮王朝實錄』に見られる日本人名の音譯表記法に関する研究(1)」 『일어일문학』 91, 2021, 207~222쪽.

河宇鳳,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일본과의 관계」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신편 한국사

- 22)』, 2002, 367~410쪽.
- 韓文鍾, 「朝鮮前期 對馬島の 通交와 對日政策」 『韓日關係史研究』 3, 1995, 125~172쪽.
- 한문중, 『조선전기 향화 수직왜인연구』, 국학자료원, 2001.
- 한문중, 「조선전기 일본인의 向化와 정착」 『동양학』 68, 2017, 153~173쪽.
- 한윤희, 「조선 초 쓰시마(對馬)·이키(壱岐)·히젠(肥前) 지역의 피로인 송환에 관한 한 고찰 -1400년대 피로인 송환자(=일본의 통교자)의 증가 배경과 관련하여-」 『동아시아문화연구』 88, 2022, 37~61쪽.
- 荒木和憲, 『中世對馬宗氏領国と朝鮮』, 山川出版社, 2007.
- 荒木和憲, 『對馬宗氏の中世史』, 吉川弘文館, 2017.
- 荒木和憲, 「室町期北部九州政治史の展開と特質」 『日本史研究』 712, 2021, 3~25쪽.
- 有井智徳, 「李朝初期向化倭人考」 『村上四郎博士和歌山大学退官記念 朝鮮史論文集』, 開明書院, 1982, 275~362쪽.
- 伊藤幸司, 「大内氏のアジア外交」, 大内氏歴史文化研究会 編, 『大内氏の世界をさぐる』, 勉誠出版社, 2019, 25~43쪽.
- 長 節子, 『中世日朝關係と對馬』, 吉川弘文館, 1987.
- 川添昭二, 『今川了俊』, 吉川弘文館, 1988(原著 1964).
- 川添昭二, 『對外關係の史的展開』, 文献出版, 1996.
- 佐伯弘次 編, 『街道の日本史49: 壱岐・對馬と松浦半島』, 吉川弘文館, 2006.
- 佐藤進一, 『南北朝の動乱(日本の歴史9)』, 中央公論新社, 2005(原著 1974).
- 須田牧子, 『中世日朝關係と大内氏』, 東京大学出版会, 2011.
- 関 周一, 「「中華」の再建と南北朝内乱」,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編, 『日本の對外關係 4: 倭寇と「日本国王」』, 吉川弘文館, 2010, 81~106쪽.
- 関 周一, 『對馬と倭寇』, 高志書院, 2012.
- 田中健夫,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東京大学出版会, 1959.
- 田中健夫, 『倭寇と勘合貿易』, 至文堂, 1961.
- 田中健夫, 『中世對外關係史』, 東京大学出版会, 1975.
- 田村洋幸, 『中世日朝貿易の研究』, 三和書房, 1967.
- 中村栄孝, 『日鮮關係史の研究(上)』, 吉川弘文館, 1965(原著 1935).
- 橋本 雄, 「對明・對朝鮮貿易と室町幕府一守護体制」,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編, 『日本の對外關係4: 倭寇と「日本国王」』, 吉川弘文館, 2010, 107~133쪽.
- 平瀬直樹, 『大内義弘』, ミネルヴァ書房, 2017.
- 堀川康史, 「今川了俊の京都召還」 『古文書研究』 87, 2019, 94~107쪽.
- 本多美穂, 「室町時代における少弐氏の動向 一貞頼・満貞期一」 『九州史学』 91, 1988, 27~41쪽.
- 松尾大輝, 「南北朝期宗氏による對馬支配と少弐氏」 『古文書研究』 92, 2021, 19~37쪽.
- 松尾弘毅, 「朝鮮前期における向化倭人」 『史淵』 144, 2007, 25~54쪽.
- 松尾弘毅, 「中世日朝關係における前期受職人とその変遷」 『 전북사학』 35, 2009, 281~317쪽.
- 松岡久人, 『大内氏の研究』, 清文堂出版, 2011.
- 松岡久人, 『大内義弘』, 戎光祥出版, 2013.
- 村井章介, 『中世倭人伝』, 岩波新書, 1993(이영 역, 『중세 왜인의 세계』, 소화, 2003).

- 村井章介, 「倭寇と日本国王」,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編, 『日本の対外関係4: 倭寇と「日本国王」』, 吉川弘文館, 2010, 1~27頁.
- 村井章介, 『中世日本の内と外』, 筑摩書房, 2013.
- 柳田快明, 「室町幕府権力の北九州支配—十五世紀前半の筑前国を中心に—」『九州史学』59, 1976, 37~54頁.

【제2토론】

정종 원년(1399) 등시라로(藤時羅老) 왜구 집단 투항과 오에이(応永)의 난
—왜구 투항에 관한 ‘조선 조정의 회유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토론문)

조혜란(한국방송통신대)

지금까지 조선 초 왜구투항의 배경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조선 조정의 회유책’이 그 원인이라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발표는 1399년(정종 원년) 11월 <등시라로 왜구 집단>이 투항하게 된 원인이 조선 조정의 회유책이 아니라 오우치 요시히로의 ‘삼도지적 토벌’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발표는 조선 초 왜구 투항이 조선 조정의 회유책에서 비롯되었다는 기존 연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과 <등시라로 왜구집단> 분석을 통한 조선 초 왜구의 실제 조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의 요지

1399년 9월 <등시라로 왜구집단>은 명나라의 연해지방을 침략하고 우리나라 풍해도 서북면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서북면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왜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등시라로 왜구집단>은 일본에서 오우치 요시히로가 군사를 일으켜 삼도를 섬멸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데, 그 화(禍)가 자신들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마침내 조선에 항복하였습니다.

오우치 요시히로가 ‘삼도의 도둑을 섬멸한다(擊殲三島之爲賊)’고 한 것은 1399년 10월~12월에 있었던 <오에이의 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에이의 난>이란 오우치 요시히로가 일본 막부에 대항하여 일으킨 전국적인 모반 사건입니다.

그런데 <등시라로 왜구>가 ‘화(禍)’를 두려워했다고 함은 오우치씨가 북규슈에서 진행 중이던 쇼니씨(소씨)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여 대마도 세력이 크게 패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의미합니다. 대마도 세력 및 <등시라로 왜구>는 오우치 요시히로가 조선 조정에 대마도를 협공하자고 제안할 개연성을 심각하게 보고, 그 경우 본거지 대마도에 초래될 극심한 피해를 우려했을 것입니다. 결국 등시라로는 조선에 투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등시라로의 투항>은 조선의 회유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조선 조정의 대마도 정벌로 초래될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투항해 온 것에 기인한다는 주장입니다.

질의

발표문의 전반적인 논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오우치 요시히로의 ‘삼도지적 토벌’이라는 정보가 당시 서북면에 있던 등시라로에게 어떻게 전달 되었을지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발표문에 의하면 “1399년 9월에 중국에서 조선 해역으로 들어선 등시라로 왜구 집단이 10

월 후반 또는 11월 초 어느 시점에 <대마도와의 통신>을 통하여 오에이의 난(삼도지적 토벌) 정보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고 하셨는데, <대마도와의 통신>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다시게는 대마도주가 된 직후(1399년), 쇼니씨와 함께 북규슈의 전투에 참전 중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다시게는 오우치 요시히로가 ‘삼도지적을 토벌’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다시게는 즉시(9월 10일) 조선에 사승(使僧)들을 파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이 바로 발표자께서 언급하신 <대마도 통신>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사다시게가 파견한 사승들이 조선에 온 당일에도 <등시라로 왜구집단>은 서북면을 침구했고, 10월 1일과 19일에도 왜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등시라로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기까지는 며칠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참고로 오에이의 난을 전후한 시기의 등시라로와 소 사다시게 그리고 오우치씨에 대해서 발표내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등시라로 왜구집단 투항 과정

	시기	등시라로 왜구집단	대마도(소 사다시게)	오우치 요시히로
①	1399. 7. 1.		조선 조정에 소 사다시게 대마도주 취임보고와 왜구금압 약속	
②	1399. 7. 10.			조선에 본관과 토전을 청함
③	1399. 9. 10.	서북면 선주·박주 침구	사다시게 조선에 사승(使僧) 등 파견	1399년 9~10월 오우치씨의 ‘삼도지적 토벌’이 진행 중
④	1399. 10. 1.	풍해도 웅진 침입		
⑤	1399. 10. 13.			요시히로 사카이 도착(오에이의 난)
⑥	1399. 10. 19.	풍해도에서 병선 1척 불태우고 조선 선군 50명 죽임. 풍주 서촌 침구		
⑦	1399. 11. 8.	조선 조정에 투항을 제안		
⑧	1399. 11. 25.	조선에 항복		

2. 발표자께서는 ‘조선의 회유책’ 설을 비판하는 세 편의 논문을 발표 하셨는데, 만약 조선의 회유책이 없었다고 한다면 조선 조정의 방침은 혹시 어떤 것이 있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3주제】

19세기 근세 일본 향토 자료 속의 독도

발표 : 이형주(국민대)

토론 : 현명철(한일관계사학회)

19세기 근세 일본 향토 자료 속의 독도

이형주(국민대)

1. 시작하며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때, 그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이 독도에 대한 인지 혹은 인식이다. 예를 들어,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다케시마(=독도)' 관련 페이지에서는 '다케시마에 대한 인지'라는 항목을 따로 두고, '일본국이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각종 지도와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⁸⁸⁾ 외무성이 발행한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10개의 포인트⁸⁹⁾'에서는 위의 주장이 첫 번째 포인트로 기재되어 있으며, 두 번째 포인트로는 '한국이 예로부터 다케시마(=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라는 주장을 기재하고 있다. 또한 외무성과 내각관방 영토 주권 대책 기획조정실에서 링크를 게재하고 있는 '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에서는 『竹島圖說』에 등장한 '隱岐國松島(오키국 마쓰시마)'라는 기술을 소개하면서 '에도시대에는 '마쓰시마(현재의 다케시마[=독도])'가 일본 영토의 일부(隱岐國의 일부)로 인식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⁹⁰⁾

주지의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일본 정부의 논리는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⁹¹⁾의 논리를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가와카미는 ①『隱州視聽合記』(1667), ②『隱岐古記集』(1823), ③오야 규에몬 가쓰노부(大谷九右衛門勝信)의 「講書」(1681), ④오야 규에몬 가쓰후사(勝房)의 「御公儀江御訴訟之御請」(1740) 및 ⑤「口上書」(1741), ⑥막부 질의에 대한 돗토리 번주의 회답서(1696), ⑦『竹島圖說』(1849), ⑧『長生竹島記』(1801), ⑨『竹島考』(1828), ⑩「竹嶋之書附(池田家文書)」(1720년대), ⑪세키슈 하치에몬(石州八右衛門, 아이즈야 하치에몬[會津屋八右衛門])의 청취서(1836) 등을 들어, 전근대 일본 문헌에 등장한 울릉도와 독도가 어떠한 식으로 언급되었는지를 밝혀냈다(기호는 인용자가 임의로 붙인 것이다. 이하 같음). 특히 ⑦, ⑧, ⑩에 대해서는 울릉도 쟁계 이후에 작성된 기록임에도 '마쓰시마(=독도)'가 일본 오키(隱岐)의 일부로 기재되었거나, 일본의 서쪽 끝으로 기재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문헌을 통해 볼 때, 일본에서는 1696년의 다케시마(=울릉도) 도해 금지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마쓰시마(=독도)'와 '다케시마(=울릉도)'의 명칭뿐만 아니라, 두 섬에 관한 올바른 지리적 지식도 상당히 후년에 이르기까지 계승되어 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고 결론지었다.⁹²⁾

물론 이와 같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인식이나 인지가 곧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강력한

88) https://www.mofa.go.jp/mofaj/area/takeshima/g_ninchi.html

89) https://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pdfs/takeshima_point.pdf

90) <https://www.cas.go.jp/jp/ryodo/shiryo/takeshima/detail/t184900000103.html>. 다만, 사이트 하단에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주의 사항을 달아 두었다. 하지만, 외무성과 내각관방 영토 주권 대책 기획조정실에서 직접 위 사이트의 링크를 게재하고 접속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이트의 내용이 일본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91) 川上健三『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1966. 본 발표에서는 1996년 같은 출판사에서 간행된 복각신장판(復刻新裝版)을 이용했다.

92) 주 4의 책, pp.50-56.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의 의문이 남기도 한다.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는 '지리적인 지견(知見) 그 자체로는 영유권의 증명이 될 수 없다'고 하며,⁹³⁾ 독도에 대한 인식이나 인지가 곧바로 영유권과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지적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 정부가 여전히 가와카미의 논리를 계승하면서, 전근대 일본의 독도에 대한 인식이나 인지를 독도 영유권 주장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한국 측의 반박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과연 그것이 유효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아도 괜찮을 것이다.⁹⁴⁾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정영미⁹⁵⁾와 윤유숙⁹⁶⁾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윤유숙은 독도를 오키국(隱岐國)의 일부로 기재한 ⑦과 ⑩, 그리고 일본의 서쪽 끝으로 기재한 ⑧에 대해 독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기억이 애매모호해지면서 잘못 전승된 결과로 보았고, 특히 ⑩에 대해서는 가와카미의 사료 오독을 바로잡기도 했다. 한편 정영미는 ⑦과 ⑧의 '마쓰시마'가 가리키는 대상이 독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⑦과 ⑧의 '마쓰시마'가 독도가 아니라면, '마쓰시마'를 오키국의 일부로 기재하거나 일본 서쪽의 끝으로 보았다 한들, 결국 독도를 일본 영토의 일부로 본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구조이다. 본 발표에서는 정영미의 반박에 대해 검증해 보도록 하겠다.

2. 19세기 산인 지방 향토 자료 속의 '마쓰시마'

위 정영미의 반박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다. 먼저, 근세 일본인은 '울릉도-독도'를 '다케시마(=울릉도)-마쓰시마(=독도)'로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정영미는 19세기에 들어 일본 산인 지방(山陰地方)의 '마쓰시마'라는 명칭이 가리키는 섬이 독도에서 울릉도로 바뀌어 왔다'고 설명한다.⁹⁷⁾ 그리고 정영미는 '17세기의 다케시마(울릉도)에 대한 인식이 19세기에는 '울릉도'와 '마쓰시마'라는 명칭의 울릉도'로 2분화된다'고도 설명한다.⁹⁸⁾ 여기서 말하는 '마쓰시마'라는 명칭의 울릉도'란, 명칭만 마쓰시마일 뿐 실제로는 울릉도를 가리킨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마쓰시마'라는 명칭이 가리키는 섬이 독도에서 울릉도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정영미가 제시한 [그림 1]이다. 정영미의 설명에 따르면 '울릉도'와 '예전의 다케시마였던 마쓰시마' 모두 실제로는 울릉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된다.⁹⁹⁾ 물론 이렇게 19세기 산인 지방의 향토 자료에 등장하는 '마쓰시마'가 가리키는 대상이 독도가

93) 池内敏『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關係史』, 中公新書, 2016, p.45.

94) 에도막부와 울릉도 쟁계의 당사자 중의 하나의 오야가(大谷家)에서는 울릉도 쟁계의 결과로 나온 '다케시마(=울릉도) 도해 금지령(竹島渡海禁止令)'을 '다케시마(=울릉도) 및 마쓰시마(=독도) 양도 도해 금지(竹島松島兩島渡海禁制)'로 인식하고 있었다(주 6의 책, p.80). 즉,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울릉도 쟁계의 결과로 울릉도는 물론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인의 도해는 금지되었던 것이 명확한 사실이다. 일단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 일본의 전근대 독도에 대한 영유 의식 주장에 대한 한국의 반박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95) 정영미『울릉도 쟁계 후의 일본인의 울릉도·독도 인식』『일본은 어떻게 독도를 인식해 왔는가』, 한국 학술정보, 2015, pp.90-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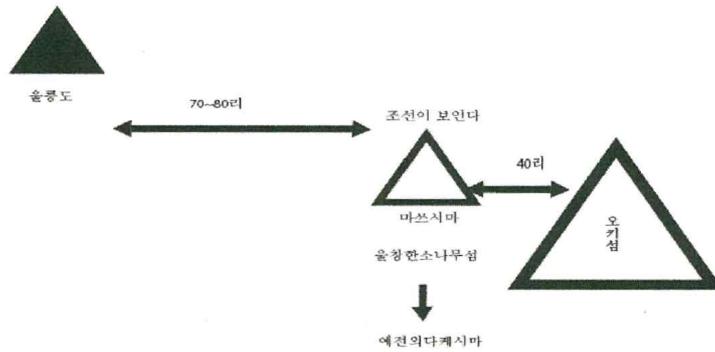
96) 윤유숙『울릉도도항금지령 이후 松島(독도) 도항 문제 재고(再考)』『근세 조일(朝日)관계와 울릉도』, 해안, 2016, pp.83-101.

97) 주 8의 책, p.122.

98) 주 8의 책, p.123.

99) '마쓰시마'라는 명칭을 울릉도에 빼앗긴 독도는 어떠한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이다.

아닌 울릉도였다고 할 수 있다면, 후술할 ⑧『長生竹島記』(1801)나 ⑦『竹島圖說』(1849)에서 '마쓰시마'를 '일본 서해의 끝이다(本朝西海のはて也)' 혹은 '오키국 마쓰시마(隱岐國松島)'라고 표현했다 하더라도, 결국 독도에 대해 위와 같이 표현한 것이 아닌 것이 된다. 다시 말해 ⑦과 ⑧을 통해 전근대 산인 지방의 일본인들이 독도에 대한 영유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1〉 19세기 오키 섬-다케시마-마쓰시마 지리정보

[그림 16] 정영미의 개념도

이하에서는 위의 정리를 염두에 두면서, 과연 19세기 산인 지방에서 '마쓰시마'가 가리키는 대상이 독도가 아니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1. 『長生竹島記』 속의 독도

앞서 언급한 『長生竹島記』(1801)라는 사료는 이즈모타이샤(出雲大社)의 신관 야다 다카마사(矢田高當)가 1801년에 지은 책이다. 책의 설명에 따르면, 이즈모타이샤 근처에 거주하는 어부 쓰바키 기자에몬(樁儀左衛門)이 오키의 후쿠우라(福浦)에서 과거 다케시마(=울릉도)¹⁰⁰를 왕복하는 선박의 선원이었던 이타야 아무개(板屋何兵衛)에게 다케시마(=울릉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다시 야다 다카마사가 전해 들은 다음 책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한다. 즉 19세기 초, 산인 지방의 독도 인식을 말해주는 향토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정영미는 『장생죽도기』에서 말하는 마쓰시마라는 섬은 지금의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¹⁰¹고 보았다.¹⁰¹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료를 보도록 하자.

[사료 1]¹⁰²

그런데, (A)오키의 도고(島後)에서 마쓰시마는 신유(申酉, 서남쪽) 방향의 먼바다에 있다. 묘방(卯方,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타고 이틀(二日二夜)을 배로 달려, 도법(道法) 36정(丁)을 1리(里)로 계산하여, 해상 거리 170리 정도라고 생각된다. 산세가 험준하다고 한다. 토

100) 이하 '다케시마' 또는 '마쓰시마'라는 표기는 사료에 등장하는 '竹島'와 '松島'를 한글로 표기한 것일 뿐임을 밝혀둔다.

101) 주 8의 책, p.120.

102) 『長生竹島記』, 「從隱岐洲松島江竹島丸津懸之事」. 본 발표에서는 島根県広報文書課 편『竹島關係史料(一)』(1953)에 수록된 필사본을 사용하였다. 국역은 인용자에 의한다(이하 같음).

지의 길이는 5리나 3리 정도일 것이라고 한다. 옛말과 같이 (B)소나무에 뒤덮인 모습이 만 리에 그림자를 드리운, 그 풍경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무더운 날에는 용수(用水)에 불편이 있다고도 하여 다케시마 도해 시 다케시마호가 왕복할 때는 반드시 이 섬에 정박한다고 한다. 지금도 천 석(石) 정도의 회선(廻船, 항구에서 항구로 사람과 물자를 나르는 배)이 예조 마쓰마에로 가다가 어쩔 수 없이 큰바람에 휩쓸리면, '이것이 소문으로 듣던 마쓰시마인가?'라며 멀리서 바라본다. 일본 서해의 끝이다(本朝西海のはて也).

위는 『長生竹島記』에서 '마쓰시마'라는 섬을 묘사한 부분이다. 정영미가 여기에서 지적하는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18세기 중엽의 『竹島圖說』까지 일정했던 마쓰시마(=독도)의 지리정보가 50여 년이 지난 『長生竹島記』 단계에서는 혼란스러워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오키에서 마쓰시마로 향하는 방향이 '서남쪽'으로 되어 있으며(실제로는 북서쪽), 거리도 '이틀(二日二夜)'을 배로 달린 '170리 정도' 떨어진 위치에 마쓰시마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A). 정영미에 따르면, 17세기의 일본 사료에서 오키에서 마쓰시마 사이의 거리는 40~80리로 표현되고 있었다.¹⁰³⁾ 그런데 『長生竹島記』에서 말하는 마쓰시마는 오키에서 170리 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이름만 마쓰시마일 뿐 실제로는 다케시마(=울릉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다. '마쓰시마'의 실체가 독도라면, 오키에서 40~80리 떨어진 거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長生竹島記』에서는 오키에서 마쓰시마까지 '이틀(二日二夜)'이 걸린다고 하는데, 『隱州視聽合記』(1667)에서는 오키에서 마쓰시마까지 '하루 반(二日一夜)' 걸린다고 했다고 한다. 원래라면 '하루 반(二日一夜)'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마쓰시마(=독도)가 있어야 하는데, 『長生竹島記』의 마쓰시마는 이에 반나절을 더한 '이틀(二日二夜)'이 걸리는 섬이었으므로, 이 역시 이름만 마쓰시마일 뿐 실제로는 다케시마(=울릉도)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¹⁰⁴⁾

여기서 다음 사료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자. 마찬가지로 『長生竹島記』 속에서 마쓰시마와 다케시마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부분이다.

[사료 2]¹⁰⁵⁾

그런데, 마쓰시마에서 다케시마는 같은 방향에 있어서, 묘의 바늘로(卯の針にて, 나침반 바늘로 추정) 묘의 바람(卯の風, 동풍)을 받아 하루(一日一夜)를 배로 달려 해상 거리로 모두 대략 160리 정도이다...

위의 사료를 보면, 다케시마는 마쓰시마에서 동풍을 받아 '하루(一日一夜)'를 가며 '160리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¹⁰⁶⁾ 마찬가지로 정영미에 따르면, 17세기의 일본 사료에서 마쓰시마와 다케시마의 거리는 40~70리로 표현되고 있었는데, 오키와 마쓰시마 사이의 거리가 40~80리에서 170리로 늘어난 것처럼, 마쓰시마와 다케시마 사이의 거리도 40~70리에서 160리로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長生竹島記』에서 표현된 거리 정보는 오키와 마쓰시마 사이의 거리뿐만 아니라, 마쓰시마와 다케시마 사이의 거리도 크게 과장되었던

103) 주 8의 책의 [표 6], pp.117-118.

104) 주 8의 책, p.120.

105) 『長生竹島記』, 「從隱岐洲竹島渡海并海上道法之事」.

106) 송휘영의 국역(『독도자료 『장생죽도기(長生竹島記)』』 『獨島研究』17,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4, p.368.)에서는 '260'리로 보았다. 이는 원문이 '凡(二)百六十里'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본 발표자는 글자의 모양과 배치로 볼 때 '凡(おおに)'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長生竹島記』에서 말하는 마쓰시마가 오키로부터 170리나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한 것은, 19세기 들어 산인 지방 일본인들의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리 인식이 희미해지고 왜곡되면서 오키-마쓰시마(=독도)-다케시마(=울릉도)의 거리 관계가 전체적으로 부풀려졌고, 그 과정에서 마쓰시마가 다케시마와 함께 서쪽으로 이동한 것에 불과하다. 단순 거리 관계만이 아닌 '오키-마쓰시마-다케시마'라는 순서 관계를 같이 생각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마쓰시마'란 독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다시 [사료 1]로 돌아와서, 정영미는 『長生竹島記』의 '마쓰시마'가 '소나무에 뒤덮인 모습이 만 리에 그림자를 드리운' 섬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B). 비록 명칭은 마쓰시마이지만 독도에 소나무가 무성할 리가 없으므로, 사실은 울릉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는 판단이다.¹⁰⁷⁾ 다만, '소나무에 뒤덮인 모습'이란 묘사의 실체가 확실하게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먼저 『長生竹島記』보다 앞서 완성된 『隱州視聽合記』에서는 다케시마(=울릉도)에 대해 '多竹魚海鹿' 즉 '대나무, 물고기, 강치가 많다'고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보다 뒤에 완성된 『竹島圖說』(후술)¹⁰⁸⁾에서는, 다케시마(=울릉도)가 '대나무가 매우 무성(竹木最茂)'하고, 동남쪽의 고오사카우라(古大坂浦)라는 지역의 주변은 '대부분 대죽 덩불로 되어 있어서, 매우 큰 것은 둘레가 두 척(多クハ大竹藪ニメ極テ大ナルハ周圍二尺)'이나 된다고 묘사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 나는 식물로는 '大竹'과 'マノ竹'을 들고 있다. 그 외에도 다케시마(=울릉도)에 대해 '소나무'를 키워드로 자연경관을 표현한 일본의 사료는 본 보고자가 파악하고 있는 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말 명칭만 마쓰시마일 뿐 그 실체는 울릉도였다면, '소나무'가 아닌 '대나무'를 키워드로 자연경관을 묘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마쓰시마의 '소나무에 뒤덮인 모습'이 비록 독도의 실제 모습과는 괴리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울릉도의 자연경관을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마쓰시마'의 '소나무에 뒤덮인 모습'이란 울릉도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 아닌, 마쓰시마 즉 '소나무 섬(松島)'이라는 명칭에 이끌린 야다가 자신의 상상 속에서 멋대로 만들어 낸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결국 『長生竹島記』의 '마쓰시마'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울릉도가 아닌, 희미해진 기억과 정보로 왜곡된 19세기 산인 지방 일본인들의 울릉도-독도 인식 속에서, 오키와 더욱 멀어지고, 그 이름처럼 소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는 '상상 속의 독도'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마쓰시마'라는 명칭이 가리키는 섬이 독도에서 울릉도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2.2. 『隱岐古記集』 속의 독도

다음으로 『隱岐古記集』(1823)의 '마쓰시마'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해당 사료는 1823년

107) 주 8의 책, p.122.

108) 가와카미 겐조는 『竹島圖說』이 호레키기(宝曆期, 1751-1763)에 편찬되었다고 하나, 실제로는 이때 편찬된 것을, 1849년 마쓰에 번(松江藩)의 여용학자 가나모리 겐사쿠(金森建策)가 증보하여 편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竹島圖說』에서 18세기 중반에 작성된 내용과 19세기 중반에 증보된 내용을 정확히 구분해 내기는 곤란할 것이다. 다만, 본문에서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울릉도 쟁계의 막바지인 1696년 혹은 울릉도 도해에 대한 막부의 재조사가 있었던 1724년 당시의 문서에서 인용하거나 교차 검증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다. 『竹島圖說』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이 19세기 중엽이긴 하나, 다케시마(=울릉도)에 대해 대나무를 키워드로 묘사한 것은 1724년의 문서에 의한 것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오니시 노리야스(大西教保)라는 사람이 『隱州視聽合記』(1667)를 저본으로 삼으면서, 오키 어부들의 실제 목격담 등을 이용해 증보 개정한 것이라고 한다.¹⁰⁹⁾ 그리고 오니시 노리야스는 오키의 사람이라고 하므로,¹¹⁰⁾ 『隱岐古記集』 또한 19세기 산인 지방의 울릉도-독도 인식이 반영된 향토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정영미는 여기에서도 '마쓰시마'가 가리키는 대상을 울릉도로 보았는데, 다음 사료를 통해 『隱岐古記集』의 '마쓰시마'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자.

[사료 3]¹¹¹⁾

자쿠슈(若州, 후쿠이현 남서부) 오바마(小濱)에 이르러 축인(丑寅, 동북쪽) 방향으로 대략 130리 정도 노슈(能州, 노토반도)에 다다른다. (A)해(亥, 북서쪽) 방향으로 40리 정도 떨어진 곳에 마쓰시마가 있다. 둘레는 1리로 생목(生木)이 없는 돌섬이라고 한다. (B)또한 유(酉, 서쪽) 방향으로 70리에 다케시마가 있다. 예전부터 이를 이소타케시마(磯竹嶋)라고 전해진다. 대나무가 무성한 큰 섬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조선을 바라보면 운슈(隱州, 오키)에서 운슈(雲州, 시마네현 동부)를 보는 것보다 더욱 가깝다고 한다. 지금은 조선인이 왕래한다고 한다. 내가 다른 지역의 선원들에게 물어보니, 방향은 정말 그러하고, 가을에 맑고 북풍이 부는 날에는 다이만지(大満寺) 산봉우리에서 바라보면 멀리 보이지 않겠냐고 한다. 섬은 조선의 땅과 산에 둘러싸여 있어, 멀리 바라보면 조선 땅으로 보인다고 한다. (C)생각건대, 예전부터 이소타케(磯竹)라고 전해지는 말이 있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조선의 도면을 보면, 그 나라의 수도(京師)에서 인묘(寅卯, 동쪽) 방향, 쓰시마의 도요우라(豊浦)에서 자(子, 북쪽) 방향에 이르러, 울릉도(鬱陵嶋)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섬의 축(丑, 동북) 방향에 이소타케(弓嵩)라는 높은 산이 있다고 지도에 보인다. 그 섬을 불러서 이소타케시마(磯竹嶋)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닐까? 이 섬과 백 리 내외에는 두 섬 외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 사람이 주거하는 것도 최근에는 있을 수 없다. 도요토미 태합의 정벌 시에도 다케시마성(嵩嶋城)에서 조선인들이 농성한 적이 있다. (D)이래저래 생각건대, 다케시마는 다른 섬이 아니다.

먼저, 마쓰시마라는 섬의 위치는 노토반도에서 북서쪽으로 4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생목이 자라지 않는 돌섬이라고 한다(A). 섬의 경관 묘사를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마쓰시마는 독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아도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마쓰시마에서 다시 서쪽으로 70리를 가면 다케시마가 있다고 한다. 예전부터 이소타케시마(磯竹嶋)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대나무가 무성한 커다란 섬이라고 되어 있다. 이 또한 섬의 경관 묘사로 볼 때 울릉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선을 바라보면 운슈(隱州, 오키)에서 운슈(雲州, 시마네현 동부)를 보는 것보다 더욱 가깝다'고 한다(B). 이 마지막 문장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隱岐古記集』가 『隱州視聽合記』를 저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고려를 보는 것이 운슈에서 운슈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見高麗如自雲州望隱州)'에서 온 것이다.

109) 주 4의 책, p.51.

110) 주 8의 책, p.112.

111) 『隱岐古記集』, 「嶋後」. 시마네대학 부속 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 이 『隱岐古記集』은 시마네대학뿐만 아니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소장하고 있으며, 『隱岐島史料 近世編 下』(隱岐郷土研究會 편, 1963), 개인 소장 「村上助九郎家文書」, 시마네현립박물관 岡嶋家 자료에 속하는 「隱岐の諸記録」 등에도 수록되어 있다(池内敏『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2, p.344.). 본 보고에서는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는 시마네대학 부속 도서관 소장본을 사용하기로 한다.

그런데 정영미는 '울릉도에서 조선이 보인다'는 17세기의 『은주시청합기』의 기술이 여기에서는 마쓰시마에서 조선이 보인다, 다시 말해 독도에서 조선이 보인다는 기술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기술로써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마쓰시마는 분명히 울릉도이다'라고 주장했다.¹¹²⁾ 하지만, [사료 2]에서 '마쓰시마'에 대한 서술은 (A)에 불과하며, (B) 이하는 모두 '다케시마'에 관한 서술이다. (B)의 '여기에서 조선을 바라보면 온슈(隱州, 오키)에서 온슈(雲州, 시마네현 동부)를 보는 것보다 더욱 가깝다'에서 말하는 '여기'란, 『隱岐古記集』가 저본으로 삼고 있는 『隱州視聽畧記』와 마찬가지로 다케시마(=울릉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마쓰시마에서 조선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 아니며, 마쓰시마가 돌섬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隱岐古記集』의 '마쓰시마'란 결국 독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해일 것이다.

이러한 점은 (C)와 (D)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먼저 (C)에서는, 저자 오니시가 조선을 그린 지도¹¹³⁾를 찾아보았더니 울릉도(鬱陵嶋)의 북동쪽에 '이소타케(弓嵩)'라는 산이 보였는데, 앞서 (B)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케시마를 '이소타케시마(磯竹嶋)'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은 아마도 이 때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즉 오니시는 다케시마=울릉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D)에서는 이것저것 생각해 볼 때 다케시마는 울릉도 외의 다른 섬일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있다. 결국, 『隱岐古記集』에서도 '마쓰시마'는 독도를 가리키고 있었으며, '다케시마'는 울릉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마쓰시마'라는 명칭이 가리키는 섬이 독도에서 울릉도로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2.3. 『竹島圖說』 속의 독도

이어서 검토할 『竹島圖說』(1849)은 그 서문에 따르면, 원래 마쓰에 번(松江藩)의 번사(藩士) 기타조노 쓰안(北園通菴)이 18세기 중반(1751-1763)에 인슈(因州, 돗토리현 동부)의 아무개에게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었다. 그리고 19세기 중반에 들어 마찬가지로 마쓰에 번의 번사인 가나모리 겐사쿠(金森建策)가 세키슈(石州, 시마네현 서부)의 선장 나가쿠라(長藏)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적어서 증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근세 산인 지방의 향토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정영미는 앞서 확인한 『長生竹島記』와 『隱岐古記集』에 보이는 '마쓰시마'라는 섬이 울릉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본 것과는 반대로, 『竹島圖說』에서는 '다케시마'라는 섬이 독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았다. 이번에는 '다케시마'가 가리키는 대상이 울릉도에서 독도로 바뀌게 된 것인지, 바꾸어 말하면 과연 『竹島圖說』에서 말하는 '마쓰시마' 또한 독도가 아니었던 것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사료 4]¹¹⁴⁾

112) 주 8의 책, p.121.

113)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작성한 「朝鮮國全圖」로 추측된다. 저자 오니시 노리야스의 언급대로 조선의 수도는 '京師'로 기재되어 있으며, 쓰시마의 지명으로는 유일하게 북쪽의 '豊ノ浦'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鬱陵嶋'의 북동쪽에 '弓嵩'이라는 이름의 산이 그려진 것도 일치한다. 그리고 [사료 3]에서는 '이 섬과 백 리 내외에는 두 섬 외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鬱陵嶋' 외에도 '馬郎'과 '鹿嶋'라는 두 섬이 그려져 있다.

114) 본 발표에서는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편『독도관계 일본 고문서1 원문이미지』(경상북도, 2014)에 수록된 것을 이용했다. '<>' 속의 문장은 割註이다.

(A)오키국 마쓰시마(隱岐國松島)의 니시시마(西島)[마쓰시마에 속한 하나의 작은 섬이다. 현지에서는 쓰기시마(次島)라고 한다]에서 해상으로 40리 정도 북쪽에 하나의 섬이 있다. 이름하여 다케시마라고 한다. 이 섬은 일본에 접해있고 조선<다케시마에서 조선까지 해상으로 40리라고 한다. (B)이 이야기는 교호 9년(1724) 예전에 여러 차례 섬으로 건너간 적이 있는 노인을 조사했을 때, 그 답변에 하쿠슈(伯州, 돗토리 현 서부) 아우미군(會見郡) 하마노메(濱野目) 미쓰야나기무라(三柳村)에서 오키의 고토(後島)까지 35~36리가 되는데, 이를 멀리 바라볼 때를 참고로 하면, 다케시마에서 조선산(朝鮮山)을 보는 것은 조금 멀리 보이므로 40리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C)생각컨대, 조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조선의 울릉산(鬱陵山)일 것이다>과 이웃하는데…

위의 서술에 따르면, 오키의 마쓰시마에서 다케시마까지가 40리 정도이고, 다시 다케시마에서 조선까지 40리 정도 떨어져 있다(A). 이는 17세기 후반 여러 차례 다케시마로 도해해 본 경험이 있는 노인의 증언에 따른 것이다. 돗토리 번의 미쓰야나기무라에서 오키의 고토¹¹⁵⁾가 35~36리 정도 되는데, 둘 사이를 멀리서 바라볼 때보다 다케시마에서 조선산(朝鮮山)을 바라볼 때가 조금 더 멀게 느껴지므로, 35~36리보다 조금 더 먼 40리 정도일 것이라는 논리이다(B). 그리고 저자 가나모리 겐사쿠는 여기서 말하는 조선산(朝鮮山)이란 조선의 울릉산(鬱陵山)일 것이라는 의견을 남기고 있다(C).

정영미는 『竹島圖說』에서 말하는 다케시마란 '지리적 실체로서의 마쓰시마(독도)를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한다.¹¹⁶⁾ 정영미의 설명은 이렇다. 먼저, (B)에 보이는 조선산(朝鮮山)은 '가나모리도 인정하듯' 조선의 울릉도로 보아야 한다. (C)에서 가나모리는 '조선산(朝鮮山)=울릉산(鬱陵山)'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조선산=울릉산=울릉도'에서 동쪽으로 40리 정도 떨어진 (A)의 '다케시마'는 자연스럽게 독도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다.

과연 『竹島圖說』의 저자가 말한 '조선산=울릉산'이라는 것이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을까? 여기서 『竹島圖說』의 저자 가나모리가 오키와 한반도 동해안 사이의 해역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사료를 보도록 하자.

[자료 5]¹¹⁷⁾

하쿠슈 요나고(米子)에서 다케시마까지 해상으로 160리 정도 있다. 요나고에서 이즈모(出雲)으로 가서, 오키의 마쓰시마(隱岐ノ松島)를 거쳐 다케시마에 도달한다. 단, 오키의 후쿠시마(福島)[혹은 후쿠우라(福浦)라고 한다]에서 마쓰시마까지 해상으로 60리, 마쓰시마에서 다케시마까지 40리라고 한다.

이상의 이야기는 교호 9 갑진년(1724) 관부(官府)<강부(江府)>의 두문(叩問)에 따라 요나고(米子)의 상인 오야 규에몬(大谷九右衛門)·무라카미 이치베에(村上市兵衛)가 답변한 문서가 원천이다.

위의 [자료 5]는 [자료 4]에 이어지는 부분이다. [자료 5] 밑줄을 그은 부분에 따르면, 마쓰시마는 오키의 후쿠우라에서 60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 이를 다시 [자료 4]과 합쳐서 보면, 저

115) 도고(島後)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16) 주 8의 책, p.132. (가)와 (나)의 이해에 따르면 19세기 산인 지방의 '다케시마'라는 명칭이 가리키는 대상은 울릉도여야 한다.

117) 주 27과 같음.

자의 인식 속에서 오키의 후쿠우라에서 60리 떨어진 곳에 오키국 마쓰시마가 있고, 오키국 마쓰시마에서 40리 떨어진 곳에 다케시마가 있다. 그리고 이 다케시마에서 다시 4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울릉산'이 있는 것이다.

물론 '울릉산'을 울릉도로 본다면, 이곳에서 40리 동쪽으로 떨어진 '다케시마'는 독도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케시마(=독도)'에서 40리 떨어져 있고, 오키에서는 60리 떨어진 '마쓰시마'라는 섬은 어느 섬을 가리키는 것일까? 독도와 오키 사이에 존재하는 '환상 속의 섬'을 가리키는 것일까?

사실 『竹島圖說』에 보이는 가나모리의 '오키-마쓰시마-다케시마'에 대한 인식은 17세기 산인 지방의 비교적 정확했던 지리 인식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는 [사료 5]의 마지막 부분에서 해당 섬들의 거리 정보에 대해 '1724년 막부의 질문에 요나고의 상인 오야 규에몬과 무라카와 이치베에가 답변한 문서'를 근거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즉 가나모리의 인식 속에서 '오키-마쓰시마-다케시마'에 대한 인식은 17세기의 그것과 같았으며, 이는 『竹島圖說』에서 말하는 마쓰시마가 가리키는 대상은 독도였고, 다케시마가 가리키는 대상은 울릉도였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다케시마(=울릉도)'에서 다시 40리 정도 떨어진 '울릉산'이 가리키는 대상은 실제 울릉도가 될 수 없다. 다케시마(=울릉도)와 한반도 동해안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환상 속의 섬'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다.¹¹⁸⁾ 정영미는 위의 '울릉산-다케시마-마쓰시마-오키' 관계에서 '울릉산'이 가리키는 대상을 울릉도로 보았기 때문에, '다케시마'가 가리키는 대상은 '지리적 실체로서의 마쓰시마(독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마쓰시마'란 독도와 오키 사이에 존재하는 '환상 속의 섬'을 가리키게 된다. 하지만 19세기 산인 지방의 일부 일본인들의 인식 세계 속에서 '환상 속의 섬'은 오키와 독도 사이가 아닌, 울릉도와 한반도 동해안 사이에 나타났다. 그리고 『竹島圖說』에서도 '다케시마'는 울릉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마쓰시마'는 독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3. 환상 속의 섬 울릉도

위에서는 『竹島圖說』(1849)에 등장하는 '울릉산'이 가리키는 대상을 실제 울릉도로 볼 수 없으며, 한반도 동해안과 울릉도 사이에 존재하는 '환상 속의 섬'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竹島圖說』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저술된 『竹島考』(1828)에서도 마찬가지로 '환상 속의 섬'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환상 속의 섬'에 대해 처음 언급한 사료로 보인다.

『竹島考』는 1828년 돗토리 번(鳥取藩)의 번사 오카지마 마사요시(岡嶋正義)가 울릉도에 관한 기록과 전승을 합쳐 상하 두 권으로 편찬한 책이다. 그 서문에 따르면, 오카지마가 과거 돗토리 번에서 막부에 제출한 울릉도에 관한 상세한 자세한 기록과 지도를 입수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그동안 자신이 울릉도에 관해 들은 이야기를 합쳐서 책으로 편찬했다고 한다. 19세기 초중반 산인 지방의 울릉도-독도 인식을 말해주는 향토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이하에서는 『竹島考』의 저자 오카지마가 말하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이었으며, 19세기 산인 지방 일본인들의 인식 세계 속에 '환상 속의 섬'이 등장하게 되는

118) [사료 4]의 (B)에서 막부의 조사에 응한 노인이 17세기 후반 다케시마에서 바라보았다는 조선산(朝鮮山)은 한반도 동해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 산인 지방의 울릉도-독도에 관한 지리정보가 부족해지고 왜곡되면서, 『竹島圖說』의 저자 가나모리는 조선산(朝鮮山)을 다케시마(=울릉도)와 한반도 동해안 사이에 존재하는 환상 속의 섬으로 파악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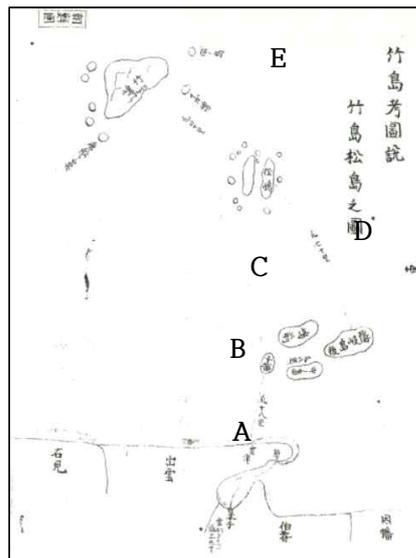
경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우선 오카지마의 지리 인식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6]¹¹⁹⁾

또한 다케시마로 도해하는 물길은, 호키국 요나고(伯耆國米子)에서 이즈모국 구모쓰(出雲國雲津)로 해상 9리<육로 7리 반 5정>, 구모쓰에서 오키국 지부리(隱岐國地千振)로 18리, 지부리에서 도고(嶋後)의 후쿠우라(福浦)로 8리…후쿠우라에서 돛을 펴고 북서쪽을 향해 70리 정도의 해로를 거쳐 마쓰시마에 도착하여 배를 댄다. 그리고 다시 40리 정도를 가서 다케시마에 도착하는 것이다. 호키국에서 다케시마까지의 해로는 대략 150~160리 정도에 불과하다.

위 [자료 6]에서 오카지마는 오키의 후쿠우라에서 마쓰시마까지가 70리, 마쓰시마에서 다케시마까지가 40리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그림 2]의 지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는 오카지마의 설명에 따르면, 1724년 막부의 울릉도 도해에 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오야(大谷) 가문과 무라카미(村上) 가문에서 제출한 지도를 축소하여 그린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A는 요나고, B는 구모쓰, C는 지부리, D는 후쿠우라, E는 마쓰시마, F는 다케시마, G는 조선이다. 위의 그림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A-B는 '海上九里', B-C는 '凡十八里', C-D는 '凡八里', D-E는 '凡七十里', E-F는 '凡四十里'라는 설명이 있다.¹²⁰⁾ 즉, [자료 6]의 밑줄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카지마의 A-F사이의 지리 인식은 『竹島圖說』와 마찬가지로 17세기의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고, 『竹島考』에서도 마쓰시마가 가리키는 대상은 여전히 독도였으며, 다케시마가 가리키는 대상은 여전히 울릉도였다. 여기서도 '마쓰시마'가 울릉도를 가리키거나, '다케시마'가 독도를 가리키는 일은 확인할 수 없다.

F



[그림 2] 「竹島松島之圖」

119) 「竹島松島之地理」 항목. 자료 원본은 'Web竹島問題研究所' 홈페이지에서 『竹島問題に關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자료편에 수록된 『竹島考』의 보정판(처음 공개한 『竹島考』는 일부 스캔 데이터가 결락되어 있었음)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을 이용했으며, 국역은 본 발표자에 의한다.

120) 오카지마는 F-G를 35리 혹은 40리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오카지마는 다케시마의 서쪽에도 하나의 섬이 더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름이 아닌 '울릉도'이다. 물론 이러한 인식은 17세기의 지리 인식을 계승한 것이 아니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사료가 자세하다.

[사료 7]

혹자가 물었다. 최근 편찬된 아베(安部)씨의 『因幡志』에 '울릉도(鬱陵嶋)를 일본에서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자산도(子山島)를 마쓰시마라고 부른다'라고 적혀 있는 것은 정확한 것이냐고.

답하여 말했다. 竹島(다케시마)라는 이름은 중국과 조선의 서적에도 왕왕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본에서만 竹島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니 굳이 논할 필요도 없지만, 이 잘못된 이야기의 기원을 생각해 보건대, (A)『三國通覽』의 「與地路程之圖」에 조선국 강원도 해상에 하나의 섬을 그리고, 또한 오키와 조선국 한 가운데 바다에 다케시마를 그린 다음, '조선국의 소유다. 이 섬에서 오키를 바라보고, 또한 조선국도 본다(朝鮮國ノ持ナリ、此島ヨリ隱州ヲ望ミ、又朝鮮國ヲモ見ル)'라고 옆에 주를 달았는데, 이 섬 동쪽에 하나의 작은 섬을 붙여 놓았다. 아마 마쓰시마일 것이다. 그리고 같은 책의 (B)「朝鮮國全圖」를 보면, 역시 강원도 바다 안에 섬이 있어서 '울릉도천산국(鬱陵嶋千山國)'라고 적은 다음, 그 안에 산을 모사하고 그 이름을 이소타케(弓嵩)라고 했다. 바로 「與地路程之圖」에 있는 강원도 바다 안에 보이는 작은 섬이 이것이다. 모든 『三國通覽』의 지도는 지구의 위도에 따라 모사한 것이라 지도의 폭에 한계가 있으므로, 「朝鮮國全圖」에는 오키와 다케시마를 그리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이 지도는 조선 한 나라만 그린 것이므로, 땅도 다소 넓게 그려졌고, (C)울릉도도 육지에서 떨어진 먼바다 안에 있는 것은 마치 다케시마를 방불케 한다. (D)이런 것을 고레치카(惟親)<아베씨>가 착각하여, 이 섬 옆에 하나의 작은 섬이 없는 것을 하야시 시헤이(林子)가 빠트린 것으로 생각하고, 또 울릉도 안에 천산국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하나의 섬에 잘못하여 두 섬의 이름을 쓴 것이라고 잘못 추측하여, 『因幡志』에 '울릉도(鬱陵嶋)를 일본에서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자산도(子山島)를 마쓰시마라고 부른다'라고 적은 것이다. '千'과 '子'는 모양이 비슷하여 잘못 옮겨 적은 것이다. 다시 이 지도를 살펴보면 그 잘못이 확실하게 보일 것이다. 내 추측이 맞다면, (E)애초에 그 섬은 다케시마가 아니므로, 그 옆에 마쓰시마가 있을 도리가 없다...

다소 길고 복잡하지만 오카지마가 말하는 바는 이렇다. 우선 1795년에 편찬된 『因幡志』¹²¹⁾에서는 울릉도를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부른다고 하고, 자산도를 마쓰시마라고 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는 『因幡志』의 저자인 아베 고레치카(安部惟親)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논리에 대해서는 다음 그림을 참고로 하여 확인하도록 하자.¹²²⁾

먼저 『三國通覽』(1785)에 수록된 [그림 3]의 원 안을 보면 강원도 옆에 섬이 하나 있다. 그리고 바다 한 가운데에 '다케시마'를 그린 다음, 그 옆에 작은 섬을 그려놓았는데, 이는 마쓰시마로 보인다고 한다(A). 한편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三國通覽』에 수록된 [그림 4]의 원 안을

121) 돗토리 번의 어용 의사 아베 고레치카(安部惟親, 또는 교안[恭庵])가 1795년 편찬한 향토 지리서. 'Web竹島問題研究所' 홈페이지에서 오카지마 마사요시에 의한 필사본(일부)을 공개하고 있으며, 일본 국립 공문서관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에서도 여러 종류의 사본을 공개하고 있다.

122) 일본 와세다대학 고전적 종합데이터베이스에서 공개하고 있는 『三國通覽』을 이용했다.



[그림 3] 「與地路程之圖」



[그림 4] 「朝鮮國全圖」

보면, 강원도 옆에 그린 섬에 '울릉도천산국(鬱陵嶋千山國)'라고 적은 다음, 그 안에 이소다케(弓嶯)라는 산을 그렸다. 이 섬이 바로 [그림 3]의 원 안에 보이는 섬이라는 것이다(B). 이 [그림 3]과 [그림 4]의 원 안에 보이는 섬이 울릉도인데, [그림 4]에서는 마치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인 것처럼 왜곡되었다(C). 그래서 아베 고레치카가 [그림 4]의 원 안에 보이는 울릉도가 [그림 2]의 다케시마인 것으로 착각했고, 그 결과 『因幡志』에서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동일시하고, 자산도¹²³⁾와 마쓰시마를 동일시 한 것이다(D). 그리고 [그림 3]의 원 안에 있는 울릉도는 다케시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옆에 마쓰시마가 그려지지 않은 것도 당연하다고 한다(E).

오카지마가 말하는 '울릉도'라는 섬에 대해서 보면, 한반도 동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며(C), 다케시마와는 별개의 섬이라고 한다(D)(E). 또한 마쓰시마는 '울릉도'가 아닌 다케시마의 동쪽에 존재한다고도 하고 있다(A)(E). 즉, 오카지마는 오키와 한반도 동해안 사이 해역에는 '마쓰시마-다케시마-울릉도'라는 세 개의 섬이 존재한다고 본 것이고, 앞서 말한 것처럼 『竹島考』의 마쓰시마와 다케시마는 각각 독도와 울릉도를 가리키고 있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울릉도'라는 명칭의 섬이 가리키는 대상은 그 이름과 달리 실제 울릉도가 될 수 없다. 강원도에서 멀지 않은 해역에 있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섬, 잘못된 지리 인식 속에만 존재하는 '환상 속의 섬'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료 7]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울릉도'라는 이름의 환상 속의 섬'이 오카지마의 인식 세계 속에 나타난 것은 『三國通覽』(1785)에 수록된 「與地路程之圖」와 「朝鮮國全圖」 속 강원도 옆에 그려진 '울릉도'라는 섬 때문이었다. 오키와 한반도 동해안 사이 해역에는 순서대로

123) 우산도(于山島)를 『三國通覽』의 저자 하야시 시헤이는 천산도(千山島)로 기재했는데, 오카지마는 『因幡志』에 보이는 자산도(子山島)라는 표기가 저자 아베 고레치카의 오독인 것으로 보고 있다. 주 35의 오카지마가 필사한 『因幡志』의 '筆記之部' 三'에 자산도(子山島)라는 표기가 보이며, 그 위에 'ウサムスム(우사무스무=우산섬)'이라는 독음이 달려 있다.

'마쓰시마'와 '다케시마'라는 두 섬이 존재한다는 17세기 이후의 인식 세계 속에, 18세기 말에 편찬된 지리서가 '다케시마' 너머의 바다에 존재하는 '울릉도'라는 섬을 등장시킨 것이다.

물론 오카지마가 비판한 『因幡志』(1795)의 저자 아베와 『隱岐古記集』(1823)의 저자 오니시처럼 이 새롭게 등장한 '울릉도'와 기존의 '다케시마'가 가리키는 대상을 오버랩시키는 데에 성공한 부류도 존재했다. 하지만 그 한편으로 『竹島考』(1828)의 저자 오카지마와 『竹島圖說』(1849)의 저자 가나모리처럼 두 명칭이 가리키는 대상을 오버랩시키는 데에 실패한 부류도 나타났다.¹²⁴⁾ 이렇게 후자와 같은 부류의 인식 세계 속에서 '환상 속의 섬 울릉도'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전자와 후자 어느 쪽에서도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가리키는 대상이 '울릉도'의 등장으로 변화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4. 나오며

이상 19세기에 완성된 근세 일본의 각종 향토 자료를 통해, 당시 산인 지방 일본인들이 오키와 한반도 동해안 사이 해역의 지리 인식을 확인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세기 근세 산인 지방 일본인들은 해당 해역에 오키-마쓰시마-다케시마가 존재한다고 인식했다. 물론 '마쓰시마'를 '소나무에 뒤덮인 모습이 만 리에 그림자를 드리운' 섬이라고 표현하는 등 실제의 독도와 괴리된 모습으로 묘사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마쓰시마'는 독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다케시마'는 울릉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위에, 18세기 말에 편찬된 지리서의 영향으로 '다케시마'와는 별도로 '울릉도'라는 섬도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부류가 생겨났다. 이들의 인식 속에서는 이미 '다케시마'가 울릉도를 가리키고 있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울릉도'란 실재하지 않는 '환상 속의 섬'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것이 19세기 근세 산인 지방의 향토 자료가 말하는 해당 지역 일본인들의 오키와 한반도 동해안 사이 해역에 대한 지리 인식이었고, 이러한 인식 속에서 '마쓰시마'라는 명칭이 가리키는 섬이 독도에서 울릉도로 바뀌거나 다케시마라는 명칭이 '지리적 실체로서의 마쓰시마(독도)를 가리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케시마'와 '울릉도'를 동일화시킬 수 있었던 부류든, 이에 실패한 부류든, 그들의 인식 세계 속에서 '다케시마'는 실제 울릉도를 가리키는 명칭이었고, '마쓰시마'는 실제 독도를 가리키는 명칭이었다.

위와 같은 이해에 따른다면, ⑧『長生竹島記』(1801)에서 '마쓰시마'를 '일본 서해의 끝이다(本朝西海のはて也)'라고 표현하거나([사료 1]), ⑦『竹島圖說』(1849)에서 '마쓰시마'를 '오키국 마쓰시마(隱岐國松島)'라고 표현한 것([사료 4])은, 냉정하게 말해서 모두 독도에 대해 그렇게 서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마쓰시마란 사실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식의 반박은 성립될 수 없으며, 유효하지도 않다고 보인다.

사실, 『長生竹島記』나 『竹島圖說』과 같은 일부 향토 자료에서 독도를 일본의 판도 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독도의 영유권에 무언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¹²⁵⁾ 앞서 이케우치의 선행 연구를 통해 언급한 것처럼 '지리적인 지견(知見) 그 자체로는 영유권의 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하며, 울릉도 쟁계의 결과로 나온 '다케시마 도해 금

124) 사실 『三國通覽』의 [그림 3] 「與地路程之圖」와 [그림 4] 「朝鮮國全圖」만 놓고 보면, 오카지마의 해석처럼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별개의 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한반도 동해안과 오키 사이에는 울릉도와 독도 두 섬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현재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오카지마는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오버랩시키는 것에 '실패'한 것이다.

125) 池内敏「近世日本の西北境界」(『史林』90-1, 2017)에서는 『長生竹島記』나 『竹島圖說』와 반대로 근세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판도 밖으로 보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사료를 소개하고 있다.

지령(竹島渡海禁止令)'은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마쓰시마'라는 이름의 독도가 공식 영지 증명서(領地朱印狀)에 돛토리 번주의 영지로 기재된 사실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¹²⁶⁾ 근세 일본 중앙정부(막부)나 지방정부(돛토리 번)의 공식 견해는 독도를 일본의 판도 밖으로 보는 것이었고, 결국 『長生竹島記』나 『竹島圖說』에 보이는, 독도를 마치 일본의 판도 안인 양 보는 서술은 운유숙의 지적처럼 19세기 들어 독도에 대한 산인 지방 일본인들의 기억이 애매모호해지면서 잘못 전승된 결과일 뿐이다. 설령 위의 사료 외에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는 향토 자료가 다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민간의 인식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애초에 독도에 대한 영유 인식이 곧 그 영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며, 백보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의 향토 자료가 정부의 공식 입장보다 큰 의미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일본 측이 제시한 사료는 사료대로 자연스럽게 해석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입장으로 대응해도 괜찮을 것이다.

126) 주 6의 책, pp.45-49.

【제3토론】

이형주 「근세 일본 향토 자료 속의 독도」

현 명 철

◎ ‘독도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일본 자료를 검토한 발표. 정영미와 윤유숙의 연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발표라 판단된다. 일본의 향토자료를 분석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목표를 잘못 정하여 결론은 ‘마쓰시마=독도, 다케시마=울릉도’라는 미묘한 결론이 되었다.

◎내용 요약

1) 『長生竹島記』(1801, 이즈모의 신관 矢田高當)

오키에서 마쓰시마는 서남쪽 170리 정도에 있고, 산세가 험준하고, 토지의 길이는 5리나 3리 정도이고, 소나무에 뒤덮인 풍경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다. 다케시마 도해시 다케시마호가 왕복할 때는 반드시 이 섬에 정박한다고 한다. 지금도 천 석(石) 정도의 회선이 예조 마쓰마에로 가다가 어쩔 수 없이 큰바람에 휩쓸리면, '이것이 소문으로 들던 마쓰시마인가?'라며 멀리서 바라본다. 일본 서해의 끝이다(本朝西海のはて也). 마쓰시마에서 다케시마는 서쪽으로 대략 160리 정도 거리에 있다....

→ 정영미는 마쓰시마의 기슭을 보고 울릉도라 보고, 울릉도와 독도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라 파악하였지만, 방향으로 보면 마쓰시마는 독도라 보이며, 독도의 풍경에 대한 서술은 ‘松島’라는 명칭에 이끌린 야다(矢田)가 상상속에서 만들어낸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해안-울릉도(130km, 70해리), 울릉도-독도(87.5km, 49해리), 독도-오키(159km, 86해리), 오키-일본해안(50km, 27해리), 1리=4km, 1해리=1.85km(독자들에게 실지 거리와 사료상의 거리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료 비판이 설득력이 있다.)

*이 자료가 갖는 가치의 한계성과 오류 등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2) 『隱岐古記集』(1823, 大西教保)

노토반도에서 북서쪽 40리 정도 떨어진 곳에 마쓰시마가 있다. 둘레는 1리로 생목(生木)이 없는 돌섬이라고 한다. 서쪽 방향으로 70리에 다케시마가 있다. 여기에서 조선을 바라보면 온슈(隱州, 오키)에서 운슈(雲州, 시마네현 동부)를 보는 것보다 더욱 가깝다고 한다. 지금은 조선인이 왕래한다고 한다.

→ 정영미는 여기서 마쓰시마에서 조선이 보인다고 읽고 마쓰시마를 울릉도로 보았지만 다케시마에서 조선이 보인다고 읽어야 한다.

*노토(能登)반도에서는 정서쪽이다. 울릉도에서 조선까지 130km, 오키에서 본토까지 50km이다. 이 자료가 갖는 한계성과 오류 등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거리도 포함하여.

3) 『竹島圖說』(1849, 金森建策)

(A)오키국 마쓰시마(隱岐國松島)의 니시시마(西島)[마쓰시마에 속한 하나의 작은 섬이다. 현지에서는 쓰기시마(次島)라고 한다]에서 해상으로 40리 정도 북쪽에 하나의 섬이 있다. 이름하여 다케시마라고 한다. 이 섬은 일본에 접해있고 조선까지 40리라고 한다.

(B)이 이야기는 교호 9년(1724) 예전에 여러 차례 섬으로 건너간 적이 있는 노인을 조사했을 때, 그 답변에 다케시마에서 조선산(朝鮮山)을 보는 것은 조금 멀리 보이므로 40리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생각컨대, 조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조선의 울릉산(鬱陵山)일 것이다>

하쿠슈 요나고(米子)에서 다케시마까지 해상으로 160리 정도 있다. 단, 오키의 후쿠시마(福島)[혹은 후쿠우라(福浦)라고 한다]에서 마쓰시마까지 해상으로 60리, 마쓰시마에서 다케시마까지 40리라고 한다.

→ 정영미는 울릉산을 울릉도로 보았기에 다케시마를 독도로 파악하였지만, 울릉산은 상상속의 섬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케시마는 울릉도, 마쓰시마는 독도이다.

*독도에 속해 있는 니시시마(西島) 혹은 쓰기시마(次島)의 진위. 거리 계산의 진위, 울릉도에 여러차례 건너간 적이 있는 노인에 대한 진실성. 요나고 상인의 정확성 등도 엄밀하게 분석하여 주어진 자료의 가치와 한계 등을 제시할 필요.

4) 『竹島考』(1828, 岡島正義)

혹자가 물었다. 최근 편찬된 아베(安部)씨의 『因幡志』에 '울릉도(鬱陵嶋)를 일본에서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자산도(子山島)를 마쓰시마라고 부른다'라고 적혀 있는 것은 정확한 것이냐고.

답하여 말했다. 고레치카(惟親)<아베씨>가 착각한 것이다. 울릉도- 다케시마 - 마쓰시마가 있다.

다케시마 너머 서쪽에 환상의 섬 울릉도를 등장시키고 있다.

*『因幡志』의 기술과 『竹島考』 기술의 차이

◎ 질의

울릉도-독도(49해리), 독도-오키(86해리), 1리=4km, 1해리=1.85km

1. 독자들에게 실지 거리와 사료상의 거리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료 비판이 설득력이 있다.
2. 정영미를 비판하느라고 사료 자체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부족하다. 각 사료에 대해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
예) “독도의 풍경에 대한 서술은 ‘松島’라는 명칭에 이끌려 야다(矢田)가 상상속에서 만들어 낸 표현이다”
3. 다케시마 서쪽으로 상상의 섬 울릉도를 만들어 내게 된 역사적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가?
4. 독도에 대한 『因幡志』의 기술과 『竹島考』 기술의 차이가 있는지요?

◎ 총평

일본이 독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료를 분석하였다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본 발표는 정영미의 오바한 부분을 지적하느라고 마쓰시마-다케시마 명칭에 중점을 두어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지 못하였기에 미완의 작업이라고 보인다. 각 자료는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를 학계에 소개해 주면 일본측이 이 자료를 활용하였을 때 적절한 비판이 가능할 것이고, 학계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발표가 될 것

이라 생각한다. <끝>